

2025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국정책방송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 국제방송교류재단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한국관광공사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언론중재위원회

일 시 2025년10월20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정책방송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하여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인 11개 기관들은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서비스, 문화예술과 전통예술 인재 양성, 정부 정책 홍보 및 정부 영상물 보존관리,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언론 진흥과 중재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중독의 급증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지역언론 활성화 및 정부광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회복 및 지역관광 활성화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각 기관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관증인들의 증인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은 총 열아홉 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9일로 예정된 종합감사 등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심오택

사무처장 이진식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편장완

사무국장 이선영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직무대행 이찬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세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

경영본부장 유병철

미디어본부장 남정호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김태정

방송본부장 권태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사무처장 김일희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사회와
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표이사 윤두현
경영본부장 김현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신미경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수
사무총장 김윤정

○ 위원장 김교홍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 대상 기관들의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각 의원실에 전달되었고 감사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관광공사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고 나머지 기관들의 업무보고는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심오택입니다.

오늘 2025년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절을 뜻깊게 생각하며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7년 9월에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로서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과 조정,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사행산업 현장 실태 확인 및 지도감독, 불법도박 감시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민간위촉위원 11명과 당연직 정부위원 4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처 조직은 4과 1센터이고 공무원 정원은 총 24명입니다. 소관 공공기관으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있습니다.

위원회 예산은 총 645억 원으로 위원회 운영경비 43억 원, 불법온라인도박감시 시스템 구축비 4억 원,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비 23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과 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사행산업 규모가 2022년도 기준 약 103조에 달하고 2024년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검거 인원 중 47.3%가 19세 미만 청소년일 정도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도박 경험이 평균 12.9세로 저연령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서 절도, 폭력, 불법사채 등 2차 범죄로 연계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박중독으로 인한 상담·치료 및 예방교육 서비스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

황으로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법정부적 대응이 필요하고 변화되는 현실을 고려한 제도개선 및 유관기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서 건전한 사행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출총량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총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행산업 전체 매출총량은 총 12조 6927억 원입니다. 매출총량을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해서 외국인 카지노를 매출총량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전한 다른 종목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감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이 되겠습니다.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를 시행해서 매출총량 설정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선정에 반영하는 등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건전화 평가편람을 전면 개편해서 5대 핵심 관리과제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에 투입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257억 원을 금년에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사행산업 사업자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실명구매 확대와 온라인 이용 데이터 기반의 점검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구매상한제 준수 등 건전한 이용이 강화되도록 관계부처,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행산업의 사회 환원 기능을 강화하고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행산업 영업장과 연계시설을 복합문화 레저공간으로 조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불법도박 사이트의 신속 차단을 위해서 수사기관, 방침위,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및 실효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도박범죄 의심계좌를 수집·분석하여 수사의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불법도박 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신종 불법도박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상향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불법온라인도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연말까지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와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역량을 높이고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박문제 예방교육 및 홍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

련하여 지난 5월에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했습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5월에 교육부와 함께 청소년 도박 예방주간을 운영하고 연령별 맞춤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도박 문제 발생 대응 매뉴얼을 학교에 배포하고 전문 상담인력을 운영해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교육부, 경찰청 등 청소년 유관기관과도 협업을 강화해서 사회적 현안인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열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나오는 위원님들의 고견 또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입니다.

2025년 국정감사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재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함께 출석한 저희 재단 본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철 경영본부장입니다.

남정호 미디어본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 앞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첫째, 재단은 언론진흥기금 사업을 통해 뉴스미디어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층 기획취재 지원 사업과 뉴스콘텐츠 공용 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언론이 고품질 뉴스콘텐츠를 생산하고 급변하는 IT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돋고 있습니다.

7쪽부터 8쪽입니다.

둘째, 뉴스정보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3개 공동배달센터와 공동 수송노선을 운영하여 배달 낙후지역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높이고 한계지역에 신문이 효율적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학교와 사회의 미디어교육 사업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사업과 저널리즘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사와 광고가 윤리강령을 준수하는지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언론계의 자율심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넷째, 언론인의 취재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장기심층연수를 기존 10명에서 21명으로 확대했습니다.

10쪽부터 12쪽 상단입니다.

다섯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수업자료를 개발·보급하고 AI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해 교사와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연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를 개발해 운영 중으로 현재 미디어교육 분야 국가 공인자격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하단부터 13쪽 상단입니다.

여섯째, 미디어산업 진흥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0년 전통의 월간 신문과방송을 발행하고 국가승인통계인 신문잡지산업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4쪽부터 15쪽입니다.

일곱째, 정부광고법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와 정부광고 진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광고 수탁업무를 통해 2024년 기준으로 약 1조 3104억 원의 광고를 집행하고 1093 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 수수료는 언론진흥기금에 출연해 앞에 보고드린 언론 지원과 미디어교육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15쪽에 있는 바와 같이 지역 및 중소 언론사의 경영개선 지원 등을 위한 공익광고 집행 등 정부광고 진흥 사업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여덟째, 재단은 뉴스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서 뉴스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다루는 심층 기획취재와 지역신문 자생력 강화 사업, 인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신문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경청하고 향후 사업과 기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나오셔서 현안 중심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서영충입니다.

오늘 2025년도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는 1962년 국제관광공사법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국제관광진흥, 국민관광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 연구·개발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관광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공사 주요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주요 사업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관광 수요창출 확대, 지역관광 미래활력 제고, 관광협업 생태계 활성화, 관광콘텐츠 질적성장 촉진이라는 4대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쪽, 한국관광 수요창출 확대입니다.

공사는 인바운드 수요 확대를 위해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지출 규모가 큰 방한 외래객 의료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약 두 배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의료·웰니스·MICE 등 고부가가치 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외래관광객 최대 유치 달성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6쪽, 지역관광 미래활력 제고입니다.

관광을 통한 내수경기 진작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여행가는 달 캠페인, 숙박 세일페스타,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축제, 야간관광, 레저관광 등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리는 여행환경 조성을 위해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관광협업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공사는 여행하기 좋은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1330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고도화 및 모바일 간편 결제 확대와 같은 안내·교통·쇼핑·숙박 등 관광 접점 서비스 품질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기업의 발굴부터 해외 진출까지 단계별 밀착 지원과 관광 인재 발굴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 교육 및 취업 지원 등 전반적인 관광산업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고품질 관광 콘텐츠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공사는 한국형 관광 콘텐츠 육성 및 브랜드 강화를 위해 해양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한류콘텐츠 연계 관광 등 이종산업과의 융합과 시장 수요를 반영한 신규 관광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데이터랩, 한국관광산업포털, 한국관광콘텐츠랩 등 관광 종합플랫폼 기반의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확대 및 업계 간 협업·교류 활성화를 추진하여 더욱 효과적인 관광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사는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깊이 유념하고 한국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이정은 정책기획관, 신은향 예술정책관, 채수희 해외홍보정책관, 공형식 소통정책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 강수상 체육국장, 김정훈 관광정책국장,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 질의할 때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및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본 위원은 한예종 무용원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먼저 실추된 한예종의 위상과 명예를 되살리겠다는 각오로 성실히 답변서를 제출해 주신 한예종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자료가 내부 지시로 인해 축소·은폐되었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첫째, 2025년 전통예술원 전체 교수회의 현황 자료를 보면 8월 달 회의 목록이 누락돼 있습니다. 누락된 이유에 대해 소명해 주시고 다시 제출 바랍니다.

둘째, 2024년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주최 부산 마스터 클래스와 2025년 7월 제주국제무용 조직위원회 주최 마스터클래스 관련 교수 명단 및 사례금 자료를 요청했으나 한예종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 기사 검색만 해도 참여 교수 명단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용원 실기과·창작과 및 전통예술원 무용과 학생들의 외부 공연 목록 역시 누락되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2025년 8월에만 최소 3건의 공연이 있었음에도 관련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무용원 입시시험 위원 명단도 핵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비리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평가·채점 위원의 명단이 전면 가려진 채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국정감사 방해 행위입니다. 위원장님의 엄중한 경고와 함께 한예종이 축소·은폐한 자료를 즉시 원본대로 재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축소·은폐를 지시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한예종 총장님 나와 계신데 자료 요구는 제대로 자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즉시 시정하고 자료 요구에 응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혹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반드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김승수 위원님.

○ 김승수 위원 저도 자료제출과 참고인 요청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앞서 조은희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국정감사 자료제출은 예

년에도 불성실하거나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개선이 없이 부실한 자료제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한예종에 교수로 재직하다가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으로 간 이동연 문체비서관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특히 자료제출이 부실 제출되거나 아니면 지체 제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국정감사 시에도 정치활동과 관련해서 한예종 교직원 중에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었냐는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없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추후에 직원 정치활동 사전 승인된 사례를 확인을 하니까 그제서야 있었다고 이렇게 정정하는 그런 혀위 제출 사례가 있었고요.

최근에 또 이동연 교수와 관련해 가지고 출장보고서와 관련된 자료들, 기타 채용과 관련된 자료들, 여러 자료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해당 과에서도 지체됐을 뿐만 아니고, 해당 과에서는 이미 기획실로 보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획실에서 자료제출을 지체하는 사례가 수차 있었습니다. 몇 차례 전화를 하고서야 자료가 들어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예종 내부적으로 국감 자료제출에 대해서 겸열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의 컨펌을 받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총장님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앞서 조은희 위원의 지적처럼 한예종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교홍 예.

○ 김승수 위원 아울러 참고인 요구입니다. 지난 9월 25일 중앙일보는 '멜라니아 옆 비어 있던 한국 자리 좋은 외교 기회였는데 아쉬워'라는 그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유엔총회 회의에 참석해서 그때 멜라니아, 미국 영부인 옆 좌석에 배정되는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친교를 다질 수 있는, 여기 본회의장 자체에 불참함으로써 그 기회를 놓쳤다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에 틀린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중위의 제소나 그런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기사를 삭제했다가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저는 본 예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겸열이나 외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기사를 쓴 관계 기자를 참고인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두 분 간사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자료 요청.

○ 임오경 위원 언론진흥재단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언론진흥 사업 관련돼서 언론인 교육 해외연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외장기연수, 24년도 언론인 10명 지원이 있고 25년도 21명의 지원이 있습니다. 2024년, 25년도 언론사 및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외중기연수 관련돼서 심층연수 3명 지원이 있는데 여기 또한 언론사 및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외단기연수 관련돼서 언론인 94명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언론사 및 명단을 제출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교홍 자료제출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자료 요청 있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국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드립니다.

첫날 국감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제출 태도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지난주에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본인들이 지원하는 인쇄매체광고 자율심의 지원사업 8억 원 예산사업 이외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해당 기구에 말하기를 ‘기타 사항은 의원실에 직접 답변해라’ 이렇게 떠넘기고서 빠져 버렸습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직접 감독 대상입니다. 문체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법인 목록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문체부가 스스로 감독하도록 위임을 배제한 대상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는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문체부가 주무관청으로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 행정 조치가 아니라 공익 보호와 법질서 유지의 의무 이행입니다. 관리감독기구인 주무관청이 국회와 기구 사이에서 도망칠 궁리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중이신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께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하도록 요청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문체부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박수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할 때마다 자료제출 요구를 위원장님께 이렇게 요청을 드려야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또 나아가 국회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해야지, 매번 이런 일들이 되풀이돼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자료를 수차례 공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것이 과연 제출받지 못할 자료인가, 이런 정도 자료를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권위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가를 생각하면 정말 황당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원본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각 위원별 서류 면접심사 채점표 원본 그다음에 위원 명단 원본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9월 15일 날 요청을 했는데 9월 17일 날 회의록과 평가표를 가져왔는데 전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15일, 16일 사장 외 위원 전원의 이름과 경력을 모자이크로 처리해서 다시 반복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10월 17일 날 결국 제출했는데 위원 1명은 여전히 모자이크 처리로 제출했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10월 19일, 각 위원이 평가한 서류 면접심사 채점표 원본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채점표가 들어 있는 봉인봉투의 곁면 사진만을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정말 이것은…… 국회의원실에서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제출 못 하는 것 이런 것은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류봉투의 곁면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은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원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름을 전부 모자이크 처리했다가 10월 17일 날 다 제출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 명 빼고. 그런데 이게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본 의원실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랜드코리아지요?

○박수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랜드코리아 대표님이 여기 나와 계신데 인사 문제가 사실 민감한 것은 없지 않아 있지만 웬만한 것은 다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데 굳이 그렇게 가려서 제출한다든가 또 한 사람은 동의 못 했다고 또 모자이크 처리한다든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예, 그런데……

○위원장 김교홍 거기에 대해서 대답만 하세요, 제출하겠다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제출해 주세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예.

○위원장 김교홍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한국관광공사 서영충 직무대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찬구 KTV 원장직무대리님, 그쪽에 나오시면 제가 안 보여서 저쪽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김교홍 사장님은 거기 앉아서 얘기하시면 되지요, 직무대행님은 앉아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이쪽의 발언대에 서시고.

○민형배 위원 원장님은 이쪽으로, 관광공사 사장직무대리님은 이쪽으로 좀……

○위원장 김교홍 안 보여서?

○민형배 위원 예, 안 보여요.

이쪽으로 좀 와 주시고.

KTV는 조금 기다리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대표가 지난 17일이지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면담했습니다. 면회를 간 거지요. 그리고 나니까 이른바 온 주요 언론들이, 특히 신문들이 사설을 쓴아내는데 동아일보 ‘윤 면회 후 뭉쳐 싸우자는 장동혁……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지’, 조선일보 ‘윤 면회 간 국힘 대표, 민심은 안중에 없나’, 경향신문 ‘윤석열 면회 간 장동혁 대표, 내란·극우 본당 꿈꾸나’, 한겨레 ‘기어이 윤석열 면회, 내란비호 본색 자인한 장동혁’, 중앙일보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면회,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사설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거 보이시지요? 보셨습니까, 지나갔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봤습니다.

○민형배 위원 국민의힘 당대표의 이런 행보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극우 내란 진당 그러니까 윤 어계인 세력에게 내란을 이어 가자고 선동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사인을 내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만 이게 끝나면 뭐 얼마든지 그런 공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 관광객을 향한 극우 내란 진당 세력 혹은 협중 세력, 윤 어계인 세력이 관광객들을 굉장히 혐오하고 배척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것 보시면 명동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계속 저런 시위가 이어집니다. 저런 시위가 이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서영충 직무대리님, 통합 위기관리 지침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민형배 위원 저기 보면 치안 불안, 즉 소요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 거의 소요에 가까운 이런 게 잠실·명동 이런 데서, 여기가 다 관광특구거든요. 그런데 이 관광특구에서 저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문재인 구속, 페이크 프레지던트 차이나리(Fake president China Lee), 부정선거 및 중국공산당 규탄, 이것 다 지금 내란 상황을 이어 가고 싶어 하는 듯한, 이미 다 정리돼서 끝난 일들을 이렇게 계속하는 집단들이 있고 이들의 집회를 보니까 관광객들, 특히 외국인 혐오 집회가 대부분이에요. 중국인 혐오 집회가 대부분이에요.

저것 한번 봐 보시면, 주관단체들 한번 봐 보십시오. 저기서 내놓은 집회명하고 집회기간을 봐 보십시오. 그러면 저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요 놀라운 사실은 명동 집회의 약 30%가 혐오 집회고 그중에 건수로 보면 작년에 4건이었던 게 56건으로 무려 12배, 14배가 폭증을 했습니다. 전체 집회 건수도 엄청 늘었는데 이 혐오 집회가 아주 극단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게 계엄 이후에 극우 혐오 집회가 상시화되면서 관광특구 명동이 혐오 집회의 상징 장소처럼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경찰의 신고 내용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집회 참가자가 난동을 부리며 열차 운행을 방해한다’ 이것 소요예요. ‘지나가는 사람 사진

을 찍고 집회 내용이 혐오적이다’, ‘집회 참가자가 태극기 깃대로 시민의 머리를 가격했다’ 이런 신고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요 수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명동하고 잠실 일대 집회 관련 신고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쯤 되면 K-관광이 잘못하면 혐오 관광에 동요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이번 사태를 모니터링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온당합니까? 이것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으면 되는 상황입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공사에서 좀 중시하고 있는 것은 인바운드 관련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동향이 어떤가를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내 방한 관광 부정 여론이나 방한 여행 취소 사례 발생 여부……

○**민형배 위원** 그런데 저게 모니터링 단계가 돼 가지고는 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저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위기경보 단계가?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4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고 ‘관심’, ‘주의’까지는 모니터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비재무 위기관리 활동은 ‘모니터링’, ‘인지’, ‘준비’, ‘대응’, ‘정상화’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비재무 상황이잖아요? 비재무 위기관리잖아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저게 인지 단계는 최소한 돼야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는데 계속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관광객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관광공사가 어떻게 안내를 해 줘야 될지 이런 상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아예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위기경보 상황을 보면 저렇게 지금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는데 관광공사가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안에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한국에서 가장 크게 듣는 말이 뭐냐 하면 ‘차이나 아웃’이에요, 관광객들을 향해서. 그리고 혐오 발언을 계속해요, 중국인들에 대해서, 중국 관광에 대해서. 명동 지금 그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가만두는 거냐 물어봤더니 진짜 답변이 가관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죄송한데요.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오히려 늘고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 추이를 한번 봐 보겠습니다.

2024년에 460만이었는데 올해 8월 말까지만 해서도 370만이나 됐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늘고 있는 것 맞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민형배 위원** 그런데 코로나 위기 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최고 많이 들어왔을 때 800만까지 들어왔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240만, 370만이면 거기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회복이, 저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관광객이 출지 않고 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괜찮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최대치가 800만이었는데 계속……

○민형배 위원 저런 집회, 극우 반중·혐오, 중국인 혐오 집회가 없었으면 관광객이 이보다 훨씬 더 늘었어야 온당하다고요,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저렇게 됐어요.

그리고 외교가에서 경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대사관이 10월 2일에 입장 표명했지요? 알고 계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형배 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위원님,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현지에서 SNS 채널 등을 통해서 환대 분위기 조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행업협회 등과 함께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민형배 위원 논의하고 있다고요? 저쪽에서는 이미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논의하고 있다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말씀드린……

○민형배 위원 그게 위기경보 단계에 대한 인지가 잘못돼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고요. 현재 단계는 영향을 일부 미치고 있습니다. 미치고 있는데 인바운드의 심각한 상태까지는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민형배 위원 그 안이한 대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아무렇지 않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영향을 지금……

○민형배 위원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서 괜찮다면서요. 여기 자료 답변에도 그렇게 돼 있고. 아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하셔야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위원님 지적사항 잘 유념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직무대행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혐오 집회가 더 가면 갈수록 늘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것은 대책을 아주 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오는 관광객마저도 못 오게 만들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관광수지 적자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위원장님 또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공사 입장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반중 시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우리

국민 2872만 명이 해외에 나갔습니다. 상대국이 어디든 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은 상대국으로 나가는 우리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한예종 편장완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 브니엘예고 학생 3명의 안타까운 선택 뒤에는 예고 전임교수, 대학교수, 대한무용협회의 병역비리, 입시비리 또 부적절한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비리 카르텔의 한 중심에 한예종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요. 특히 한예종 무용원의 경우는 조남규 교수가 이끄는 대한무용협회 한예종 지부라는 비아냥에 가까운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PPT 화면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화면을 보시면 김삼진 원장과 안덕기 부원장, 정재혁 교수, 김현웅 교수, 신창호 교수 등 무용원의 교수 5명, 전통예술원의 경우 이소정 교수 1명 이렇게 총 6명의 교수가 대한무용협회 상임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먼저 김삼진 무용원장부터 짚어 보지요.

다음 PPT 좀 보시지요.

김삼진 교수는 5년째 한예종 무용원장을 맡고 있는데 2024년 사단법인 소리무를 설립하고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사실상 전횡을 해 오다가 소리무 내에서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지자 면피성인지 올해 4월 29일 이사장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총장님, 한예종 교수들은 공무원에 준하여 겸직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대학무용협회와 소리무 활동 모두 겸직 승인 받았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제가 알기로는 겸직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렇지요? 명백한 겸직허가 규정 위반 아닙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올해 2월에 한예종의 박 모 교수는 겸직금지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김삼진 무용원장만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제가 신임 총장으로 지난주 월요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부터, 연휴 끝나고 시작했는데요.

○조은희 위원 짧게 답해 주십시오. 왜 김삼진 원장은 예외입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김삼진 원장님의 사건에 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자문도 받고 있고요.

○조은희 위원 겸직금지는 명확한 거니까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어쨌든……

○조은희 위원 다른 비리 혐의로 경찰조사 중인 것은 그다음 문제고요. 겸직금지 위반

으로 다른 교수는 해임됐는데 왜 김삼진 원장이나 다른 6명은 그대로 있느냐는 거지요. 왜 차별합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제가 알기로는……

○**조은희 위원** 한국무용협회 찬스입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은희 위원** 빨리 조치하십시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조은희 위원** 오후에 답해 주시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겹직의무 위반뿐만 아닙니다. 김삼진 원장은 비리 혐의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고소장인데요. 경찰에 고소된 사람입니다. 사단법인 소리무 측에서 김삼진 교수의 횡령·비리 혐의로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과 함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피해자들이 엄벌해 달라고 모은 탄원서들입니다.

김삼진 원장은 작년 11월 강남구 한 호텔에서 소리무 후원의 밤을 개최하는 등 그동안 무려 7억 원이 넘는 후원을 받았는데 이 중 3억 7000만 원을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집행해서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기부를 한 후원자들이 횡령, 특수 절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김삼진 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한 상태이며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과연 감이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행할 계획입니다.

○**조은희 위원** 법령에 따르면 과면입니다. 제대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전 무용원 입시비리 의혹이 대서특필된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모른다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총장 자격도 없으신 거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말씀하십시오.

○**조은희 위원** 한예종 무용원에서 3000만 원에 시험문제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인데요. 시험문제 유출 대가로 금품수수가 이루어졌고 그간 각종 비리로 홍역을 치러 온 한예종이지요, 그런데 또 지금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겁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그 예외 김삼진 원장입니다. 그때는 교수였는데 지금은 원장이 돼서 더 힘이 세겼어요.

저희 의원실로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항의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예종 입시시험 위원은 한예종 입학시험 관리지침 제6조에 따라서 학과별 교수회의 등을 통해서 정하고 부원장이 취합한 후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예종 무용원의 입시에 있어서는 김삼진 원장이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좀 보십시오.

그런데 김삼진 원장은 23년 7월에 서울예고에—서울예고예요, 한예종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는—한국무용 마스터 클래스 강의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김삼진 원장과 함께 그 예외 대한무용협회 소속 5명의 교수들도 같이 나갔어요. 선화예고, 계원예고, 고

양예고, 부산예고 등 입시 과외를 방불케 하는 강의입니다. 입시에 전권을 갖고 있는 무용협회 소속 교수들이 입시생이 몰려 있는 예고에 강의와 심사를 나가는 것이 적절합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조은희 위원**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법적으로 적절한지 안 한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거고요.

○**조은희 위원** 아니, 대답이 왜 그러세요? 부적절하지요. 총장님 자세가 그러니까 학교가 이렇게 비리의 온상처럼 보이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에 대해서 명예를 총장님이 지금 훼손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이렇게 예고에……

1분만 더 주십시오.

예고에 이렇게 강의를 나간 사람은 3년 동안 입시 심사위원으로 활동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한예종에서 제가 심사위원 달라니까 전부 가려서 제출했지요. 뭐가 구린 겁니까? 왜 가려서 제출하시는 겁니까? 즉각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채용비리 의혹이 또 있어요. 김삼진 무용원장 재임 시절인데 대한무용협회 소속 무용원의 A 교수 경우는 국립기관 재임 시 폭력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로 처음에는 교수 임용이 안 됐어요. 몇 년 후에는 교수로 채용됐어요. 이거 뭡니까? 범죄사실이 그동안 무죄가 됐습니까, 아니면 형사처벌된 사람도 교수 된다는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대한무용협회 소속 찬스를 김삼진 원장이 쓴 겁니까?

당장 자료 제출하시고요. 힘센 위원들 봐주고 교수들 봐주고 그러시지 마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존경하는 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즉각적으로 저희가 미비한 자료 바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절한 조치, 법령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의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구 직무대행님 발언대로 나와 계시기 바랍니다.

이찬구 직무대행께 한국정책방송원이 내란방조에서 국민방송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취지로 당부와 함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말씀하십시오.

○**박수현 위원** 저는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TV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KTV가 왜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했고 왜 역사의 불명예로 기록이 돼야 되는지를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찬구 직무대행에게 일문일답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묻지는 않

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셨던 내용을 종합 정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회의록에 기록될 것이고 이것은 KTV의 불명예로 역사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KTV가 다시 한번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전 구성원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정말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면서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KTV가 지난 비상계엄 국면에서 첫 번째, 언론 통제를 시도했고 두 번째, 황제관람이 있었으며 세 번째, 내란선전의 도구로 이용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론 통제입니다.

대통령 순방 비판기사 언론사에게 영상자료 제공을 중단한다는 통보 이것은 언론에 재갈 물리기 사례입니다. KTV가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당시 KTV는 입장문을 통해서 불법행위,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고 반박했지만 정작 KTV 담당자는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났다라고 답하며 공식입장과 상반된 내부 사정이 스스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그 당시 질의에 KTV 이은우 전 원장은 위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자리에 서서 거만한 자세로 위원들을 모욕했습니다. 게다가 KTV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결국 당시 해명은 사실과 달랐고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언론을 통제한 정황이 법정에서까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황제관람 관련입니다.

2023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청와대 국악공연을 두고 KTV는 무관중 공연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김건희 씨 참석이 밝혀지자 녹화 현장에 잠깐 중간에 들렀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기획문서, 좌석 배치, 동선 리허설 자료를 보면 이 행사는 애초부터 윤석열·김건희 씨 관람을 전제한 권력자 전용 황제관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행사를 기획한 최재혁 전 KTV 방송기획관은 서류심사에서는 최하위였지만 면접 몰표로 뒤집어 채용됐고 행사 직후에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결국 무관중 주장은 명백한 허위였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KTV가 권력자 부부만을 위한 전용 공연장으로 전락했고 최하위 서류점수 인사가 면접 몰표로 역전 채용된 뒤 대통령실로 직행한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내란 선전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 KTV에서 17년간 자막을 맡아 온 담당자는 ‘위법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발언을 자막으로 송출했습니다. 그러자 KTV 측은 ‘정부 입장만 내보내라. 국회 내용, 탄핵소추안은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담당자는 뉴스의 핵심을 지우라는 부당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채용공고에 다시 지원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해고된 것입니다. 현정 유린의 순간에 KTV는 사실 보도 대신에 정권 옹호 방송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양심적 직원을 보복 해고한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현정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공영방송이 정부 선전 도구로 전락

했습니다. 사실 보도를 거부하고 정권 입맛대로 뉴스를 검열·조작하라는 지시는 명백한 내란 방조 행위입니다. KTV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한 사례들만 봐도 지난 정부 시절 KTV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공영방송의 원칙에서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해명은 거짓이었고 법정에서 패소했으며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직무대행께서 재임하는 동안에 이런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왜곡된 조직 문화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KTV를 되돌려 놓는 것이 직무대행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제가 직무대행을 발언대로 나오라고 해 놓고 지금 일문일답을 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요한 사실을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직무대행으로서 또 KTV의 구성원의 한 사람이었던 당사자로서 지금 본 위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저희 조직 구성원 전체가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전 정부 정책 홍보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는 상태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새겨서 앞으로 KTV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역사의 귀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 당시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큰 소리로 말씀할 때 이은우 전 원장이 그 자리에서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무시했던 그 장면을 저는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KTV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청와대 대변인과 수석 시절에 KTV에 단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신미경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님 저쪽 창쪽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신미경 원장님, 원장님께서 2024년 5월에 임명되셨지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김재원 위원 경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 전문위원, 새누리당 여성국장, 민주통합당 홍보국 부장 등 정치권 경력이 대부분이라 도박중독 예방이나 치유 관련 전문 자격이나 임상경력이 없습니다. 기관의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데요.

다음 PPT 보시지요.

치유원은 지역센터를 통해서 도박중독을 상담하고 사설 기관에 위탁해서 상담 서비스 제공하지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김재원 위원 상당 기간 선정 과정에 1차 서류 탈락했던 기관이 불과 몇 달 뒤에는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고 최종 선정된 사례가 있고 그 외에도 고득점으로 선정된 기관

들이 여럿 있습니다. 확인 결과 이 기관 대표는 치유원 출신이었습니다. 제 식구 챙기기지요. 이해충돌이 아닙니까?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저희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 직원이 그런 기관을 응모할 경우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전원 교체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아니요, 내부 규정 보니까 지방센터만 이해충돌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건데, 아셨어요?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도개선 중에는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제대로 고쳤어야지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원장으로 취임하고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고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고치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이 기관 동일 기관입니까, 다른 기관입니까?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지금……

○ **김재원 위원** 사감위원장님, 여쭙겠습니다. 이 기관 동일 기관으로 보이십니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동일 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2025년 4월 8일 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모니터링 대상 사업 적발된 건 있지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 **김재원 위원** 문제 기관이 송파구에 위치한 상담 센터인데 이 기관 2024년 상담비용 교부받았는데 4월 2일 날 사업장 주소지와 대표자 변경 건을 요청을 했고 치유원은 별도 실질심사 없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법인에서 개인 사업자로 바뀌었고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명, 대표자, 주소 모두가 변경되어서 사업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치유원에서는 해당 기관은 기존 기관과 동일한 기관이다 이렇게 간주해서 사업 위탁을 지속했어요.

PPT 다음 거 보시지요.

치유원이 의뢰한 법률 검토보고서에서 조차도 ‘해당 기관은 동일 기관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변경 승인 과정에서 사업자 동일성 심사 거쳤습니까?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저희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내부…… 이용하는 이용자 편의 제공을 하는 측면에서 변경했고요.

○ **김재원 위원** 이용자 편의가 문제가 아니라 대표자, 사업자명이 모두 바뀌었는데 이 사업자를 어떻게 동일 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PPT 다음 거 보시지요.

사감위원장님, 사감위 똑같습니다. 치유원에 부정수급 통보만 해 두고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도 안 했잖아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한 거 아닙니까? ‘부정수급 아님’이라는 조치는 치유원에서 법률자문 제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사감위도 이 분야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 같은 치유 전문 부서로 그냥 사업 이관하시지요? 하시겠어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

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규정을 제정을 해서 앞으로……

○김재원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감위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통보 사안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전관예우 상담소 전수조사하시고 사업 이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한예종 총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한예종 총장님, 이번에 직선제로 당선되셨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학과장이나 단대학장 선임할 때 해당 학과 교수님들도 이렇게 선출을, 직접선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교수님들로 맞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저희 규정상 총장은요 학교 구성원에 의해서 직선제로 되고요. 그리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김재원 위원 잠시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원 위원 24년 8월 8일 아침 10시에 전통예술원 원장도 그렇게 투표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정 모 교수님이 1위였는데요 지금 전통원장은 성기숙 원장입니다. 성기숙 원장 2위였는데 왜 차점자가 원장이 되었습니까? 알고 계신 사항 있으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김재원 위원 잘 모르시지요, 취임 전이라?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당시에 김대진 총장이 교수 정원이 많은 과들이 원장을 해 왔으니까 소수 인원 학과에서도 해야 된다 하면서 차점자인 성기숙 위원을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원장 임명은요 엄연히 대학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을 내정해 놓고 특정 후보만 올려서 대학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시켰습니다. 총장 사조직입니까, 인사위가? 이럴 거면 원내에서 투표 왜 합니까?

다음 PPT 보시지요.

임명 과정도 문제지만 과거로부터 여러 논란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 성기숙 원장이. 2005년 당시 언론 통해서 자기 표절과 중복 게재에 대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동일 비평론을 여러 학술지에 반복 게재를 했어요.

2020년에 보면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있는데 당시에 논문 표절률이 16%입니다. 교수 논문 표절률이 16%가 말이 돼요? 원장이 아니라 교수 자격 있습니까?

다음 PPT 보시지요.

사업보조금 유용 논란도 있습니다. 2014년에 홍성군 한성준 전통무용제전 보조금사업 정산 당시에 보조금 4억 중에 약 2억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지출 증빙자료를 못 내서 홍성군으로부터 수차례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문제된 항목들이 식사 중 주류, 개인차량 주유, 개인용품 구입, 직원 외 카드 사용, 영수증 미제출 등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PPT 보시면, 보조금 교부받은 사업자 명의와 다른 단체 명의로 책을 발간해서

출판기념회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환수 조치도 당했습니다.

총장님, 한예종은 투표 결과도 부정하고 문제 투성이 인사를 원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학교입니까?

○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그렇지 않습니다.

○ **김재원 위원** 아니지요? 다른 곳도 아니고 교육기관인데.

○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맞습니다.

○ **김재원 위원** 성기숙 원장의 연구윤리 위반 실태부터 개인·단체 활동 등 법령 위반 행위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다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세원 원장님, 지난 25년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일본 도쿄 출장 갔다 오셨지요? 임기 종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정감사 준비 기간인데 굳이 왜 출장을 가셨습니까?

어디 계세요?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 **김재원 위원** 나오십시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그 행사는.....

○ **김재원 위원** 꼭 가셔야 했어요, 이거?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연초부터 기획이 된 것입니다.

○ **김재원 위원** PPT 주시지요.

출장 일정표 보면은 1박 2일 일정인데 총 650만 원 예산 들어갔습니다. 실제 일정은 도쿄예술위원회 간담회 2시간, 일본문화정책학회 세미나 2시간, 단 4시간인데 애시당초 이 일정의 원안이 본부장과 연구원이 일본문화정책학회 관계자들과 7월 말 계획한 공동 세미나 일정이 전부였는데 원장이 간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일정을 만든 겁니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김재원 위원** PPT 다음 거 보시지요.

연구원은 8월 중순부터 도쿄예술위원회와 일본 문화청에 일정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본 문화청으로부터 격에 맞지 않는다고 퇴짜까지 맞았습니다. 이게 필요한 출장이라고요? 개인을 위해서 얹지 일정 만들다가 관광연구원이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사안인네요.

다음 PPT 보시지요.

10월 2일에 입국하셨어요? 아니지요?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저는 10월 3일 개천절에 입국했습니다.

○ **김재원 위원** 10월 3일에 입국하셨지요. 하루 더 뭐 하셨어요, 출장 일정 2일까지인데?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제가 휴가를 냈습니다.

○ **김재원 위원** 개인 일정 보러 가는 김에 안 가도 되는 해외출장 만들어서 같이 붙인 거 아닙니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전혀 아닙니다.

○ **김재원 위원** 이번 경우처럼 출장 종료일 이후에 개인 일정이 붙고 공적 경비와 사적

체류가 뒤섞이면 감사원에서도 반복해서 지적해 온 여비 부당집행 유형에 정확히 해당해요. 기관장이기 때문에 특혜성으로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혜성으로 갔더라면 왜 1박 2일을 갑니까?

○**김재원 위원** 어째서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반복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사안들을 지적해 오고 있다고요. 전임 원장 임기 중에 해외출장이 총 4회인데, 8번 가셨잖아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전임 원장은 코로나 시기였고요. 제가 여덟 번 간 거는 관광이라든가 그 행사에 마침……

○**김재원 위원** 일본만 세 번 가셨잖아요. 일본을 선호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JTBF라고 하는 일본교통공사 재단과 저희는 MOU를 체결……

○**김재원 위원** 윤석열 캠프 출신에다가 전문성 부족하고 김건희 라인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 중심에 계신 분이, 대선캠프 출신이자 낙하산 인사로 대표적으로 소문나 있는 분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재원 위원** 다른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걸 다 코드인사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임기 안 남은 거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철저히 반성하시면서 국민한테 사과하시고 적어도 문광연 임직원들한테 사과하시고 물러나십시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저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없고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국가와 민족 앞에서, 전혀 그런 일이 없고 김건희 여사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마음대로 김건희 여사와의 라인을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김재원 위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100명 아니라 1만 명이 그렇게 해도 사실이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비전문가라고 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제가 논문을 쓴 게 박사 논문 까지 12편이고 그 사이에 낸 책이 9권입니다.

○**김재원 위원** 됐고요. 그래서 원장 노릇 하시면서 그렇게 국가의 비용을 가지고, 국민 세금 가지고 그렇게 잘 다니셨습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내지 않았습니다.

○**김재원 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태도가 매우 불량합니다. 위원장님, 증인 태도 좀 지적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교홍** 정리해 주시지요. 정리해 주십시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저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갑의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양문석 위원** 자료 요청하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교홍** 예.

○ **양문석 위원** 아까 박수현 위원이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 윤두현 대표가 개인 동의를 받고 그 명단을 내겠다고 하는데 첫 번째, 임원 추천 위원을 하는 것 자체가 공적인 일이고 그러면 그 공적인 일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심사비가 나가고 거기에 따른 공개가 의무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법적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심사비가 얼마 나갔는지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내·외부 심사위원이 있었을 텐데 내부 위원 명단도 뭉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동의와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추천 위원 모두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추천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누구인지 실무 담당자부터 결재 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KTV는 최재혁 채용 관련 모든 서류를 오늘 오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 **위원장 김교홍**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기관증인들 여기 나와 계신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걸 바로 맞받아쳐서 부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본인과 상황이나 얘기가 다르면, 내용이 다르면 그때 가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이건 무슨 이 국감장이 언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는 위원님 개인이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국민이 여러분들께 질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엄중하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양문석 위원** KTV 대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수현 위원께서 KTV가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리고 답하기를 ‘KTV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이 문제를 계속해서 따지는 거는 어떤 정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는 공무원들이나 준공무원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뿌리를 통째로 뽑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별백계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재명 정부라고 혹여 불법 명령을 하면 그것 따를 거예요?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정권도 불법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KTV 직원들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사기 저하 운운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KTV의 현재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라고 먼저 지적을 합니다.

KTV의 대표적인 사건들이, 그동안 KTV는 공연 제작을 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청와대 황제관람부터 시작해서 소록도 작은 음악회, 각각 한 1억에 가까운 돈들, 합쳐서 2억에 가까운 돈들로 제작비를 투여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양문석 위원** 그랬었을 때 김건희의 청와대 황제관람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문제 많습니다.

○**양문석 위원** 문제가 많으면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비서관을 했던 황성운 현재 문화체육부 기조실장, 유병채 문화체육부 소통실장, 당시 KTV 원장 하종대, 당시 대통령실 홍보비서관 최재혁, 현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인 당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정용석 등에 대해서 고소해야 되겠지요? 법적으로 조치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많았는데? 그렇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지금 문제부 감사……

○**양문석 위원** 문제부 감사하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고 그리고 충분히 드러났고 그러면 KTV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명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KTV가 먼저 선제 조치하고 그리고 감사는 감사대로 하는 거고. 즉 법적 조치와 행정적 조치를, 형사적 조치와 행정적 조치를 좀 구분해서 갑시다. 고소·고발을 하셔야 됩니다.

고소·고발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고소·고발에 대해 관계되는……

○**양문석 위원** 하셔야 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상황을 내부 검토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두 번째, 소록도 이거 전형적인 김건희 작품이지요. 그리고 예산상 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쪼개기 의혹이 있는 거 아시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라인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나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소록도 공연은 지금 현재 문제……

○**양문석 위원**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소록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소록도 공연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과정들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에요. 결재 라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있어야 되고요 관련 서류 바로 오늘 오전 회의 끝날 때까지 제출하십시오.

세 번째, 이은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KTV가 국회, 대한변협, 정치인 등이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발언을 자막으로 송출하고 있는데 갑자기 삭제 지시를 해요, 자막 삭제 지시를.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은우가 왜 삭제 지시를 했는지, 이은우의 삭제 지시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뿐만 아니고 이은우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삭제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겠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그 조사는 문제부 감사실 감사에서 징계처분 요구

가 있었고……

○**양문석 위원** 아니, 징계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적 조치와 형사적 조치,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적 조치에 대한 부분은 문체부가 하겠고 형사적 조치는 KTV가 해야 되잖아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내란……

○**양문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형적인 계엄 동조, 내란 동조 행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KTV가 형사고발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내란특검에 고발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 조사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 또 직접 고소·고발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또 하나 물어봅시다.

뉴스토마토, 시사IN, 오마이뉴스에 대한 영상제공 중단을 한 적 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저작권법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하여간 불기소 처분과 고소 취하를 하고 화해권고를 받은 상태고……

○**양문석 위원** 아니,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저희 국가기관으로서 국민들께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나쁜 전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나쁜 전례가 아니고요.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위배가 안 돼요. 그리고 KTV 영상은 국민 누구나 KTV로부터 허가 안 받아도 사용할 수 있는 공적인 영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 남발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리고 다 깨졌어요. 건진사이다 불기소처분, 가수 백자TV 고소 취하, 뉴스토마토·오마이뉴스·시사IN 영상제공 재개. 다 그랬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KTV가 법적 비용, 변호사비 얼마 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뉴스토마토 관련해서 1100만 원이 소요됐고요. 그 다음에……

○**양문석 위원** 정확하게 1375만 원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 어디서, 어떤 명목으로 지불했는지 그와 관련된 자료 다 내세요. 그리고 뉴스토마토 그다음에 오마이뉴스, 시사IN, 건진, 가수 백자TV 고소·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재 라인들이 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들이 우리 의원실하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계속했던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명백하고 분명한 서류제출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조사도 하세요.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또다시 재발됩니다. 명확하게 이러한, 사실상 반란 행위에 동조하거나 그다음에 불법행위에 동조했던 이러한 공무원들, 준공무원들의 행위가 지속적으

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TV에서 그 많은 일들을 사고 치면서 거짓말하고 들키면 하나 인정하고 들키면 또 하나 인정하면서 위증의, 위증의, 위증을 계속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대표들이 비호하거나 스스로 범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호하거나 범행을 저질렀던 그 범행 과정에 있어서의 실무자들의 역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부역했던 행위, 이것들을 밝혀내지 않으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KTV가 바로 잡을 수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후에 새로운 KTV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맞습니다.

○ **양문석 위원** 이 모든 데 대해서 서류제출을 오늘 오전 중에 해 주시고 우리가 점심 시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연욱 위원**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님, 먼저 단독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미국 로또 등 해외 복권 국내 구매 불법이지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불법입니다.

○ **정연욱 위원** 23년 10월에 대법원이 그랬습니다. 형법 제248조를 적용해서 소비자들의 돈을 받아서 수수료만 받고 미국 복권을 샀다 하더라도 국내법을 통해 허가받은 복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은 불법이다라며 형사처벌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법률은 복권 발매, 복권 중개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성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해외 복권 구매’ 이렇게 검색하면 검색 사이트에 버젓이 이런 광고가, 인터넷이나 SNS 보면 ‘미국 복권 합법이다’, ‘정부가 허용한 글로벌 복권이다’, ‘사이트가 안전하다’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글들이 최근에도 이렇게 난립하고 아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보십니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 **정연욱 위원** 관련해서 또 PPT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복권 관련해서 이런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예 관련되는 사례나 아니면 40대 직장인 A씨가 소액 복권 당첨이라는 화면을 제공받으니까 ‘당첨금 세금 처리해라. 200만 원 달라……’, 250만 원 날렸다고 합니다. 환급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 사례가 속출하니까 최근 아예 로펌들의 수익 사업이 됐습니다. 이런 피해 대처 절차들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게 적발돼도 사업장 주소, 대표만 또 옮기고 바꾸면 됩니다. 다시 개설해서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인 것 같아요. 회사 대표만 바꿔고 주소만 바꿨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감위 대응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외 복권 구매대행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위원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감시 관리자가 모호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시할 경우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아마 복권은 결국 사행산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관련 법률에 의해서 허가되지 않은 복권이라면 불법 사행산업으로 규정되어야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위법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사행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행위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떻습니까?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폐쇄, 관련 법률에 따라서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감시를 해서 차단을 의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방심위에 저희들……

○정연욱 위원 사감위가 이제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업무 기관으로 사이트 적발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찰청에 대한 수사 의뢰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이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 차단 심의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PPT 한번 보시지요.

2020년부터 해서 24년까지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현황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숫자만 봐도 계속 급증하는 거지요. 신고 접수와 자체 감시 합계가 22년에서 23년 동안에 40% 이상 증가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접속차단 건수도 여전히 증가 추세입니다. 아마 올해도 접계를 하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체종결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체종결 원인이 대개 보면 사이트 폐쇄 및 접속 불가인데 전문가들은 불법도박 사이트 적발 시 사이트 폐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다음 PPT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심위에다가 이런 부분에서 심의 의뢰를 하지요. 원래 아래 가지고 공무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전체를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번……

사감위에서 이렇게 방심위에 차단 심의한 건수는 심의 요청을 하면 2~3일 안에 접수는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방심위의 23년, 24년 심의 평균 일수는 139일입니다. 무려 석 달이 넘게, 넉 달이 넘게 이렇게 되면 그사이에 또 무수한 피해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 기간 동안 작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자는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방심위 결과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 전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없

는 건지, 그러면 결국 방심위와 협의를 해서 서면이나 전자심의로 이 기간 자체를…… 기존의 피해 사례를 계속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관리 사각지대에 계속 놔두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방안이 안 나온다면 불법 사행 행위 자체로 인해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부처 대응단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시, 적발, 수사 차단의 효율적인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불법 도박 조장하고, 사감위가 뭔가를 해소하고 건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불법 사행 행위 자체를 방치하고 방조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으로 그쳐서 어떻게, 국감은 1년 만에 1번씩 여는 이 행사 때마다 단골 메뉴, 이런 질의사항에만 올라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대책이나 뭔가 근본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일단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 의뢰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139일 걸렸는데 금년에는 한 50일 정도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속 심의랄지 이런 것을 요청하고 업무 협의도 함으로써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방심위 구성 자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대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시급히 통과될 필요가 있고 또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이 해외복권 구매대행 불법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같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 감시시스템도 계속해서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감시를 해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제도개선이 랄지 그다음에 감시 역량을 총 동원해서 국민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연욱 위원 관련 입법이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한테 조속히 얘기해 주시고, 오늘 국감을 마치기 전까지 이런 대응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 병의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경기도 일산 이기현입니다.

김효재 이사장님, 가짜뉴스 보도하는 매체에 정부광고 집행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아니지요? 가짜뉴스 반대하고 계시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

다. 동의하십니까?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이기현 위원**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 **이기현 위원** 이것을 사실로 주장하는 매체에 언론진흥재단에서 정부광고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그러니까 정부광고의 광고주와 매체와의 관계……

○ **이기현 위원** 언론진흥재단은 아무 역할이 없어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희들은 중간에 중개할 뿐입니다.

○ **이기현 위원** 제가 이따 정관 보고 말씀드릴게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 **이기현 위원** 스카이데일리가 23년과 24년에 239건의 5·18 관련돼서 허위, 왜곡 그리고 폄훼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실까요?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군 침투설이 147건입니다. 약 2년 동안에 보도됐던 내용 중에 보면 5·18은 남한 내부 일부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으로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한다. 그리고 5·18 시민군의 작전은 북한 특수부대 전술과 판박이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폭동설 관련해서는 50건 정도의 보도가 있습니다. 탈취한 군용차와 다이너마이트로 광주를 해방구로 만드는 내란급 시위다. 임신부 최미애 씨가 군인이 아닌 무장 괴한들에게 피살된 정황이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유공자도 폄훼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세력 확장을 위해 5·18 유공자 수를 해마다 늘려 왔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기타에 보면 한강에 노벨문학상을 준 것은 5·18 정신을 현법화하려는 종북들이 짜고 만든 작전이다.

이런 것들을 기사로 해서 200여 건의 기사가 단 2년 동안 나간 매체입니다.

이 매체에 정부광고가 지원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 **이기현 위원** 심지어 스카이데일리가 공로 감사패를 받은 언론진흥재단이 위치하고 있는 그 건물 20층에서 벌어진 행사에 언론진흥재단은 잘하는 행사라고 3000만 원 지원까지 합니다. 알고 계세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행사 지원은 스카이데일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 **이기현 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카이에 대한 광고집행 요청은 재단 모두가 그대로 집행했어요, 5년 동안. 정부광고법상 홍보매체 선정은 정부기관들의 의견을 우선하지만 주체는 명백히 문체부장관이고요.

문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한 재단은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매체가 홍보매체로 선정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 안 하셨지요? 그냥 중개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금 계속?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역할에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은 기관이 요청하면 매체에 관련된 참고자료, 매체의 발행 부수 또 제재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돼 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스카이데일리처럼 광주 5·18을 북한군의 개입에 의해서 진행된 사건인 양 이렇게 왜곡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의 참고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 언론사들에. 맞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기현 위원** 언론진흥재단이 왜 언론진흥재단입니까? 예전에 독재에 맞서서 언론이 자기 역할 못 하고 독립성이 훼손됐을 때 그것을 막아 내고 또 언론의 건전한 재정과 그리고 언론의 보도 독립을 위해서 언론진흥재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진흥재단이 전혀 그 역할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수수료 따먹기 조직처럼 언론진흥재단이 가짜 언론진흥재단이 돼 버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 ‘이렇게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개입 할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언론진흥재단이 20년부터 25년까지 약 5년 동안 각 단체에 후원한 내역들, 장소에 관련돼서 후원하고 예산을 지원한 내역들을 제가 달라고 했더니 불과 5건, 6건, 7, 8건입니다, 5년 동안. 8건 중에 계엄 이전에 5건이 집행됐는데 그게 23년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 오시고 나서 23년부터 내란 사건이 있었던 그 직전까지 5건이 집행됩니다.

그 집행됐던 단체들 한번 불러 드릴까요? 자유언론국민연합 3건, 공정미디어연대 2건 이렇습니다.

내용은 가짜뉴스 근절 범국민 캠페인, 총선 불공정 방송 팩트체크 백서 발간, 대한민국 선거와 가짜뉴스 백서, 대충 이런 내용들입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방송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선거는, 국민의힘이 진 선거는 전부 다 가짜뉴스,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야당에 유리하거나 국민들 일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권에 불리하면 다 가짜뉴스로 치부했던 이 사건들을 모아 놓고 언론진흥재단이 이 5건의 후원비 지출을 23년, 24년에 이사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진행한 거예요. 이때 이사장님 3000만 원 지원하셨어요, 이 단일 행사 하나.

이 행사에, 어떤 행사인지 아십니까? 20층에 있는 그 행사장, 100명밖에 못 들어가는 그 행사장에,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그 당시에 야당을 공격했던 인사들 그다음에 가짜뉴스라고 폄하했던 인사들 100명 모인 행사에 3000만 원 지원하셨어요.

어떻게 쓰셨는지 보고나 받으셨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사장님, 언론진흥재단의 그러한 태도 때문에 저는 내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진흥재단이 가짜뉴스로 확산하는 일에 앞장서셨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한테 정부광고 지원하는 데 일체의 필터 역할도 못 하셨고 그런 단체들이 시상하고 그런 자들이 뛰어노는 곳에 공간 제공하고 그리고 언론진홍재단이 3년 동안, 불과 2년 동안 5건 지원한 예산에 대부분을 여기에다 쏟아부으셨어요. 이러니 그 단체들이 오해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애국하는 일이고 언론진홍재단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활개 치면서 가짜뉴스 뿌리고 다닌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언론진홍재단이사장 김효재** 저희들이 하는 일에 일부 잘못이 있다는 위원님 지적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상이 하는 일이 모두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언론진홍재단의 태도 때문에 내란이 일어났다거나 계엄이 일어났다거나 하는 그런 연결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현 위원** 언론진홍재단이 가짜뉴스를 막으려고 노력했으면, 제가 작년 국감 때 이 사장님께 말씀드렸지요?

○**한국언론진홍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이기현 위원** 가짜뉴스신고센터 그 재단의 역할도 아닌데 거기마다 직원들을 배치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그게 합법하냐 하니까 결국 나중에 폐쇄하셨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한국언론진홍재단이사장 김효재**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부정선거입니까? 이번 대선 부정선거였어요?

○**한국언론진홍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닙니다.

○**이기현 위원** 아니지요?

○**한국언론진홍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이기현 위원**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습니까?

○**한국언론진홍재단이사장 김효재** 제가 부정선거냐 아니냐는 것을 판정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이기현 위원** 그런 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사에 언론진홍재단이 후원했습니다. 2년 동안 5건밖에 안 되는 후원 행사에 그 단체들 다 후원하고 감사패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정부광고 집행하는 데 일체의 필터 역할도 못 했어요. 뭘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언론진홍재단이 가짜뉴스를 진홍하는 재단이 돼 버렸어요. 국민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언론진홍재단이사장 김효재**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사장님, 언론인으로서 50년 가까이 살아오셨어요. 뒤에 계신 본부장님도 JTBC에서 중앙일보에서 연합뉴스에서 언론 간부로서 활동해 오셨습니다.

후배 언론인들에게 언론인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질책하셨어야 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와서 국감 받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교홍** 김효재 이사장님, 아까 말씀 중에 언론진홍재단이 정부광고를 어찌 됐든 위탁받아서 하는데 역할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한국언론진홍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습니다. 광고주를 선정하는 것은 언론진홍재단이

아니고 광고주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광고주인데 이러이러한 언론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충분히 언론재단은 할 수 있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광고 간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위원장 김교홍 사실이 아닌 것을 하는 것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아니, 그 조직이……

○위원장 김교홍 언론진흥재단의 역할이 뭐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자료는 늘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제공하는데 거기다가 정부광고를 합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 김교홍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주로 제가……

○위원장 김교홍 아니, 이사장님,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이사장님은 한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이러한 언론사라는 것을 정보를 제공하는데 지자체나 정부 쪽에서 광고를 게재해요? 그것 정확한 말씀이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요, 저희들은 그 언론……

○위원장 김교홍 예를 들면 인천시에서 스카이데일리에 정부광고를 줬는데 이 스카이데일리가 정부광고 받는 액수의 3분의 2를 인천시에서 줬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정보 제공을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무슨 정보 제공을 해 줬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모두 공개되는 정보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러니까 기사를 잘못, 팩트가 아닌 것을 쓴 것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그러니까 이 기사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평가를……

○위원장 김교홍 아니,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정보 제공을 해 줘야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사실이냐, 아니냐는……

○위원장 김교홍 아니, 선거관리위원회에 중국 간첩 99명이 들어가 침투했다, 이것을 미군부대에서 잡았다. 이게 사실입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런 뉴스를 믿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정보 제공을 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게 사실이냐는 것을 인천시로부터 문의를 받지 않았고요. 저희들은 그 당시에……

○위원장 김교홍 아니, 제가 얘기 안 하려다가 한 게 지금 이사장님의 정부에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언급한 거예요. 정보 제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말씀을 거짓말을 하세요?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 아니,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제공하라는 정보는 모두 공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이사장님이 법을 논할 그건 아니잖아요!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 예?

○ **임오경 위원** 법을 논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서. 법을 제대로 지켰어요?

○ **위원장 김교홍** 나중에 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기현 위원** 참고자료 제출 안 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참고자료 안 내셨다 그래 놓고 또 냈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 **위원장 김교홍** 조용히 해 주십시오.

○ **임오경 위원** 규정, 원칙 다 무시하신 분이 무슨 법을 논하시고 계십니까?

○ **조은희 위원** 한 분씩 질의하세요. 지금 다들 왜 그러세요?

○ **민형배 위원**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악쓰는 거예요.

○ **조은희 위원** 예?

○ **민형배 위원** 악쓰는 거라고, 지금.

○ **위원장 김교홍** 조용히 해 주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 **조은희 위원** 한 분씩 질의를 하셔야지 왜……

○ **민형배 위원** 질의한 것 아니에요.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 **조은희 위원** 예?

○ **위원장 김교홍** 진종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 **민형배 위원** 그렇게 따지면 마찬가지라고요.

○ **조은희 위원** 뭘 마찬가지예요?

○ **민형배 위원** 지금 질의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발언하시고 있잖아요.

○ **조은희 위원** 계속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니까요.

○ **임오경 위원** 질의한 것 아닙니다.

○ **위원장 김교홍** 진종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 **민형배 위원** 화가 안 나세요, 보고 있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좀 하는 건데 뭘 그것 가지고 시비를 하세요?

○ **조은희 위원** 그걸 시비라고 그라세요?

○ **민형배 위원** 지금 시비하셨잖아요.

○ **조은희 위원** 왜 이렇게 과하십니까?

○ **민형배 위원** 지금 가짜뉴스하고 내란 얘기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교홍** 자, 자, 자, 조용히 하시고.

진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세요.

○진종오 위원 갑자기 막히네요. 그리고 화나면 우리도 얘기해도 됩니까, 상대방 질의 할 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교홍 예, 그래요.

○민형배 위원 상대방 질의할 때요? 누가 상대방 질의할 때 뭐라 했어요?

○진종오 위원 화가 나면 얘기해도 된다라는 얘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민형배 위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임오경 위원 상대방 질의할 때 말한 것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의 과정에서 저희가 말한 거니까……

○위원장 김교홍 자, 이제 조용하시고요.

○민형배 위원 진종오 위원님, 지금……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얘기하는데……

○임오경 위원 이것 가지고 언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은희 위원 민형배 위원이 얘기하시면 옳고 우리가 얘기하면 아닙니까?

○민형배 위원 먼저 하셨어요, 먼저.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고 먼저 하신 거라고요.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옆에 있는 위원들이 화가 나면 얘기해도 된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지금?

○임오경 위원 위원님들 질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조은희 위원 서로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자, 자, 자, 조용히 하세요.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오 위원 심오택 위원장님, 영상 좀 보실게요.

(영상자료 상영)

여기 어디로 보이십니까, 위원장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지금 인형뽑기 게임 아닙니까?

○진종오 위원 뽑기방이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진종오 위원 최근에 좀 돌아다니다 보면, 변화된 곳 보면 인형뽑기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혹시 보셨습니까. 집 주변에 많이들 생겼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저는 직접 경험한 바는 없습니다.

○진종오 위원 경험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 확인해 보셨지 여쭤보는 겁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진종오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2년간 한 20% 이상 상승이, 업체가 많이 늘어났고요. 전국에 5900여 개가 넘습니다. 현장 실태조사에서도 게임뽑기방이 기계 조작을 설정해서 편법 운영이라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뽑기방의 관리 소관은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인형뽑기는 청소년 제공 게임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지금 주무부처는 문체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문체부랑 지자체도 있고 사감위는 없는 거지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 진종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단순한 뽑기방이 아니라 이 인형뽑기를 보면 소액 그리고 빈번함 그리고 확률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사행성의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현금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결제가, 무제한 결제가 가능해졌고 심지어 '뽑파민'이라는 중독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신미경 원장님, 최근에 가정 통신문을 교육청을 통해서 전부 배포했지요?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 진종오 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저희가 청소년 도박 문제의 경각심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인기가 있는 인형뽑기, 그런 사행성 요소에 대해서 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정보 제공 차원에서 보냈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래서 인형뽑기 중독 주의라는 가정 통신문을 교육청에다 배포하신 것 맞으시지요?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그렇습니다.

○ 진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감위가 실태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 진종오 위원 관련 소관이 아니어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아닙니다. 이게 현재 게임업으로 분류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행성 게임물로 해 가지고 불법 사행산업이라면 저희들이 감시하고 또 차단 조치하거나 또 수사 의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종오 위원 이게 해외 사례도 보면 일본·미국·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중국은 기계 확률을 의무화시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품 가치 기준으로 도박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커지고 있고 이 정도는, 이것은 충분히 도박의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누구나 생각했을 때 돈 1만 원 정도는 쓸 수 있다, 그리고 한 번쯤 해 보고 싶다, 그리고 기계 조작으로 공정하지 못한 점, 그리고 제한이 없이 손쉽게 결제를 유도하는 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지금 게임 주무부처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랄지 관리감독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지만 사행성 문제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감위에서 불법 산업으로 분류를 하거나 규제를 하는 경우 저런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사감에서 하는 불법 사행 행위는 형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젊은 학생들이 만약에 그걸 상습적으로 또 불법 사행 행위를 했다 하면 형사적인 범죄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 형사적으로 가자라는 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소비를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고 청소년들이 단지 그냥 인형뽑기라는, 뽑기방이라는 것 때문에 무분별하게 과소비를, 소비를 만들어 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도박 중독성으로도 이어 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사감위의 역할을 따지는 겁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그래서 저희들 사감위 산하에 아까 말씀하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도 있습니다만 예방치유원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사행성이 충분히 있고 우려가 되니까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나 학생 자신들이 이걸 좀 유의를 하고 이것은 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나 지도 감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의, 현재 지도 감독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만큼 사감위에서 좀 신경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위원장 훌덤펍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게 보면, 제가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훌덤펍이 어떻게 보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 훌덤펍 내에서 불법 도박 단속하고 적발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소관이라면서 사감위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맞으시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아닙니다.

○진종오 위원 아니시라고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훌덤펍에 대해서는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저희들 사감위 내에서도 전담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진종오 위원 그러면 전담반이 하는 역할은 뭐니까, 위원장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감시하는 겁니다.

○진종오 위원 감시만 하잖아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저희들 사감위는 원래 법에 불법에 대해서는 감시 역할……

○진종오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도박을 감시만 하고 단속은 그러면 아예 그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위원장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린다 하면 사감위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불완전합니다. 감시만 해 가지고 수사를 의뢰하는데 신속한 조치가 지금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감시 이상의 권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그렇지요. 최소한도 감시, 차단이랄지 아까 말하는 온라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감시 플러스 차단. 그렇지 않고 이런 불법적인 현장이랄지 이런 것은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주어져야 실효성 있는 어떤 단속이랄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종오 위원 오후에 그러면 추가로 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내용이 약간 더 심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의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관광공사 직무대행님, 임기가 끝났는데 2000만 원짜리 해외출장을 가는 이게 말이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아가라로 가셨네요. 김영창 상임감사가 갔지요? 이것 명백한 업무출장이 아니라 외유성 출장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세계감사인대회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아마 있었던 대회로 알고 있고요. 제가 상임감사에 대해서……

○**조계원 위원** 그 감사인대회에 그동안은 해당 팀장이나 팀원들이 갔는데 왜 갑자기 상임감사가 갔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최근에는 그랬기는 한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이 아가라는 안 자신 걸로 알고 있고요. 상임감사 책임 기간 중에 이번 건이 해외출장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나이아가라 안 갔다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참여하지 않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나이아가라 폭포 방문으로 나오는데요, 출장 일정에도?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그것은 아마 공식 출장일 것이고요. 상임감사께서는 그 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안 자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명백히 확인해 주시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법카 화면 좀.

상임감사가 검찰 수사관 출신이더라고요. 지금 화면 보이시지요? 법카를 어떻게 썼나 봤더니 전부 검찰 수사관들 만나는 데 쓰고 그다음에 상임감사를 만나는 데 쓰고, 직원들이 쓰면 밥카이고 본인이 쓰면…… 이런 개별 친목 일정인데 개인카드로 사용해야 될 것을 법카로 쓴 것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아마 취임 초기에 몇 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취임 초기라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조계원 위원** 이게 늘상 반복된 것 아니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검찰 수사관 출신이 관광공사의 상임감사로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올해 한국관광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유례없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조계원 위원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와 가지고 일하는데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평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말이 안 되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십시오. 그 얘기조차 못 합니까? 지금은 어쨌든 사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잘못됐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조계원 위원 이와 관련해서 아까 나이아가라 출장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또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하고 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어떻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자랑을 하시던데 그것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4년 차 사업인데요. 아직까지도 한 자릿수 사용률에 불과합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공사에서 지역소멸 대응해서 최초로 입안을 해서 기획을 해서 진행한 건인데 22년부터 23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예산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본예산 확보한 것은 지난해고요.

○조계원 위원 알겠고요. 오히려 22년 시범사업에는 발급건수가 13.8%예요. 그런데 23년, 24년 진행되면서 더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그런데 사실 이게……

○조계원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고 참여업체 자체부담이라 그런 것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 발급은 전체 지역을 동일인이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가입자 수 기준으로 하면 사용률이 20%대로 올라가기는 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현장 일선 지자체 공무원도 모르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전개되고 있더라고요.

화면 한번 부탁합니다.

저 화면에 보면 강원 철원군 한탄강 주상절리길 입장료 50% 할인, 충북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체험 20% 할인.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소지하면 이렇게 할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겠지요, 보도자료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철원군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뭐냐? 처음 들어본다고 반문하면서 주상절리길 입장료는 처음부터 50% 할

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아마……

○조계원 위원 계속해서 한번 더 들어가 보지요.

보령시 같은 경우에 대천해수욕장 스파이바이크 체험관광은 보령시청과 시의회에 확인 했더니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보령시는 아마 내부에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당초 계획보다 아마 늦게 서비스를 시작한 걸로……

○조계원 위원 그런데 그걸 허위 보도자료를 내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허위는 아니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주민증 사업은 지자체의 관심이 사실 성패에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지자체별로……

○조계원 위원 제가 보기에도 디지털 주민등록증 사업이 의미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업 자체의 실행이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지자체는 모르고 예산은 제자리결음이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버젓이 자랑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지자체 실무교육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예, 보완해 주시고요. 보완 계획도 세워 주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취약계층이 노인층이 특히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동의합니다.

○조계원 위원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사실 노인층이, 고령층이 관광이나 여행의 가장 수요가 높은 충인데 이 부분이 오히려 디지털에서는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어요. 50대 보십시오. 아까 주민증 사업도 60대나 70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한 자릿수로 다른 단위에 비하면.

다음 화면이요.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게 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조계원 위원 노인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령층들의 관광 수요 어떻게 디지털에서 담보해 내겠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여러 가지 사업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챗봇 서비스도 그렇고 콜센터 운영이나 이런 분들도 필요한 부분인데……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노인들이, 고령층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주민증을 만들어 가야지요. 주민센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쉽게 만들어 주고 어르신들은 제시만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정도의 편의를 제공해 줘야지 이용할 것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더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와 관련된 방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말씀하십시오.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가 의결해서 23일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음악저작권협회 추은열 회장이 바로 직전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의 지금 내부 상황이 꼭 저희 상임위에서 확인해 봐야 될 일들이 있고 추은열 회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증언을 해야 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29일 종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추가 증인 의결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임오경 간사하고 협의하셔서 이따가 질의 어느 정도 마감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그러면 존경하는 손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손솔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김성수 위원장직무대리님 계십니까?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성수 직무대리님,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기사가 있는데요. 두 기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언론중재위원장직무대행 김성수** 제가 화면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솔 위원** 왼쪽에 있는 기사는 시정권고가 된 기사고요. 오른쪽 기사는 시정권고가 되지 않은 기사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중국인 99명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스카이데일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가짜뉴스로 밝혀져서 언중위에서도 시정권고를 하고 선관위에서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과 같은 기사들이 지금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파생 기사거든요. 오른쪽은 권고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언론중재위원장직무대행 김성수 이 기사 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스카이데일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 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스카이데일리에서 시종일관 조정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해 가지고 불성립으로 해 가지고 성립이 안 된 건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곧바로 시정권고위원회를 열여 가기로 거기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시정하고 삼계처하고 리고를 했습니다.

○**손솔 위원** 원쪽은 권고가 됐는데 오른쪽과 같은 파생 기사들은 계속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중국인들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라는 허위, 그리고 계엄과 내란의 이런 명분으로 쓰고 있는 이 허위사실이 계속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1건이 아니라 파생 기사들이 방치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언중위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보여 주시면 이 기사들은 시정권고도 받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기사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국에서 간첩단이 있고 선거연수원에 암약해 왔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몇 건만, 조정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이 가짜뉴스, 부정선거라는 이런 혐의사실을 이용해서 내란과 계엄을 옹호하고 있는 행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론중재위원회장직무대행 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이거 방지해서는 안 됩니다. 방지하면 저는 공범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중재위원회장직무대행 김성수 알겠습니다.

○손솔 위원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이런 허위사실로 계엄과 내란 정당화하는 것은 시정권고에 따르면 심의기준 10조 제2항 보도 윤리 위반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퍼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시정권고 현황을 보면 시정권고는 지금 개인적 법의 침해랑 사회적 법의 침해 이렇게 2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개인적 법의 침해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가장 큰 건인 데요. 이 건은 줄여들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넘겨 주시면 사회적 법의 침해에서 건수가 많은 게 차별금지, 자살 관련 보도 그리고 기사형 광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최근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련해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허위사실 보도가 사회적으로 논란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언론중재위원회장직무대행 김성수 예.

○손솔 위원 시정권고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사회적 법익 침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줄여들지 못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거든요.

중국 혐오를 포함해서 요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언론 기사들에 대해서 어중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장직무대행 김성수 저희들이 지금 위워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시정권

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시정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시정권고로 조치를 부탁했는데도 그렇게 고치지 않고 한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정권고를 거듭거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건 시정권고를 한 내용을 받은 건데 시정권고 조차 안 된 기사들이 지금 많다는 겁니다.

○**언론중재위원장직무대행 김성수** 예, 유념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정권고 조치 대상인 것으로 다시 한번 심리해서……

○**손솔 위원** 관광 문제에서도 중국인 혐오가 대단히 큰 문제지만 언론에서 중국인 혐오와 관련된 잘못된 기사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이게 확대·재생산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거든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언론중재위원장직무대행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손솔 위원** 차별금지 유형에서 시정권고가 많은 게 장애 차별입니다. ‘눈 면 돈’, ‘결정 장애’ 이런 표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인 교육 교재에 이런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교육 내용이. 시정권고는 사후조치지 않습니까?

○**언론중재위원장직무대행 김성수** 그렇습니다.

○**손솔 위원** 그런데 교육 내용에 이런 게 없으니까 예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실효가 지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교육도 보강을 요청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장직무대행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특히……

○**손솔 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장직무대행 김성수** 극단적 선택, 자살 이런 용어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219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계속 하니까 어떻게 그 표현을 바꿨느냐면 ‘숨진 채 발견’ 또는 이렇게 효과가……

○**손솔 위원** 예, 자살 가이드라인은 있으니까요, 보도에. 알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장직무대행 김성수**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유념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독하는 사업 중에 소싸움 있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손솔 위원** 소싸움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문제가 대단히 많은데요. 불법거래가 많고 부적절한 행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PPT 보시면요 발매 투표소 쪽으로 육설, 손님에게 성희롱, 만취 후 용변, 속옷만 입고 활보, 이런 부적절한 행동들이 계속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소싸움 경기장은 어린이들도 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10년간 소싸움 경기 단속을 28번만 나갔습니다. 28번 나갔는데 62건이 적발됩니다. 나갈 때마다 바로바로 잡히는 거거든요.

이러면 그냥 계속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최근 5년간 범위를 줄여 보면 PPT 보시면 복권과 스포츠토토는 7000번 넘게 점검하는 동안 소싸움은 5년간 17

번 점검 나갔어요.

문제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앞으로 점검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나갈 때마다 적발이 되는데 감독 나가는 횟수 자체가 적으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싸움소를 바꿔치기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싸움소를 바꿔치기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이거든요.

제가 청도공영공사에 문의를 했을 때 최근 4년간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소 453마리 중에서도 13%에 달하는 60마리소는 왜 말소되고 취소됐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소 자체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행위, 부적절한 행위, 싸움소 관리, 이 전체가 지금 다 부실한 상황이거든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더 철저하게 조사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동물을 도박에 동원하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인데 관리가 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소싸움을 저는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떻게 책임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앞으로, 지금 현재 소싸움은 전통 소싸움으로 해서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물복지 문제랄지 이런 것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공사에서는 싸움소 부상 예방이랄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꾸준히 이 이슈가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솔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관광공사사장대행님,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관광공사사장 공석인데 얼마 전에 후보자로 특정인이 내정됐다는 소리가 들리는 데 이런 신문 기사 본 적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봤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공사 그러면 현재 사장 인사추천위원회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장관님이 문화권력 실세에서 배제되셨는지 관광공사와 같이 문체부 산하기관 중 가장 중요한 자리의 사장 자리조차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번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는 장관이 이미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

게 잘못된 답변까지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후에서 주요 문화 관계 관련 기관에 대한 인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국감 들어서 가장 핫한 인물이 김현지 부속실장인데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면 진짜 ‘만사현통’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선 자금 관리에서부터 사법 리스크 대응 또 이재명 대통령 범죄 관련 재판 과정에서 상황 관리를 총괄하는 그런 정황들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각종 인사에 개입하는데 문화권력까지 포함돼 있다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관광공사 사장인데 이렇게 지금 김현지 씨가 뒤에서, 뒷배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우종 씨가 관공공사 사장에 내정됐다고 공공연히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의 관계,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우종 씨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적인 사법 리스크, 선거 재판 또 대장동 리스크 여기에 김현지와 이우종 지금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의 여러 가지 관련되는 정황이 재판기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더 PPT를 보시면 특히 이우종 씨는 김문기 씨 아들 회유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사전 지시·사후 보고, 김현지 실장에 대한 사전 지시와 사후 보고를 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9일 날 이우종 씨가 김문기 아들하고 통화한 이후에 즉시 또 김현지 씨한테 전화를 두 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1월 26일 날은 김현지가 이우종한테 전화를 하고 그 이후에 2022년 2월 2일은 또 김문기 씨가 아들을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회유를 합니다.

이게 만남이 있은 직후에 바로 채 몇 분도 안 걸려서 김현지한테 이우종 씨가 전화하는데 무려 8분 39초간 통화를 합니다. 사전 지시와 그에 따른 보고가 아니면 이렇게 장시간 만남에 이어서 바로 전화 통화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월 22일 날에도 또 김현지한테 전화 통화를 한 정황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김현지 씨와 이우종 씨의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재명 측근과의 연계성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1월 26일 날 그날도 이우종 씨가 김문기 아들과 두 차례 통화를 하는데 이때는 이우종 씨가 또 아들과 통화 직후에 김용과 통화를 합니다. 또 그날 김현지는 이우종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어서 2월 22일 날 그때도 이우종 씨가 또 다른 이재명 측근 정진상과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한 이후에 김문기 씨의 아들한테 통화를 하자는 문자 요청을 발송하고 그 뒤에 통화를 한 정황이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또 이우종은 김현지한테 보고를 합니다.

여기의 지금 김현지는 말할 것도 없고 김용과 정진상도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이라 하면 정진상, 김용 정도 돼야 측근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3인방입니다. 지금 관광공사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우종 씨가 이재명의 측근들하고 이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어

느 자리를 달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우종 씨의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는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도부터 원래 이우종 씨는 이해찬 씨가 만든 재단법인 광장에서 정책자문위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합니다. 여기에서 활동하면서 19대 대선 당시에 공개적으로 2017년 이재명 후보 지원을 하면서 대선캠프에 합류했고 대선에 떨어지고 나서도 그다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여러 관계 단체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이때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공로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임명되면서 2018년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때 낙하산 코드인사로 노조에서 또 당내, 그러니까 경기도 내 민주당 의원들조차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고 그 이후에 연임을 하면서 문화의전당이 ‘경기아트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사장을 계속 이어 오고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사장 시절에는 문체비서관으로 지난 10월 10일 임명된 이동연 비서관이 또 비상임이사로 그때부터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상황 관리, 총괄 지휘를 김현지가 했고 그 밑에 김용·정진상이 관여를 했고 이우종은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런 끈끈한 관계와 깊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막후에 문체부장관 역할은 이우종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우종 밑에서 이사까지 했던 이동연 씨는 이미 문체비서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뒤에서 문화 관련된 여러 인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상황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신문의 그런 보도대로 이우종이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고, 이미 이동연 문체비서로 임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장관은 바지 저고리로 실질적인 문화권력 행사는 김현지의 지시하에 이우종과 이동연이가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님, 지금……

1분만 더 주십시오.

거론되고 있는 이우종 씨가 관광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김승수 위원** 경력사항으로 관광과 관련돼서는 일절 경험과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관광공사가 이렇게 경험과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사장이 돼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위원님, 기관장 임명 절차와 관련돼서 아무런 연락을 받은 게 없고 진행 상황도……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관광공사 사장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문제가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관광공사가 어떤 자리입니까? 수백 명의 직원 또 수 개, 여러 개 해외지

사 그리고 약 4000억 가까이 되는 연간 예산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3000명 해외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김승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광공사에서도 그런 의견을 피력해 주셔야 되고. 비전문가가 관광공사에 오는 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 의사,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을의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질의 전에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님, 맨 뒤에서 안 보이시니까 죄송하지만 서영충 대행님 옆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2024년 9월 9일에 임명되셨지요, 지금 보직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예.

○**배현진 위원** 그러면 지난해 국감 저와 같이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알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지난해 제가 관광공사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아주 크게 지적을 했고 뉴스 많이 됐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기억하실 정도로 논란이 됐던 사안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넥스트스텝’이라는 특정 업체가 여성 기업 특혜를 이용해서, 실은 해당 대표는 뺑집을 하는 여성인데 관광공사에서 잠시 단기 일자리를 했던 직원이 아마 관광공사 내부의 누구와 결탁된 그 의혹으로 수의계약을 90건, 2018년부터 2014년까지 26억 원의 일감을 몰아서 받은 의혹을 제가 제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예.

○**배현진 위원** 그리고 해당 업장의 주소지도 엉터리로 기입하고 현장실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허위로 기록한 것을 분명히 제가 사진으로 다 증명을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예.

○**배현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원래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 맡기겠다. 위원회 의결로 하겠다’ 했더니 당시 문체부에서 저에게 요청을 했지요, 문체부 내부 감사로 하겠다고.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예, 기억합니다.

○**배현진 위원** 자체 감사를 하도록 했는데 안 했어요, 끝까지.

어떻게 됐지요, 경과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당시 내부 감사실과 다 상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감사실이 너무 많은 감사가 있어서 일단 일차적으로 문체부 관광정책……

○**배현진 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해라라고 지시하면 해야 되지요, 문체부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런데 문체부가 와서 지금 내부 감사 사안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된다, 외부에 맡기기가. 직접 안에서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감사로 안 하고 지금 사무검사로 그냥 자체적으로 돌려서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일차적으로 하고 지금 늦었습니다만 현재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일차적으로 하고’가 아니라요 제가 사무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관광정책과 이장우 사무관에게 저희가 확인한 게 지금 몇 번인지 아세요? 올해 3월 11일, 8월 11일·12일·14일, 이것만 해도 네 번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예.

○배현진 위원 저희 국감 언제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예.

○배현진 위원 그동안 뭐 했어요? 문체부 뭐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감사실 감사가 늦어져……

○배현진 위원 사무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닥달을 하니까 그때서야 가져왔는데 제가 분명 이 수의계약 건수가 90건이라고 그랬는데 74건이라고 계약 건수조차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려했어요. 다시 해 와라 그랬더니 올해 국감이 도래하니까 부랴부랴 다시 감사를 하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늦었습니다만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서영충 직무대리님, 문체부가 지금 말한 사무감사를 진행하던 그 와중에 이 해당 의혹의 업체에 단기 일자리로 있었던 그 남성이 다른 이름으로 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수의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지금 불법 수의계약 안에 결탁한 커넥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와중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지적하신 이후에 해당되는 넥스트스텝은 공사와 계약이 불가하도록 시스템에 조치를 해 놨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 돼 있는 관계자가……

○배현진 위원 냈지요? 심지어 회사 설립 9일 만에 견적서를 내고 계약을 또 맺어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그래서 담당자는……

○배현진 위원 제가 이 문제는 이따가 따로 길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김정훈 정책국장님, 문체부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되겠습니까? 국민 돈이 눈먼 돈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책임감 느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본인에 대한 특정감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

○**배현진 위원** 종합감사에서 문체부장관에게 본인과 해당 사무관, 엉터리로 사무 검사를 실시한 해당 사무관까지 특정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리고 오늘 뉴스를 통해 나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현장실사가 2002년에 도입해서 이것 다 보고서에 수의계약 시에 필수로 첨부하도록 우리가 강제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실사 보고서.....

○**배현진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문체부에 물어본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관광공사에서 그렇게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2200만 원 초과 수의계약 시 현장실사 보고서 필수로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행님.

이제 들어가시고요.

사진 보여 주세요.

3년간 한 디자인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보고서를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한 것을 봤더니 10여 차례 현장실사 사진이 다 동일한 사진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 드릴게요.

출장 기록을 갔다 온 사진이라고 하면, 지난 3년 동안에 현장실사 보고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2022년 11월 도입 이후에 본 위원이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광공사의 보고서 979건 중에서 출장 기록이 있는 게 단 91건입니다. 그러니까 96 건, 총 95%가 무려 출장 기록 없이 보고된 허위 기록이고요, 허위 보고서이고. 이를 통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고 집행된 예산은 933억 4000만 원입니다. 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총** 저도 의아해서 어떻게 된 배경인지를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실사 보고서는 22년도 국감 당시에 페이퍼 컴퍼니 검증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연간 수백 건에 달하는 계약 건에 대한 전수 현장실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배현진 위원** 현장실사가 불가능하면 기관이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현진 위원** 지금 900억 원의 국민 세금을, 국민 돈을 그냥 어디 나눠 주고 우리가 일자리 손 모자라니까 못 하는 거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총** 아닙니다. 현장실사 보고서는 계약 관련 법이나 규정으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국감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배현진 위원** 국감에서 지적 안 하면 안 합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총** 그게 아니고요.

○**배현진 위원** 출장 기록 허위로 보고한 것 PPT 띄워 주세요.

저희가 관광공사에 현장 출장을 갔다 왔다고 그나마 보고한 것만 3건을 그중 많은 것 중에 추려 봤습니다.

한 디자인업체인데요. 보고서에는, 2024년 11월 보고서인데 사진 찍은 정보를 저희가 볼 수 있지요. 보면요 2023년 4월 사진이에요.

그다음 사진.

다른 업체인데요. 2023년 11월 출장인데 사진을 찍은 날짜는 2020년 10월 11일입니다. 출장비도 이것은 16만 원이나 받아 갔어요, 현장 출장 갔다 왔다고.

그다음 사진.

현장실사일은 2023년 2월 20일인데 사진 찍은 날 보면 2020년 6월 23일입니다. 이것 다 가짜로 어디서 갖다 붙인 사진이라는 것 저희가 알 수 있겠지요?

○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서영총** 예.

○ **배현진 위원** 관광공사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하지요?

○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서영총** 잘못을 했다고……

○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앞서 조계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관감사 등급 E 받고도 지금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서영총**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 관련 법이나 규정으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닌 것은 팩트이고요.

저희가 혹시나 싶어서 11개 타 공공기관 랜덤으로 뽑아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현장실사 및 현장실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고서 허위 작성이 잘됐다라는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잘못됐다라고 책임을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보고서를 썼다면 오히려 출장 처리를 하고 출장비를 지급받고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회사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을 하고 회사에서 허위 보고서 작성을 조금 강요한 측면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님께 한마디 요청을……

○ **위원장 김교홍** 예.

○ **배현진 위원** 본 위원은 지난해 관광공사의 수의계약, 특히 여성기업 특혜를 활용한 수십억 원대 그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위원회 감사를 요구했으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자체 요구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가 한 발 물러서서 안에서 그것을 단도리하고 저희에게 보고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1년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 의결로, 전체 의결 사항으로 반드시 감사원 외부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위원장께서 특별히 지금 이 지시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충 말로 때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문체부장관에게 해당 직원들, 책임자들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우선 외부감사 건은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야 되니까, 협의를 해주시고.

여기 문체부 직원들 나와 있지요? 문체부에서 관광공사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관광공사 서영충 사장님, 국감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관광공사가 2001년도 현대아산에 금강산 시설 인수 자금으로 남북협력기금 해서 900억 원을 대출받아요.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20년이 지난 지금 원금 일부 45억 정도만 갚고 원금 855억에 이자까지 합쳐서 1116억 원의 부채가 지금 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리고 이게 내년 7월부터 해서 28년 7월까지 분할 상환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박정하 위원 이 기간 동안 관광공사는 네 차례에 걸쳐서 이율 그다음에 대출 기간 등 변경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대출 기간 종료 시점,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등을 정부 측에 요구하면서 왔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작년 말에는 여야 의원 15인이 공동발의해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고 진행 중입니다만 이것도 통일부, 기재부 등이 반대해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난 10년간 지금까지 누적 적자가 1570억이나 돼요. 누적 적자가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또 1100억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관광공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사 입장에서는 당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됐고 중단된 것도 공사의 원인에 기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보면 기금을 대출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기금의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탕감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국회에서도……

○박정하 위원 탕감이 되어야 사실은 부담 없이 관광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박정하 위원 지금 두 어깨에 잔뜩 부채 그다음에 기금 상환까지 엊다 달려가시려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박정하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진행이 됐지 관광공사 판단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요청을 하세요. 저희 상임위에서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감사합니다.

○박정하 위원 그런데 지금 정동영 통일부장관께서 9월 20일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원산갈마해안지구를 제대로 가동할 수 있게 금강산관광지구와 연계 관광이 실현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금강산지구에 있는 시설물, 관광공사 소유의 시설물은 지금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다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정부가 그전 2001년처럼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관광공사에 이런 사업을 하고 또 막대한 관광공사의 부채를 떠안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한다면 관광공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또 다른 부채를 져야 된다면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고 쉽게 이렇게 결정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박정하 위원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여쭐게요.

앞서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관광공사 사장 공석이 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지난 1월에 사퇴했습니다. 1년 10개월입니다.

○박정하 위원 한 10개월 정도 되고?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1년 10개월입니다.

○박정하 위원 1년 10개월이지요. 오랫 동안 공석인데 경영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지금 저희 기관장뿐만 아니라 상임이사가 저 한 사람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한 분 계시는 거고.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지금 상임이사도 다 공석이고요.

○박정하 위원 그런 상황에서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는 K-컬처 300조 얘기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문화체육부에 대해서 시감을 할 때 보니까 K-컬처 300조도 어쩌면 허공에 떠 있는 공허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문체부는 K-컬처 300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대통령실은 또 별도로 따로 3시간씩 문체부와 상관없이—문체부장관은 아무 관련을 안 했다는 거예요—따로 별도로 회의를 하고 또 국민들 혼혹할 수 있는 얘기를 막 했는데.

지금 사장도 공석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임원진, 우리 선생님 혼자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관광공사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 협의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구하거나 아니면 관광공사가 정부가 그러니까 문체부나 대통령실이 주최하는 관련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제가 총리 주재 회의에 두 번 갔었고요. 부총리 주재 회의에 한 번 갔었고 장관 주재 TF 발대식에 갔었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지금 구체적인 사업이 수립이 되거나 한 내용들이 있나요?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제가 참석했던 회의들은 업계와 의견 수렴하는 자리였고요.
- 박정하 위원 그냥 아이디어 모으는 자리 정도였네요?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부총리께서 주재하신 회의는 경제인 단체와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 박정하 위원 실효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사장님께서는?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제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정하 위원 그래도 전문가시고 지금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려면 가장 중추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데가 관광공사잖아요.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모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굉장히 의욕적인 계획들을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 정도로?
- 추가적인 것은 제가 종감에 종합적으로 여쭙겠습니다.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알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경기 광명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임오경 위원입니다.
- 서영충 직무대행님, 관광공사 사장 임명에 대한 것에 관련돼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사장 임명하는 데 있어서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저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 임오경 위원 없지요?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 임오경 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재 이사장님께 질의할게요. 2023년 일부 언론이 표완수 전 이사장 등이 열독률을 조작해 언론사 광고 단가 순위를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거 결과 어떻게 나왔지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특별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임오경 위원 무혐의 종결됐지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 임오경 위원 그 직후 재단 홈페이지에 해명 자료가 올라갔다가 갑자기 삭제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지시인가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거 제가……
- 임오경 위원 이사장님 지시인가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
- 임오경 위원 그러면 유병철 본부장님이 하셨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경영본부장 유병철 제가 답변드릴까요?

○임오경 위원 했나요?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경영본부장 유병철 그것은 이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임오경 위원 이사들이 누가 협의를 해요? 거기 다 남정호 이사하고 유병철 이사가 다 주도해서 운영하지 않았나요?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리드하셨지요? 주도하셨지요?

않으세요.

이후 재단 내부에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특별한 협의가 없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임오경 위원 이 근거 없는 의혹을 빌미로 여기 출석한 유병철·남정호 두 이사가 표완수 전 이사장의 해임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재단 내부감사에서도 문제없다고 결론 났음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두 이사 등이 이사회를 소집해서 해임 건의를 강행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 손에 있는 게 당시 해임 건의 사유서예요. 내용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해임건의서를 이사들이, 본부장들이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회를 열고, 이 문서에는 통계조작 의혹을 범죄사실로 단정하고 몰아서 이사회에 표완수 전 이사장 해임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건 누가 주도한 겁니까?

본부장님, 유병철·남정호 이사님, 누가 주도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경영본부장 유병철 그건 이사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사들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경영본부장 유병철 이사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유병철·남정호 이사님 두 분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한국언론진흥재단경영본부장 유병철 아니, 그때 다른 이사도, 아직 그때는 안 나갔을 때……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누가 제안했냐고요. 왜 책임 회피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경영본부장 유병철 아니, 책임 회피하는 거는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당사자 맞지요? 이거 주도하신 거 맞지요, 유병철·남정호 이사님 두 분이서?

유병철·남정호 이사님께서는, 그때 당신들은 재단의 임원으로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외풍으로부터 재단을 지켜야 할 자리에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하고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임을 시도했었습니다. 이제 경찰수사마저도 모두 다 무혐의로 끝이 났고요. 이 일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누가 져야 합니까? 이거 누가 해야 되지요?

해임건의서에는 재단 정관 15조를 근거로 임원 간 분쟁, 회계부정, 현저한 부당행위 시 해임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허위조작에 무혐의가 나왔어요. 임원 간

분쟁과 부당행위 그것은 오히려 유병철·남정호 이사가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효재 이사장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위원님, 제가……

○임오경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 끝나면 답변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본 사정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까요?

○임오경 위원 잠깐만요, 김효재 이사장님은 이 허위사실을 가지고 무혐의 다 나온 거, 아무런 일도 아닌 걸 가지고 본부장, 이사 2명이서 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이사회 올려서 이렇게 주도한 것에 있어서, 유병철·남정호 이사 이 두 사람 허위 근거로 내부 갈라치기 분쟁을 일으켰으니까 부정회계 등등으로도 이 사람들 해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그 문제는 지금 그걸……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 갈라치기부터 시작해서 허위사실로 인해서 사람 명의를 훼손시켰으니까 이러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사회에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직권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다른 차원이라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무슨 문제냐면……

○임오경 위원 아니, 경찰조사에서도 아무런 의혹도 없이 최종 무혐의 종결됐어요. 이렇게 사람 하나를, 이사장 하나를…… 지금 김효재 이사장님을 있는 이사들이 허위사실로 이렇게 해임건의서를 올린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건 제가……

○임오경 위원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사들이 정확한 근거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임성환 미디어국장님 나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임오경 위원 이거 임성환 미디어국장님 주체하에 당장 올리세요, 해임건의안. 그렇게 하세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부 기강이 바로 설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두 달 동안 가장 고생하신 분인 것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얼굴 한번 제가 못 뵙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위원님, 제가……

○임오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에서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허위 근거로 내부 갈라치기, 이사들이 이사장을 해임하기 위해서 이런 이사회를 열고…… 이거 형사처벌에서 무혐의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직접적으로 사과 한마디 하셨습니까, 두 이사님?

유병철·남정호 이사님, 표완수 전 이사장에게 사과 한마디 하셨습니까? 명예훼손을 이렇게 크게 하셨는데 하셨어요? 유병철 이사님, 남정호 이사님, 하셨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경영본부장 유병철 아직 못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왜 안 하셨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경영본부장 유병철 곧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할 계획이세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누군가에게 사과를 할 때는 용기를 내셔서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 안 했지요. 오히려 이 자리에 나오셔서 무혐의 처분된 것 사과했다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임성환 국장님 앉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제가 임성환 미디어국장님에게는 역할을 줬습니다. 반드시 이거 기강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사실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임건의안을 올린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작극으로 만들어 낸 해임건의안 올려서 본인들이 이사회를 열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사장을 상대로?

김효재 이사장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이사장님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사장님한테 지금 좋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기강 바로잡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광고 관련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수수료 지역방송사 지원계획 매년 150억 원 정액으로 확정된 겁니까? 확정됐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국정감사 전부터 그 숫자의 근거를 계속해서 물어 왔습니다. 문제부도 언론재단도 산출 근거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언론재단이 주로 지원했던 것은 신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시장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신문시장을 지원을 했는데 근래에 방송시장도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송국들에서 언론재단이 왜 신문에 지원을 집중하느냐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저희들이 수수료로 받아서 기재부에다가 맡겨 놓은 돈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신문에 지원하는 액이 작년도에 원래 정부안이 80억 원이었다가 문체위에서 지방신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배려 차원에서 150억 원 정도 까지로 올려 줬었는데 연말에 여야 간에 예산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국회는 삭감은 해도 증액은 못 한다고 그래서 80억으로 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나서 이재명 정부는 그 액수를 다시 150억 원으로 올려라 해서 정부안이 지금 150억 원으로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들의 지원 요구와 신문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지방신문과 신문에 대한 지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게 이게 화수분도 아니고 150억 원을 한 해에 갖다가 주고 나면 기재부에 맡겨 놓았던 돈 가운데서도 4~5년 지나면 이게 고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150억 원이라는 그 지원을 지역 MBC를 비롯한 MBC 지원으로 나가되 그것을 마중물로 해서 그 마중물에 의해서 국회와 정부가 지역언론 활성화 또는, 활성화 라기보다는 지역언론을 돋기 위한 그런 기금을 조금 더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입법

또는 제도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150억 원이라는 부분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임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김효재 이사장님이 말하는 것은…… 저는 말씀드린 게 지역방송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역방송사의 150억의 산출 근거를 말했는데, 지금 앞뒤 맞지 않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한 게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에 지금 문제의 논란이 되다 보니, 이게 언론진흥재단에서 15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50억에 대한 숫자의 산출 근거를 내놓으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에 대해서 왜 지역신문사가 나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역방송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150억이라는 숫자를 내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산출 근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교홍**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임오경 위원의 말씀은 지역방송에 150억을 내놓은 것에 대한 산출 근거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화해서 임오경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리고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왜 지역방송을 지원하게 되었는가 거기에서부터……

○**임오경 위원** 이제명 정부에서 들어오기 전에, 얘기하기 전에 먼저 15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왜 자꾸 이재명 정부를 논하시냐고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하기 전에 150억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거 기억 못 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요.

○**임오경 위원** 제가 이거 몇 차례 지적하지 않습니까? 왜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논쟁을 해야 되냐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임 위원님, 제 답변은……

○**임오경 위원** 답변이 지금 맞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근거를……

○**임오경 위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하기 전에……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러니까 근거, 산출 근거를 임오경 위원한테……

○**임오경 위원** 지금 몇 달 째 제가 이사장님하고 이거 가지고 논쟁합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근거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서류화시켜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사장님한테.

이사장님 얼굴이 잘 안 보이시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는 사실 돈으로 언론사를 길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일종의 들러리를 섰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MBC의 정부광고, SBS 또 JTBC 이런 데는 다 감소가 됐어요, 광고비가. TV조선이나 KBS나 조중동은 다 증가가 됐습니다, 문체부 국감 때도 얘기

를 했는데.

정권에 듣기 좋은 보도를 하면 광고를 늘리고 쓴소리를 하면 광고를 줄이는 이게 언론사 길들이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우리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희들은 정부가……

○**위원장 김교홍** 길게 하시지 말고, 저는 할 얘기가 지금 좀 있으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희들은 정부가……

○**위원장 김교홍**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이거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할가할부할 수 있는 문제 가……

○**위원장 김교홍** 왜 할가할부 못 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뭐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정부광고는 정부가 광고주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광고주인데 위탁받아서 10% 수수료도 받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효율적인 광고를 위해서, 정당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광고할 수 있게끔 위탁받은 값어치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10%의 수수료를 뺏습니까?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 폐쇄 해야지, 역할과 기능이 없는데.

무조건 광고주가 정부가 됐건 지자체가 됐건 어디가 돼서 거기서 마음대로 광고가 실리게 된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갖고 있는 기능, 균형과 공정성과 투명성과…… 또 수수료를 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연구도 하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광고 효율화를 꾀할 것인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하실 필요가 없네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그거하고는……

○**위원장 김교홍** 광고주가 다 알아서 한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뭐가 달라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광고주가……

○**위원장 김교홍** 그리고 작년 11월에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광훈 목사 등이 만든 자유일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었지요? 아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거기서 엄청난 얘기를 해요, 하여튼. 유튜브 방송사 시국 포럼 여기서 아주 엄청난 욕설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한테—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욕설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종북 좌파·공산주의 척결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이념적인 갈등과 좌우로 양 진영을 극단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유언론국민연합의 가짜뉴스 시상식 행사를 2년 연속 허가를 해 줬어요. 맞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위원장 김교홍 지원금 6000만 원도 줬어요, 2년 동안. 극우 언론단체에 몰아준 지원금만 윤 정부 시작부터 올 초까지 1억 8019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시민대책회의 발족 기자회견은 불허했어요. 민주화운동 원로 인사 100명이 모인 전국비상시국회의도 불허했어요. 그 이유는 즉 정치적 행사는 안 된다, 불허했습니다. 이게 형평성이 맞아요, 이사장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전광훈 목사 행사도 저희들이 제지해서 중간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니, 했어요. 행사했어요. 왜 자꾸만……

○이기현 위원 똑바로 대답하세요!

○위원장 김교홍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 얘기에 답변만 하세요. 전광훈 목사가 한 시국 포럼은 정치행사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전광훈 목사가 주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위원장 김교홍 전광훈 목사가 주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자유언론국민연합도 가짜 뉴스 시상식 2회 연속 했어요. 여기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몰아준 지원금만 1억 80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디 간단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저희들이 신청서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이태원 참사가 무슨 정치적인 행사예요? 왜 그거 안 됩니까? 아니,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이야.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1985년 개관 이후에 한국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 프레스센터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왜 여기에 저해되는 요인들을 하냐 이거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자의적인 잣대를 대고 해도 되냐, 위원장이 질문한 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지원해 주고 그래도 돼요, 극우 유튜브 보수단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 자료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제가 이사장이 되고 나서……

○위원장 김교홍 이사장님,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1억 8000만 원의 돈도 지원해 줬고 극우 유튜브 단체들한테 행사하게끔 만들어 줬고 6000만 원 지원했고 다 했잖아요. 그거 안 했다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희 프레스센터에서……

○위원장 김교홍 아니, 안 했냐고요? 행사 지원금을 줬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동아투위 행사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사장님, 이사장님 제가 얼굴이 안 보이는데 이 앞에 좀 서 주세요. 죄송합니다.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지 한국 사람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위원장 김교홍 이렇게 지원하고 빌려줬잖아요, 센터를. 그런데 뭐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거는 실무자에게 전결되어 있는 행사들인데요. 제게 일일이 이 행사를 해도 좋냐고……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실무자가 어떤 막강한 힘이 있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그들에게 제가 내린……

○위원장 김교홍 아니, 잠깐만요. 어느 단체는 그 프레스센터를 이용하게 하고 소위 이태원 참사나 민주화운동 원로 인사들이 하는 건 또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안 된다고 이렇게 합니까? 이사장님도 국회의원 해 보셨지만 우리가 국회의원 벌써 몇 선씩 하잖아요. 제가 이사장님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사장님 모르게 자기들 마음대로 실무자가 자의적으로 어느 단체는 제공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된다 불허하고 그렇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대개 신청 서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신청 서류에……

○위원장 김교홍 그래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사장님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제가 내린 지침은……

○위원장 김교홍 최종적으로는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한 거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리고 정부광고를 하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한 건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광고주인 정부가 매체를 선정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러니까. 잠깐, 그 대목에서 정부가 광고주가 돼서 매체를 선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매체를 선정하게끔 정보 제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그걸 안 했다니까. 그거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뭐냐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는 10% 수수료만 갖고, 역할과 기능이 없으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폐쇄해야지요, 죄송스러운 말씀이나마.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거기다가…… 그러면 인천시장 유정복이는 스카이데일리하고 어떻게,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모든 광고의 3분의 1가량을 스카이데일리에다 줬어요. 그러니까 스카이데일리 정부광고가 윤석열 취임 이후에 2.4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스카이데일리가 어떤 언론 매체인지는 아시잖아요. 완전히 극우 보수고 거짓·가짜뉴스만 갖다 전파를 하는 데인데 여기에 광고가 늘었어요, 윤석열 정부 때 2.4배나. 그리고 그 광고의 3분의 1은 인천시에서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89개, 계엄 이후, 작년 12·3 이후에도 89개, 1억 6100만 원의 정부광고가 실렸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대로 정보제공하고 광고가 이랬을 때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줬다라면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희 재단은 홈페이지에 광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제공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전부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걸 저희들이 이게 워낙 큰 자료이니까 모두 다 뿌리는 게 아니고 광고주가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 김교홍** 아니, 보세요. 이사장님, SBS나 MBC가 시청률이 제일 높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광고료가 줄어들어, 윤석열 정부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대개 보면 시청률이 높은 데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정부광고의 상당 부분은 지자체 광고인데요.

○**위원장 김교홍** 지자체 광고인지 제가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대로 해서 광고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어떻게 광고가 나가는 게 좋겠고 몇 면에 어떻게 게재하는 게 좋겠고 이런 걸 주되 광고를 의뢰하는 거는, 광고주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가 되겠지요. 그러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언론진흥재단에서는 제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건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건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것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민감한 게 아니지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정권을 자꾸만 쳐다보냐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요.

○**위원장 김교홍** 정권을 쳐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정권을 쳐다보니까. 그동안에 정권의 들러리 역할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 한 분 때문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자꾸만 아니라고 하지만 이사장님 한 분 때문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가?

앉아 주세요.

그다음에 한예종이요. 총장님, 한예종이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미국의 줄리어드 스쿨 같은 그런 학교로 하겠다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한예종에 왜 석박사 과정을 못 만들고 계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저희가 이제……

○위원장 김교홍 간단하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계속 석박사 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학내에서 요청하고 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니, 느끼면 뭐 하냐고. 그런데 왜 못 만들고 있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저희가 석박사 과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어떤 일반 사립대학들 쪽에서 저희들의 석박사 과정의 설립에 대해서 좀 많은 오해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래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외국의 유학생들이 한예종을 오려고 해도 석박사 과정이 없어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거 아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해야지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K-컬처를 위해서라도 해야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위원장님 되게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석박사 과정에 대한 것을 희망하고요. 또 혹시라도, 사실 저희도 생각해 보면 전국에 있는 모든 예술대학들이 사실은 같이, 국립학교인 저희들과 많은 교류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원원해야 될 관계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

○위원장 김교홍 이번에 총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고.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요.

○위원장 김교홍 지금 한예종이 있는 캠퍼스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지 벌써 16년이 됐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왜 학교 안 옮깁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저희가 많은 이동의 어떤 수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위원장 김교홍 맨날…… 용역을 몇 차례 줬지요, 지금까지? 여섯 번?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용역만 하고 앉아 있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그래서 아마 예산과 그다음에 어떤……

○위원장 김교홍 문화재청장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빨리 하셔라. 태릉선수촌의 국제 스케이트장하고 한예종은 유산인데 빨리 옮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한다니까 이거 계속 용역만 여섯 차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해서, 흘어져 있는 캠퍼스를 하나로 모아야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김교홍 지금 3개 캠퍼스 아니에요, 한예종이?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그걸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K-컬처 300조 시대에 가장 모토가 될 수 있는 것이 한예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한예종이 발전하면 우리 국내에 있는 유수한 대학들도 같이 원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걸 이끌어 내셔야 된다고 총장님은.

그리고 지금 한예종은 령으로 돼 있잖아요, 학교가.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시행령이잖아요, 설치령.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대학을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총장님이, 령으로 돼 있으면 됩니까? 그것 법으로 돼서 석박사 과정이 만들어져야 한예종이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세계 속에 유수한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를 총장님께서 강하게 움직이셔야지 용역만 여섯 차례 주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관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설치법이라든지 캠퍼스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꼭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오경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아까 김효재 이사장 말씀에서, 답변에서 전광훈 행사 관련되어서 분명히 문체부 사무검사를 받았습니다. 문체부 사무검사를 받고 난 직후 현장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면 재단에서 제지를 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효재 이사장은 전혀 현장에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의 답변에 있어서는 제지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감장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위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증죄로 고발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지금 김효재 이사장님 위증죄 고발 건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여야 간사끼리 협의를 해서 저하고 협의를 할 내용인데…… 이건 이사장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사를 한 거예요, 이사장님. 그걸 자꾸만 주무 담당 직원에게만 떠넘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중간에 그만뒀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행사는 끝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꼭 책임을 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반드시 물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때문에……

지금부터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증인은 한은경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회장 한 분입니다.

일반증인 명단과 출석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증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원 위원께서 신청하신 한은경 증인 나오셨습니까?

○ **증인 한은경** 예.

○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의 출결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은경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은경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한은경**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증인 한은경

○ **위원장 김교홍**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 **이기현 위원** 정말 답답해서 몇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겪임 상임위로 정보위하고 있는데요, 저희 상임위하고 비슷한 예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국정원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굉장히 편향적인 태도로 국정원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정원은 정보기관이고 자료의, 정보의 수집과 배포가 주 업무인데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할 때 굉장히 선택적으로 합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도 선택적 자료만 내주고 그리고 언론에 공개하는, 정보위에 보고하는 것도 자기들이 여러 판단에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에게, 집권자인 윤석열에게 필요한 자료, 유리한 자료들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론에 흘리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 중립이 그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 모양, 이 내란의 구렁텅이에 3년 기간 내에 윤석열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간주하도록 만드는 데 국정원도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께서 ‘우리는 언론진흥업무만 할 뿐이지 우리가 내란에 개

입하거나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선택적 자료 제공을 해 왔고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편애하는 언론사에 대한 지원, 언론단체에 대한 지원만 해 왔던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정권이 바뀌고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리원칙대로 일했다,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 내규대로 일했다, 법대로 일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서류 보고 판단했다, 판단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의 머리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효재 이사장님께서 본인은 역울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도 역울하실 게 없습니다. 지금 마땅히 받아야 할 질타를 받고 계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국민들의 공분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보고 제가 미리 미처 자료제출을 요청하지 못한 두 가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언론재단 단체의 후원, 명칭 사용을 허락하거나 예산 지원을 한 내역과 그 감사 결과를 오늘 저녁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효재 이사장님, 유병철 경영본부장, 남정호 미디어본부장님의 감사들에 그동안의 임기 과정에서 시민단체라고 주장되는 그리고 언론단체라고 주장되는 단체들에 나간 행사, 축사 그리고 참석내역 전체를 오늘 저녁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인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중인이 나와 있는데 질문이 많아서 추가질의시간까지 당겨서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재원 위원 감사합니다.

한은경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회장은 중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미디어정책국 임성환 국장님께 말씀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광고 공정성을 위한 민간 단체이지요. 매년 고정적으로 8억 원 이상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되고 KOBACO 소유의 방송문화회관에 입주해서 건물 임대료 30%를 감면까지 받고 있는 문체부 소관 비영리법인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처럼 공적 지원이 기반이 되면 공적 단체 맞습니까, 아닙니까, 민간 단체라고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공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이 단체가 회장 개인의 종교활동,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으로 완전히 왜곡돼 있습니다. 공적 단체가 맞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은경 회장님, PPT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2025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 주간 시간에 신우회라는 이름으로 사내에서 기도모임 직

접 조직하셨지요?

○증인 한은경 예.

○김재원 위원 PPT 다음 거 주십시오.

주기도문 암송, 감사일기 작성 강요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해당 직원들이 매주 화요일 오후만 되면 근무 중에도 암송 등 과제 준비를 해야 했다고 하는데 참석자 명단 보면 천주교, 무교 직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비기독교 직원들에게도 왜 이런 신앙 참여를 강요하셨습니까?

○증인 한은경 같이 할 수, 저는 크리스챤이기 때문에 제가 신우회를 보통 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김재원 위원 여기는 공적 기관이잖아요.

기도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년에 안 뽑겠다 이런 발언하셨지요?

○증인 한은경 그런 말은……

○김재원 위원 안 하셨어요?

○증인 한은경 예.

○김재원 위원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 한은경 예.

○김재원 위원 증인 선서 하셨어요.

○증인 한은경 참여를……

○김재원 위원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증인 선서 하셨으니까.

모임 참여자 중에 기독교인 최소 2명이 성균관대학교 시절 조교 제자 맞지요?

○증인 한은경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모두 회장 취임 이후에 직접 채용하셨고요?

○증인 한은경 예.

○김재원 위원 자격미비 지인 자녀 1명도 채용했지요?

○증인 한은경 자격?

○김재원 위원 자격이 안 되는 지인의 자녀 1명도 채용했다고 했습니다.

○증인 한은경 지인의 자녀요?

○김재원 위원 예.

이건 사적인 신앙 문제가 아니라 고용상 종교 차별입니다. 그리고 채용 비리입니다.

공적 조직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 임성환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국민이?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

○김재원 위원 공금 사용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기름 부음의 비밀’,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 같은 종교서적 공금으로 구매 지시하셨지요? 보조금이 아닌 운영비 회계라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 운영비를 개인 신앙활동에 쓰는 것 회계질서 위반 아닙니까? 해당 서적, 기관 업무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증인 한은경 아니, 그것 종교서적은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공금으로 쓴 정황이 있습니다.

○증인 한은경 공금이요?

○김재원 위원 PPT 다시 주시지요.

성균관대 교수 재직 중에 학교 구내식당과 자택 인근 식당에서 개인 식사에 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식사들 기구의 공식 회의나 직원 업무와 관련 있습니까?

○증인 한은경 제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는 회사와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PPT 안 보이시겠지만 이것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에요.

○증인 한은경 예.

○김재원 위원 2024년부터 BMW 법인차량 리스해서 개인용으로 사용하셨지요?

○증인 한은경 개인용이 아니라 출퇴근이고……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전부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다음 PPT에 유류비만 520만 원, 범칙금 9건 총 92만 원도 회사 예산에서 냈습니다. 심지어 문경 주유소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2건 결제된 내역도 있어서 다른 사람 차량까지 주유한 걸로 보이고요.

이게 어떻게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까?

PPT 다섯 번째 보시면 범칙금이 나와 있는데 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잖아요.

○증인 한은경 그건 제가 미처 보지를 못해서……

○김재원 위원 미처 본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공적 자금으로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PPT 주시지요.

2025년 5월 인도 룸바이에서 열린 국제광고 행사에 식민지 근대화론자로 유명한 이영훈 교수의 동생 이영우 씨를 고문으로 동행시켰습니다.

이영우 씨 누구입니까? 무슨 관계예요?

○증인 한은경 가족인데요. 고문은……

○김재원 위원 배우자 맞지요?

○증인 한은경 예, 어드바이저로, 자문역으로 간 거지 거기의 고문은 아닙니다.

○김재원 위원 PPT 다음 거 주시지요.

기구 정관 제39조 보겠습니다.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지 가능합니다.

이사회 동의 받으셨습니까?

○증인 한은경 그때 저희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김재원 위원 아니요, 정관 제39조에 따라서 이사회 동의를 받아서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하셨나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회장으로서 정관을 한 번도 안 읽어 보셨다는 얘기예요?

정관 파악 전혀 못 하시고 이 업무를 수행하신 겁니까, 장으로서?

○증인 한은경 그것은 제가……

○김재원 위원 이사회 의결 없이 직함 이렇게 부여해도 됩니까? 민간에서는 이렇게 하면 사기라고 합니다. 행사 측에 공식 고문으로 소개를 했잖아요. 어떻게 배우자가 기구

임직원입니까? 허위 명함까지 만들어서 뿐였지요?

○증인 한은경 아니, 임직원은 아니고요. 그때……

○김재원 위원 임직원 아닌데 공식 고문으로 소개를 했잖아요, 회사에.

○증인 한은경 아니요, 고문이 아닙니다. 그게 영문으로만 쓰여진 영문이력서고……

○김재원 위원 영문은 한글의 번역 아닙니까?

○증인 한은경 아닙니다.

○김재원 위원 고문으로 쓰여지면 그게……

○증인 한은경 아닙니다. 어드바이저는, 고문은 뭔가 이렇게 월급을 준다는……

○김재원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증인 한은경 그런 건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배우자 이영우 씨가, 다음번 보세요.

PPT 보시면 배우자 이영우 씨가 쓴 ‘신냉전, 퀸텀 패권 생탈전’ 30권 공금으로 구매하라고도 지시하셨지요?

이것 공금 사용 내역입니다. 명백히 직위 사칭과 공적 자원 사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다음 PPT 주시지요.

회장님 비상근이에요, 아니에요?

비상근이시지요?

○증인 한은경 예……

○김재원 위원 그런데 매월 550만 원에서 713만 원까지 급여 받으셨습니다. 이사회 승인도 없이 스스로 금액을 정했고 올해 3월부터는 건강보험까지 회사 부담으로 가입했습니다.

이사회나 총회에서 급여 승인받았습니까?

○증인 한은경 그것은 제가 미처 알지를 못해 가지고……

○김재원 위원 미처 알지를 못하고 급여를 공금으로 집행을 해요?

○증인 한은경 급여……

○김재원 위원 급여 지급내역 보시지요.

협회 정관 제37조, 다음 PPT 보십시오.

임원은 무보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 안 읽어 봤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모든 조치가 정관이나 내부 규정상 허용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그 회의 장으로서 정관도 확인 안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급여를 함부로 받습니까?

○증인 한은경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김재원 위원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님, 이 기관 명백하게 문체부 소관 비영리법인인데요.

문체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보면 문체부는 필요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계업무 검사 지시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정관 위배 사항만 3건, 내부 규정 위반 사항만 4건이 넘습니다.

아직도 기금사업비 8억 자료 외에도 자료 접근도, 관리·감독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

- **김재원 위원** 공적 기금을 받아서 쓰는 단체는 공적 기구로 봐야 한다면서요.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 **김재원 위원** 못 하는 것 아니지요? 할 수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 **김재원 위원** 이 정도로 종교 강요, 공금 유용, 급여 부당지급 확인됐으면 즉시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독 절차 개시해야 되겠지요?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 **김재원 위원** 하실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하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한은경 회장님, 잘 모르신다고 해도 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증인 한은경** 죄송합니다.
- **김재원 위원**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종교 그렇게 강요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관 운영에 이렇게 결합시킨 부분 이것 문제 많습니다. 공금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 **증인 한은경** 예.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 **김재원 위원** 아니요.

- **증인 한은경** 죄송합니다.

- **김재원 위원** 어떤 단체든 간에 공금 이렇게 사용하는 거 없습니다.

임성환 국장님, 법에 근거한 감독권 즉시 행사하시고 결과 국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김효재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해당 단체가 기금 보조사업자인 만큼 함께 살펴 주십시오. 국비가 투입되고 있고 법적으로 부처 소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독권 행사해야 됩니다.

김효재 이사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광고 공사에 대해서요?

- **김재원 위원** 기금 보조사업자니까 함께 살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살펴보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증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의 증인 신청을 마쳤고요.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증인에게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응해 주신 증인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인 신문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주질의를 듣고 오전 그리고 오후 지금 시간까지 보니까 문체부와 문체부 산하기관에 이른바 내란 동조세력 내지는 내란 잔당이 꽤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관광공사에는 없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민형배 위원** 없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민형배 위원** 세 가지만 오전 질의에 이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 어개인 세력, 이 세력에 혐중 시위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을 하고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대사관까지 나서서 위험하다, 조심해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아마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전달이 미흡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위기 단계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 예산을 1000억 넘게 쓰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배정을 하셔서 다시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관광명소에 와 가지고 오히려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주무부처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제 질의가 끝날 때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민형배 위원** KTV의 이찬구 직대님, 오늘 오전에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그렇게 수많은, 12·3 이후에 내란 과정에서 수많은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혹시 아침에 아주 특이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내란 동조 행위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사과하신 적 있으세요? 지금 원장님의 직위 해제 상태입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해제 상태입니다.

(김교홍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민형배 위원** 원장님 직위 해제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맞습니다.
- **민형배 위원** 혹시 사과하신 적 있으세요, 국민들께?
-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없습니다.
- **민형배 위원** 사과 방송은요?
-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없습니다.
- **민형배 위원** 이것 너무 뻔뻔한 것 아닙니까? 그것 검토해 보시고 이따 끝날 때 위원장님께 시간 혀락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과를 하실 것인지, 사과 방송하실 것인지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알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이구용 원장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구용 원장님.
원장님, 지난 8월에 YES24 해킹 사건 아시지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예.
- **민형배 위원** 앓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때 전자책 샀는데 접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 아시지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예, 들었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러면 전자책은 소유권을 구매를 하는 겁니까, 이용권을 구매합니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 **민형배 위원** 모르세요? 전자책을 구매한다는 것이 소유권을 구매하는 겁니까, 이용권을 구매하는 겁니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2개가 다 가능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2개 다 가능하다고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이용을 하고 구매한 상품을 소유하는.....
- **민형배 위원** 원장님, 직무 대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자책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예.
- **민형배 위원** 그런데 전자책 약관에는 보면 내 책인지 아닌지 보통 종이로 된 종이책은 권리소진의 원칙이라고 아시지요? 뭐니까, 권리소진 원칙이?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 **민형배 위원** 감사를 더 못 하겠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원장직무대행께서는 전혀 감사받을 준비를 안 하고 오셨네요?
종이책의 권리소진 원칙이 뭐예요? 내가 책을 사면 판매한 사람은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책을 사면 그 책을 제가 다른 데다 팔아 먹든 빌려 주든 아무 상관 없다는 거예요. 전자책에 이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적용이 안 됩니다.
- **민형배 위원** 적용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까? 그래도 구매하고 판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전자책은 디지털 버전이기 때문에 좀 다른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벼전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전자책을 판매하는 플랫폼에서 어느 곳에도 약관에 소유권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요, 지금. 벼전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 디지털 벼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디지털 벼전을 어떻게 자기가 활용하는 건지 소유를 누가 하는 건지 이게 없다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모두 다 구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자기가 이양받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책값이요 싸지도 않아요. 종이책이 2025년에 2만 1722원인데 전자책이 1만 3721원이에요. 자기 것 소유 그러니까 권리소진 원칙도 적용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는는데 그렇다고요. 그리고 정가도 전혀 다르게 책정이 돼 있어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한예종 총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한예종 채점 평가위원 명단을—여기에는 지금 땡땡 있는데—달라 그랬는데 주셨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조은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아니나 다를까 명단 확인해 보니 김상진 무용원 원장은 최근 10년간 총 백네 번의 무용원과 전통예술원 입시 평가 채점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특히 김상진 원장의 경우—본 위원이 발견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2023년 서울예고 강의를 했고 2024년 국립전통예술고 특강을 했습니다. 그러면 3년간 입시위원으로 제척돼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왜 안 됐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나 규정상 3년 안에는.....

○조은희 위원 안 되는데 한예종은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무용원 입시위원으로 스무 번, 전통예술원 입시위원으로 아홉 번, 총 스물아홉 번을 불법적인 채점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이것을 입시 비리라고 봅니다.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올해 2월 박 모 교수는 겸직 금지 위반 등 해서 그 이후로 해임 조치까지 했는데 왜 김상진 원장은 놔두는 겁니까? 한국무용협회 찬스입니까? 아니면 한예종이 사람 차별해 가면서 해임 조치합니까? 일타 강사를 하든지 아니면 무용원 교수를 하든지 양자택일하라 그러시고 구체적으로 오늘 오후 질의시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한테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은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가령 어떤 예술고등학교라

든지 이런 데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교습을 한 학생들이 3년 이내에 시험을 보게 되면 제척이나 회피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니, 제 시간을 그렇게 쓸데없는 답변으로 낭비하십니까? 제가 지금 다 말씀하신 것을 지금 되풀이하고 계시잖아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그리고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조은희 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잘못됐잖아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조은희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조은희 위원**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당연히 그것은 바로 규정에 따라서……

○**조은희 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저녁에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잠깐 멈춰 주시고요.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님 나오세요. 제가 잘 보이게 이쪽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 한번 보자시요.

이재명 정부는 지역화폐 얘기만 나오면 약해지고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강진군 반값 여행 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는데 여행객들이 강진군에 가서 먹고 자면 지역화폐로 20만 원까지 절반을 돌려준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께서 강진군 반값 여행을 극찬하고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실상은 혈세 낭비만 하는 빈 깡통 정책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쿠폰이나 지역 여행 지원은 지역경제의 생산 유발효과나 어떻게든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국장님이 저렇게 현실 파악이 없으시니까 대통령이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전형적인 통계 뻥튀기, 눈속임입니다. 담당 국장이 저러고 있으니까 참 한심하네요.

강진군의회 민주당 노두섭 의원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수치만 부풀리고 실질적 성과는 거꾸로 간 전형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고 지적까지 했겠습니까? 왜 자화자찬이냐, 강진군은 지난해 반값 여행에 22억 원을 투입해 관광객 282만 명을 유치했고 24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거뒀다고 성과를 동네방네 홍보했습니다. 마치 투입 예산 대비 10배의 효과를 거둔 것처럼 부풀렸는데요. 강진군은 코로나 직후인 2023년에도 관광객 수 238만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반값 여행 예산 22억 원을 투입해 282만 명을 유치했다는 것은 통계

뻥튀기입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36억 원 예산을 썼고 올해는 56억 원을 쓴아 부었는데 관광객 숫자는 오히려 10% 줄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역화폐 혈세 50억 원 그냥 허공으로 날린 거지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강진군의회에서 논의했던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그런 게 없도록 지금 사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참 답답한데요. 황당한 것은 요 통계에 허수까지 있습니다. 인근 타 시군 주민들이 반값 외식하고 반값 쇼핑하기 위해서 반값 여행을 신청해서 건너오고 한다는데요. 서울로 따지면 서초구에서 영등포로 외식하려 가면 반값 돌려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지역 간 소비 유출이라고 하면 그 통계를 믿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혈세로 만든 지역화폐입니다. 관광객을 일시적으로 증가시켰다고 하는 것은 알 꽉한 가짜 전략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장님, 문체부는 인구감소 지역 스무 곳에 65억 원 규모의 시범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말씀하시면 검토도 안 해보고 그렇게, 혈세를 200여 개 시군에서 하면 예산 1조 원인데 그것 1조 원을 훌쩍 날리겠습니까? 일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설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은희 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지금 1조 원이 날아가게 생겼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강진군의 이 통계가 허수라고 얘기하는 건데 강진군을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1조 원 예산을 들이겠다는 것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다니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조은희 위원 그러면 대답을 성의 있게 하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강진군 사례를 중앙정부에서 똑같이 카피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은희 위원 그러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저희가 각 지역에 맞게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게요 공자님 말씀하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나 제가 말씀하시나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말씀하시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장님답게, 관광객 많이 유치하신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예.

○조은희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유치하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답변 저녁시간에 해 주십시오. 그동안 공부 좀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예, 위원님.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오경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예.

○민형배 위원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나 답변은 이따 제 질의시간에 이어 가더라도 아까 두 분한테 제가 제 질의가 끝나면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기회를 못 드려서..... 위원장님, 그 두 분 그러니까 이찬구 원장직무대리하고 서 직무대리 두 분께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이찬구 직무대리 그리고 서.....

○민형배 위원 왜냐하면 이게 끊겨 버리면 나중에 다시 이어 가기가.....

○위원장대리 임오경 또 한 분은 누구십니까?

○민형배 위원 이찬구 직무대리, 서영충 직무대리.

○위원장대리 임오경 지금 민형배 위원님 전 질의 과정에 있어서 이찬구 직무대리님께서 위원장에게 요청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충 관광공사직무대리께서도 그런 답변은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지금 민형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어서 두 분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만 것은 관광 교류 측면에서 저희 인바운드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고 숫자뿐만 아니라 총소비액도 최상위권이고 그래서 굉장히 공사에서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잘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이찬구 대리님.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민형배 위원님께서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KTV가 많은 물의를 일으켰는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수행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많이 당했고 그다음에 지금 문체부 자체감사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내란 특검에 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요구권도 아직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KTV가 공식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와 그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내지는 K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대국민 사과를, 시청자 여러분께나 국민들께 사과의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 어쨌든 작년 국정감사가 원활치 않았고 저희 조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그래서 감사까지 간 부분이 있어서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 조치에 맞춰서 문체부 감사는 문체부 감사실과 그다음에 특검 조사는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게 내부 조직 구성원들과의 대책과 그다음에 상급기관인 문체부 감사실 등과의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서 무리 없이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임시로 맡고 있는 직무대리로서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그때 가서 내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잠깐만요, 아까 민형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계엄 관련돼서 연

관성이 있었다라고 질의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오전 답변도 듣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됐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그 부분은……

○위원장대리 임오경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국민은 눈에 없습니까? 리더로서 직원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리님께서 계엄을 선포하신 건 아니잖아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그랬으면 이것은 감사와 특검 조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지금 민형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직원들 또한 사기 저하가 되어 있으니 동기 부여가 되기 위해서라도 지금 직무대리로 하고 있으니 국민들에게 'KTV가 공정성을 가지고 투명함을 가지고 앞으로는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대리 임오경 아니요, 답변에 있어서, 그런데 저도 이렇게 듣다 보니 감사 결과 그리고 특검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그것을 가지고, 그 결과를 듣고 나서 사과하겠다 이런 걸로 들렸습니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인 걸로 제가 듣는데……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여야 위원님들이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진짜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민형배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위원장대리 임오경 하십시오.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직 내부나 저나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또 한번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방송을 통해서 내지는 매체를 통해서 KTV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셔서 그것도 포함되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 드리고 정중히 고개 숙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위원장은 아니지만 위원장에 앉아 있으니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모든 분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리원칙, 공정성, 투명성을 무시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기 계신 모든 기관장님들께서 원리원칙을 지키셔서 제대로 리드를 해 주셔야지 현장에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저희 문체부를, 그리고 또 우리 기관들을, 또 여야 국회의원들을 신뢰하고 제대로 저희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모든 기관장님들, 이재명 정부 들어섰지만 원리원칙, 공정함, 투명성을 기본 베이직으로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는 것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점으로 김효재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기금이 2개가 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박수현 위원**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입니다.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맞습니다.

○**박수현 위원** 언론진흥기금은 다 아시다시피 신문과 인터넷신문 그리고 인터넷뉴스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에서 출연을 받아서 지역신문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본 문제위는 바로 이 지역신문발전기금 부분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나 지난번 상임위 과정 등을 통해서 지역언론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 왔고 지역신문발전기금 2026년 정부안 예산편성 때도 저희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증액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왔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예산 규모도 작고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2025년도에 94개의 언론사가 신청을 해서 64개사가 선정이 되었어요. 71%입니다. 이 선정 비율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25년도 기준의 지역신문 숫자가 994개인 것을 고려하고 그중에 67개사를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보면 선정 비율이 6.7%에 불과하다. 그래서 애초에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을 신청한 지역신문의 숫자가 매우 적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17개 항목에 달하는 신청요건이나 평가항목 자체가 까다로워서 운영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언론이 지원 엄두조차 내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필요성 또 검토의견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박수현 위원** 또 열악한 지역신문일수록 정부광고라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한데 2025년 기준 전체 994개 언론사 중에서 정부광고를 1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이 무려 382개사에 해당하고 비중으로 38.4%에 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지역신문에 관한 이야기고요. 지역인터넷신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황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에 요구해서 본 의원실에서 통계를 내 봤습니다. 보급 지역을 전국이 아닌 지역으로 설정해 놓고 볼 때 지역인터넷신문 개수가 현재 무려 약 1328개사로 통계를 내 볼 수 있는데, 지역인터넷신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신문과 같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진흥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 맞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박수현 위원**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 동안 언론진흥기금이 각 매체에 지원한 1300건 중에서 지역인터넷신문 지원 건수는 36건, 전체 지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불과합니다. 지역인터넷신문 숫자가 1328개인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언론진흥기금 사업이 공모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 역시 절차나 요건상의 어려움으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대부분 신청조차 포기한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언론 지원에 대한 모든 답을 안다고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고민이 크면 클수록 그런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때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고민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괜히 지역언론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었나라고 하는 후회도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인지한 이상, 우리가 문제로 함께 인식하고 있는 이상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우선 간단합니다.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제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에 2025년의 83억 원에서 26년 정부안에 118억 원을 담았어요. 35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애초의 추세대로 이야기하면 감액돼야 되는데 감액을 멈추고 증액시켰다는 것에 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노력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회 증액 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1분만 쓰겠습니다.

추가 증액의 여지가 없느냐라고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여유재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진흥재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발전기금 여유재원이 2024년 결산 기준으로 40억 원에 달하고 언론진흥기금 여유재원도 2024년 결산 기준으로 480억 원이나 됩니다.

이사장님께 강력하게 제가 제안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기금사업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단기적으로 이번 국회 과정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증액된 사업비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을 확대해야 되고 요건 절차가 까다로워서 신청하기 어려운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모나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가점이나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적극 검토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김효재 이사장님, 지금 박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방송사가 아니라 지역신문사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맞습니다. 지역신문사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그전에 제가 질의한 것은 지역방송사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그런데 그것을 혼동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그거 다시 한번 제가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하셨고 경기 안산시갑 양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언론재단 경영본부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정부광고 협력사라고 그러지요, 정부광고 제작자. 제작사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해 볼게요.

2023년에 재단 내부에서 정부광고 제작사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됐어요, 심사하기 전에. 그리고 명단이 유출되고 나서 인하대 김 모 교수한테 그 명단이 넘어가고 그리고 심사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청탁이 들어와요. 그 사건 알고 계시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경영본부장 유병철** 예.

○**양문석 위원** 그 사건 어떻게 처리됐어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경영본부장 유병철** 그 사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양문석 위원** 경찰수사 의뢰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지요? 그거 못 찾아 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경영본부장 유병철** 예.

○**양문석 위원** 이거 몇 명이 가지고 나오는 명단이에요?

○**한국언론진흥재단경영본부장 유병철** 그 내용은 제가 소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위원님,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경영본부장 유병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만 제가……

○**양문석 위원** 경영본부장이 그걸 몰라요?

○**한국언론진흥재단경영본부장 유병철** 예.

○**양문석 위원** 뒤에서 사람 쫓아내는 작업은 잘하시지만 실무는 모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제가 답변……

○**양문석 위원** 들어가세요.

이사장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지요?

내부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되고 유출된 명단을 토대로 해 가지고 청탁이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조사를 했고 그리고 내부 조사에서 못 풀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못 찾았던 거지요, 못 찾았던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거는……

○**양문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감사와 내부 조사의 차이가 뭐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양문석 위원** 감사는 기본적으로 내부 감사를 하고 나면 문체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내부 조사는 뒤에서 깔아뭉개고 은폐해도 되는 게 내부 특별조사예요. 그리고 경찰에 던졌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게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사를 지시한 사람, 감사를 지시한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조금 더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양문석 위원** 그랬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양문석 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하세요.

이사장이 취임했었을 때 이 문제가 터졌나요, 그 이전에 터졌나요? 그 이전에 터졌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사건 자체는 제가 취임하기 전이고요.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경찰에 고발한 것은 제 취임 후입니다.

○**양문석 위원** 경찰에 고발한 부분과, 그 이전에 감사를 안 하고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뭉개고 갔던 의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광고 제작이 연간 1000억 원에 가까워요. 한 970억 정도 되지요? 1000억이라는 돈을 사용하면서 어느 회사에다가 정부광고를 맡길 것인가를 심사하는 심사 풀은 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 풀 누가 만들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희 재단과 관계자들이 만듭니다. 지금 현재 아마 이백육십몇 명인 걸로……

○**양문석 위원** 재단 관계자는 누구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희 광고본부……

○**양문석 위원**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광고본부입니다.

○**양문석 위원**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광고본부요. 저희 재단 광고본부요.

○**양문석 위원** 광고본부장 나와 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광고본부장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양문석 위원** 왜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원래는 저 이사장만 나오고요. 본부장들은……

○**양문석 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대답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양문석 위원** 심사위원 누가, 그 풀 누가 구성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광고본부에서 구성을 합니다.

○**양문석 위원** 광고본부에서 구성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여러 군데의 추천을, 각 학회 그리고 관련 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광고본부에서 명단 풀을, 후보를 가지고 있고요.

○**양문석 위원** 풀, 후보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러니까 광고 전문가이거나 광고 전문학회 또는 학계에서 추천한 분들입니다.

○**양문석 위원** 이보세요. 정확하게 법대로 좀 이야기, 대답 좀 하세요.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보면 심사위원 풀은 첫 번째 ‘광고 및 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진’, 두 번째 ‘정부부처 및 정부광고 요청 기관 전문인력’, 세 번째 ‘홍보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렇게 하는 거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양문석 위원 그런데 풀을 246명을 구성했어요.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러니까 풀, 후보입니다.

○양문석 위원 풀이잖아요, 풀. 이분들이 후보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중에……

○양문석 위원 그럼요. 이야기 중간에 자르지 마세요.

그런데 246명 중에 87명만 신청서를 낸 사람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심사위원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에요. 즉 나머지 65%는 서류를 제출 안 하고 풀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기관도 그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법으로 분명히 풀을 규정을 하고 있고 자격까지 명확하게 규정을 해요.

그런데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83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재단이 경력 확인,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포함시켰어요. 임의로 포함시켜서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내가 한번 물려 줄게요, 명단. 그거 한번 들어 보세요.

2003년 충청투데이 서울지사 부국장, 경향신문 부국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일보 편집국장, 채널A 국장, 스포츠동아 편집국장, 연합뉴스 편집국장, KBS 해설위원, 서울신문 편집이사, 한국일보 논설위원, 전주MBC 사장, YTN 경제부장, 연합뉴스 부국장, 매일신문 편집국장, 서울신문 편집국장, SBS 경영기획실장, 서울신문 논설위원, 국민일보 논설위원, 매일경제 논설위원, 중앙일보 기자.

이들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위원 자격 있나요, 세 가지 기준에? 없지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왜 대부분이 자기가 심사위원 풀에 자신의 명단이 있는 줄 몰라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것 아마……

○양문석 위원 잠깐, 끝까지 들어 보세요.

몰라요. 확인 다 했어요. 이랬었을 때 풀 관리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풀 관리 제대로 안 됐지요? 그리고 이 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자료제출하세요. 왜 자료를 제출 안 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심사위원 명단 내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이나 이런 데에서 날아가 가지고 확보할 수 없는 명단이 일부가 있고요.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문석 위원 시스템을 통한 관리라면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언론재단이 자료를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왜 자료를 안 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디지털 자료가……

○양문석 위원 사건·사고가 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이나 본부장들이 전형적인 이권 개입의 주요 통로가 돼요.

○위원장대리 임오경 양문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벌써 다 했어요?

이거 이권 개입의 주요 통로가 됩니다. 언론재단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부패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제작사 선정.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 중에, 풀 중에 심사위원 어떻게 채택해요? 누가 선정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풀에서 후보가 나옵니다. 후보가 나오면……

○양문석 위원 무작위 선정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습니다. 연락을 해서 무작위로 순위……

○양문석 위원 잠시만요. 무작위 선정해요, 안 그러면 선정해서 연락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일단 264명 가운데……

○양문석 위원 심사위원 구성은 누가 하냐고요? 심사위원 풀 중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심사위원 구성은 광고본부에서 합니다.

○양문석 위원 광고본부는 그러면 언론재단 아니에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언론재단에서 합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니까요. 언론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언론재단 이사장 직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것 누가 하냐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광고본부 직원이 하는 거지요.

○양문석 위원 광고본부 직원이 해요? 광고본부 직원 누가 했어요, 23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거는 위낙 많은 심사이기 때문에……

○양문석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특정해 줄게요. 그 당시에 약자복지정책 정부광고 심사 위원 명단 유출했던 부서 실무자들 명단 제출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심사위원 구성했던 실무자 그리고 결재 라인 명단 오늘 저녁 안으로 제출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양문석 위원 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정확하게……

○위원장대리 임오경 양문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때 또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사위원이 2년이 규정돼 있는데 246명 중에 40%가 2년 임기가 이미 넘었는데 재위촉 절차도 하나도 없이, 심지어 최장 5년 있고요. 앞서 제가 불렀던 명단, 신문사 편집국장 등 한 번도 이제까지 심사위원을 한 적이 없고요, 12명이. 그중에 12명이 한 번도 심사위원을 한 적도 없고 본인들은 심사위원 풀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책 이것까지 다 파악해 가지고 자기들 데이터베이스 위에 올려놓고 본인들은 몰라요. 이것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위원장대리 임오경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양문석 위원님 다음 추가질의에서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경영본부장 이거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했고, 광고본부장 바로 저녁에 들어오라고 그려세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요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영역입니다. 우리한테는 명단을 안 주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심사위원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명단을 안 주고 그 명단은 사전에 업계 관계자에게 유출되어서 심사위원에게 청탁을 하고, 이 부패의 구조를 지금 김효재 이사장이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양문석 위원님 추가질의에서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예, 추가질의 할 텐데요.

그 자료 바로 제출하시고 반드시 광고본부장과 광고국장 그리고 그 당시에 실무했던 사람 오늘 저녁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려세요.

.....

○**위원장대리 임오경** 박정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정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예.

○**박정하 위원**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 회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회의 진행되는 거 보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제 느낌상으로는 다소 저희 국감 회의 진행이 원만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어진, 정해진 시간에 추가적으로 일이 분 추가해서 말씀하시는 건 괜찮지만 너무 오래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많이 뺏는 거고, 이후 재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말씀 주시는 게, 이 회의 진행하시는 게 옳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문석 위원님 좀 전에 발언시간 지나고 나서 쭉 말씀하셨던 것들은 정리해서 이따 다시 한번 말씀 주십사 위원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지금 박정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 정연욱 위원님……

○**배현진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배현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간사, 김교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진 위원** 제가 오전 질의에서 한국관광공사 직무대행에게 현장실사 결과보고서가 필수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마치 위원이 팩트 체크를 하고 오지 않았다고, 팩트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한 걸 아까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한번 주겠습니다. 지금 관광공사 내규상 22년 10월 31일 자로 내규가 나와 있고 이 전자계약시스템에 필수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점 지금 질의가 진행되는 중에 저희가 정회할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공사 직무대행은 확인을 하셔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명확하게 그게 어떤 것인지 이걸 지켜보고 계시는 모든 국민들께 밝히고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님.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총** 예. 확인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사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건 빨리 확인하고 다음 분 질문 때 사과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아마 문화·관광정책에서 K-컬처 300조 그다음에 방한 외래 관광객 3000만 시대를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종 과연 이 주요 정책이 저희로서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정책이 더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실태파악을 해야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한 외래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맞기 위해서 가장…… 지난해지요.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를 내서 관광불편신고가 접수된 게 총 154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직전 전년 대비 71.1% 불편신고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외래 관광객들이 조금씩 느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불편 상황도 급증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아마 사장님도 실제로 밖에, 외국에 나가서 한번 둘러볼 기회도 있을 테고. 그러면 아마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가장 느끼는 불편 사항이 뭔지를 볼 겁니다. 저희가 나가도, 제가 아는 분들이 외국에 나가도 가장 먼저 보는 게 구글 앱을 통해서, 구글맵을 통해서 교통부터 먹거리, 주변에 방문하는 모든 선택지를 결정합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면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건 구글맵을 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관련 PPT를 보시면, 결국 우리 방한하는 외국인들이 접하는 관광 앱의 가장 불만 사항은 구글맵입니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국내 앱인 네이버·카카오T 앱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번 봤습니다. 구글맵을 한번 저희가 시연을 해 봤습니다. 여의도역에서 국회 의사당까지 가는, 구글 앱을 통해서 한번 돌려 봤습니다. 경로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여의도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구글 앱을 통해서 코스를 잡으려면 저런 게 됩니다. 경로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앱을 통해서 뭘 보겠다는 겁니까? 대부분의 외국인은 구글 앱을 통해서 구글맵을 보겠지요, 현실적으로?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정연욱 위원** 그러면 저런 앱을 가지고, 저런 상태에서 뭐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구글 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거? 대표적으로 1 대 5000의 지도 반출이 안 된다 이런 거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희는 구글 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국내 앱이 과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동시에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면 15년째 구글 앱은 지도 데이터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도 산업의 주도권이 넘어간다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 대 5000 수준의 고정밀지도를 구글에 제공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이 축척지도가 전부다 낮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구글은 그것만 요구하지 실제로 서비스 내용을 바꾸겠다는 노력을 거의 안 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정연욱 위원 그렇다면 구글맵은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자꾸 왜 지도, 고정밀 축척지도를 내놓지 않느냐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맞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 보안상 요구 하나만 자꾸 얘기하는데 보안상 요구만이 아니라 구글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있다는 걸 분명히 좀 얘기를 하시고. 아시겠지만 이걸 더 적극적으로 이슈화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앱은 그렇다고 해서 국내라고 무조건 보호하고 키워야 되는 문제는 아닌 거 아닙니까?

국내 토종 앱입니다. 아마 네이버지도가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쟁력이 과연 있느냐 보면 국내 앱들도 철저하게 자기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글맵이 언어 지원하는 국가 언어가 42개입니다. 네이버지도는 4개, 영·한·일·중 이렇게요. 카카오 앱은 3개입니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 지금 상당수 중동도 많이 오고 다른 많은 외국인들, 저희 지역구 광안리에도 보면 중동인들도 많이 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지역에서는 저희가 6개 언어로 겨우 이렇게 해서 좀 차별화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이것 소화를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국내 앱은 국내에 있다는 하나의 이유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고 할 수 있겠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아마 관광공사가 지난해 분석한 것도 보면 주요 불만 중 하나가 이런 다국어 미지원 상태, 네이버는 36.4%, 카카오T는 아마 20.7% 같습니다. 아마 일부 장소명은 아예 그런 외국어 안 씁니다. 외래관광객 3000만 시대를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3000만, 4000만 되면 어떻고 5000만, 1억이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현실이 뒷받침하느냐 이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체부가 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관광공사 차원에서도 과연 이런 플랫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은 저희가 휴대폰부터 켜는 게 시작인데 이것부터가 안 되는데 무슨 관광을 시작하냐 이거지요. 3000만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한번 입장이 뭔지 설명해 보십시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 불편사항으로 많이 꼽히고 있는 문제고요, 지금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걸려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양쪽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선은 그렇다고 저희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앱들과 협력해서, 사실은 네이버에서 외국어 그나마 4개 한 것도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거든요. 이제 막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고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게 중요한 쟁점 사항이 많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지금 정책 목표가 정해진 이상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 병의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경기 일산의 이기현입니다.

신은향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한예종과 국립전통고, 최근 몇 년간 자살 시도와 자해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 이기현 위원 제 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특히 한예종 같은 경우 6년간 심리적 위기 학생이 32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자해 또는 자살 시도를 한 학생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학생들한테 진료비, 약제비, 상담비 등으로 1년간 약 5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고 그 예산이 2500 수준이기 때문에 2500만 원 소진되고 나면 끝납니다. 심리 지원 1건만 해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여덟 달 동안 233 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은 바닥나서 이후에는 그것도 쉽지 않지요.

상담 건수는 20년에 약 4800건이었는데 24년에는 61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학생 수는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통예술고 같은 경우도 최근 6년간 12건의 자살 시도와 자해 시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예 전문 상담사도 없습니다. 22년 이후에는 배치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그냥 선생님 한 분이 땀빵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도 너무 크고, 이것은 사회적 현상입니다. 사실 성인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것 관련돼서 특히 예술 전공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마음의 고통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문화예술의 최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위기 신호라고 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 이기현 위원 편장완 총장님, 심리적 위기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편장완 저희가 매해 학생들이 일단은 굉장히 많은 경쟁 그다음에 굉장히 높은 학업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사실 겪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예술하는 학생들이라서 굉장히 감성이 예민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학생들을 돌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현 위원 다 아시겠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예전에는 혼자서 버티다가 극단적 선택도 했는데 최근에는 그나마 아픔을 공개하고 병원도 찾고 상담도 받고 하는 학생들—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수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때 특히 예술이라는 영역이 특수하게 자기와의 경쟁이 더 강한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쟁 시스템이 강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한예종 총장님 그리고 신은향 예술국장님 각별히, 문체부가 소관하고 있는 기관

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 있을 때 더 이상 기댈 언덕 하나 없어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에 관련돼서 신은향 국장님, 종감 때까지 종합지원체계를 만들어 볼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료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리고 예산이 이미 확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예산 갖고는 전문 상담사 쓸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대책도 증액안에 가져와 주십시오. 저희들이 돋도록 그렇게 할게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감사합니다.

○이기현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서영충 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님,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의료관광 굉장히 큰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이기현 위원 23년에 60만이었는데 24년에 1년 만에 117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여기 와서 쓰신 의료비만 해도 1조가 넘습니다. 지금 병원들 굉장히 경영 위기 겪고 있는데 의료관광이 굉장히 큰 선택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알 것입니다.

지역별 의료관광객 수 보시면 서울 편중이 너무 심해요. 85%입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도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지역관광 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부산, 인천 등과 함께 의료관광지역협의체 만들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한번 보여 주실래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더 핀셋화해서 기초단체까지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인구 110만 도시인데 8개의 상급종합병원급의 병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무려 4개나 됩니다. 그리고 국립암센터와 그리고 복지부가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로 특화된 차 종합병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문화예술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1년에 몇십만에서 몇백만 단위의 외국인들이 와서 관람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기초단체까지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이기현 위원 대한민국이 의료관광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는 의료관광지역협의체를 광역 단위에서……

1분만 더 주시지요.

지역 단위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병원 인프라가, 물론 다 모든 지역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특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들이 이렇게 규모의 병원들이 있어도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곳에 문화적 콘텐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도시가 있다고 하면 관광공사는 광역단체 말고 기초단체와도 같이 이러한 전략적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알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 **이기현 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불러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 8개월이 됐는데도 더 이상 답이 없어서 제가 오늘 사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전략적 판단이 의료관광의 전국화 그리고 문화적 콘텐츠와 협업해서 좋은 시너지 역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까 관광공사 사장에 거론되는 모 인사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우종이라는 분 아세요?

○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서영충** 모릅니다.

○ **이기현 위원** 이력서 보신 적 있어요?

○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없습니다.

○ **이기현 위원** 그분이 관광 분야의 전문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장님이 지금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없습니다.

○ **이기현 위원** 그런데 아까 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관련된……

○ **이기현 위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아닙니다.

○ **이기현 위원** 아니시지요?

○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서영충** 특정인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문성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기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모모 선생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장님도 그리고 저희들도 아직 판단할 수 없는 과정에 있습니다.

○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누구 대상으로 한 이야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 **이기현 위원** 사장님 답에 따라서 관광공사 직원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의해 달라 이 말씀 드립니다.

○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알겠습니다.

.....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심오택 위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 연결하겠습니다, 홀덤펍 관련해서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사감위 자료 하면 2024년 불법도박 신고는 527건 그리고 수사 의뢰는 122건, 그런데 25년 7월 말까지는, 7월까지는 211건 중 29건만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 볼게요.

그리고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를 보면 23년에는 6000여 건, 24년도에는 4000여 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신고포상금 수천 건은 지급되는데 실제 수사 의뢰는 수백 건 수준이고요. 신고만 받고 단속이나 수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국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온라인 홀덤펍 채팅방입니다. 홀덤 정보 교류방, 홀덤 특전사, 홀덤 전국 홍보방, 이렇게 링크만 있으면 현금 거래가 오갈 수 있는 불법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하고 계십니까, 모니터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저희들이 불법 온라인 팀이……

○진종오 위원 아니, 관리·감독에만 말씀해 주세요, 하시고 계시는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감시만 하시고 그러면 단속 사항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온라인 사이트는 사이트 차단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차단 의뢰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진종오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NHN이 운영하는 한게임 포커 머니, 머니상 시세표입니다. 이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 이런 사이트가 명백하게 불법 도박 환전 사이트인데 이건 알고 계셨습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저희가……

○진종오 위원 이게 지금 현재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아까 차단 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모르시고 계셨던 거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지금 구체적으로 개개의 사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진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것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진종오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실제로 정직하게 홀덤펍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에게 작년에도 그런 문의가 들어왔었고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감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권한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보다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잡으셔서 보고해 주

시기 바라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구체적으로 방안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또 로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또.

로또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지금 현재는 관련 법령, 규제 법령이 없기 때문에 법령을 마련 중에 있고 아마 국회……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답변이 다르게 가시는데……

로또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없습니다.

○**진종오 위원** 없으시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진종오 위원** 약 814만 개 조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학적, 통계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시중에 AI를 통해서 패턴 추적이다 이러한 광고업체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맞지만 본인들은 과학적으로 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유료결제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발표하는 것 보면 로또 예측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업체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로또 추첨이 끝나면 ‘봐라, 우리가 추첨한 조합이 맞았다’ 이런 식으로 허위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런 사이트 문제가 있겠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이것은 허위광고라고 지적을 했고 이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매년 수백 건이 된다고 합니다. 수십 건이 아니라 수백 건이요.

위원장님, 이런 업체들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일단 사행심은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도 2021년에 한 법제연구원에 의뢰한 보고서를 보면 로또 예측 사이트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진종오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서비스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위원회가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드리고 싶은……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리세요.

○**진종오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로또는 일인당 구매 한도가 얼마일까요, 일인당 구매 한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지금 10만 원입니다.

○ 진종오 위원 10만 원이지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 진종오 위원 최근에 유튜버 하나가 1000만 원어치 로또를 사서 영상에 올려서 어그로(aggro)를 끌었어요. 판매점을 여러 군데 돌면서 10만 원씩 나눠 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로또 판매점만 1600 곳, 10만 원어치만 산다 해도 최소 100곳 이상을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곳 이상 돌아다녔을 것 같습니까, 위원장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글쎄요, 그것……

○ 진종오 위원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1곳에서 10만 원 이상 샀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로또 관련해서 관리 부실이라는 것을 얘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것 또한 조사하셔 가지고 대안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지자체에서 확인 결과 최근 5년간 판매한도 위반한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적발 현장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문제인 거니까 한번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알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마무리 할게요.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교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계원 위원 위원장님, 먼저 좀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교홍 예, 말씀하세요.

○ 조계원 위원 지난번에 종합감사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노관규 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 국감이 아니라 순천시장 감사라고 펼훼하면서 국감 출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미 지난 국감에서도 확인되었고 앞으로 또 국감을 통해서 밝혀내야 될 사안인데 국가예산이 투입된 시설을 함부로 훼손하고 공식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은 김건희를 사주하여 문체부와 문체부장관 등을 동원하여 국가예산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국정농단에 벼금가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관규 시장의 독단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한 주요 시설들이 철거되고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을 방조한 문체부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도 노관규 시장의 증인 출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노관규 시장이 오히려 정당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려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불출석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다시 한번 국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국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29일 종합감사 국감에 증인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관규 시장의 행위는 명백한 국회에 대한 도전 행위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모욕한 오늘의 기자회견을 엄중히 질책하고 29일 국감에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교홍 국정감사는 사감에 의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국정감사가 어떤 특정 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 예산이 투여됐는데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마음대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은 시에서 한다 이런식의 사고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행안위에서 각 지자체 감사는 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시각이다, 그래서 사유서가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은 반드시 국회 우리 문체위에 출석을 해야만 된다, 이것을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처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계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질의, 작년 국감 때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서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활동을 더욱 확대해 가겠다고, 제가 주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하셨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조계원 위원 당시 본 위원이 교육부 기준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또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 320억 원에 달하는 여유 자금 활용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 지켜지고 있나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예방 교육이랄지 치유 서비스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은 사실상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한번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년이 넘었지만 오히려 10대 청소년들이 불법 온라인 카지노라는 끔찍한 늪에 빠져서 끔찍달싹 못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화면을 보시면 2020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도박 중독 관련해서 상담 요청한 10대 청소년 상담 건수는 121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에는 3086건으로 2배 넘게 늘었고 올해 8월까지만 해도 1822건에 달합니다.

다음 표 부탁합니다.

표를 보십시오. 2020년 112건에 불과했던 10대 불법 온라인 카지노 중독 상담 건수가 2024년에 2459건으로 폭증했습니다. 단 4년 만에 22배 가까이 폭등했고요. 올해만 이미 8월까지 156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더구나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2020년에는 10대 도박 상담 중 온라인 카지노 비중이 불과 9%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그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이 말은 10대 도박 중독자 10명 중 8명이 불법 온라인 카지노에 중독됐다는 뜻이고요. 올해 2025년 8월까지의 통계는 그 비중이 86%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사전 예방 교육 강화하겠다는 도돌이표 답변만 하실 겁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조계원 위원 예방도 중요하고요. 보이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불법 온라인 카지노 광고에 대한 선제적 차단과 피해자 상담 치료, 조기 예방 교육 그리고 경찰청과 연계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사전 차단 조치와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해외 서버대행 결재 호스팅을 함께 묶어서 종합적으로 차단하는 체계를 구체화해야만이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계원 위원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다음에 서영충 직무대행님, 베니키아 사업하고 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베니키아 사업은 호텔 체인 사업이고 관광공사가 한국형 브랜드로 육성하려고 했던 사업이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조계원 위원 화면 보여 주시지요.

의도는 거창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하에 국내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베니키아 체인 브랜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2017년에는 63개나 가맹 호텔이 있었는데 지금은 25개에 불과합니다. 탈퇴 러쉬로 지금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네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조계원 위원** 이렇게 탈퇴 비율이 높은 것은 베니키아라는 브랜드를 이용하는 게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탈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사업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베니키아 호텔을 이용한 사용자들의 불만도 인터넷에 보니까 여러 폭주를 해요.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면 20% 할인해 준다고 써 있었는데 현장에서 체크하면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고 또 스위트룸을 선택했는데 아예 인터넷도 안 되고 먼지가 쌓여 있고 곰팡이 등등 이런 불만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1분만 더 주세요.

그러면서도 지금 베니키아와 관련해서는 가입비와 브랜드 사용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서산에 있는 베니키아 호텔은 객실 수가 194개인데 가입비를 객실 수 곱하기 1년에 4만 원하니까 800만 원 가까운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사용료는 조합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베니키아 호텔과 관련해서는 거의 높에 빠진 듯 사업이 정체되고 있고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데 이거 민간으로 이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민간이양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사실은 오래 전부터 민간이양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베니키아 협동조합 내부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맹 호텔들이 계속 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계획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계원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어찌 됐든 내년 9월, 내년 말까지가 브랜드 사용계약 만료로 알고 있는데 3개월 전에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9개월 전까지 조합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청산하는 쪽으로 문체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더 이상..... 이미 지금 7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산도.....

○**조계원 위원** 더 이상 질질 끌지 마시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투입 예산도 연간 5000만 원으로 사실상 손을 뗀 상태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럼 조합에서 지금 돈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가맹비하고는 전부 조합에서 쓰고 있습니다.

- 조계원 위원** 그러면 그 조합에서 지금 민간으로 이양을 책임지는, 담당하는 겁니까?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조합이 인수를 하는 걸로 원래 이야기가 됐다가 조합 내부에 문제가 많으면서 굉장히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계원 위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방안을 정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솔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손솔 위원** GKL 윤두현 대표이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저희 의원실이 카지노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지난주에 국감 때도 장관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설문은 민간 카지노 두 곳과 GKL 이렇게 해서 GKL 노동자 중에 서른여섯 분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PPT 보시면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 경험이 보시는 것과 같아요. 성희롱이 절반이 넘고 신체적 위협, 물건 던짐 이런 것도 절반이 넘게 경험하고 있고요. 성추행도 10명 중에 3명 이상이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카지노라는 공간 자체가 돈을 많이 잃게 되는 곳이고 또 이런 것들을 노동자들이 감정을 다 감당해야 되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우리 공기업인 GKL은 보호조치를 시행한다는 응답이 민간보다 높았습니다. 52.8%로 응답을 주셨는데 다른 민간 카지노보다 높기는 하지만 GKL만 보면 절반은 보호조치가 여전히 없다 이렇게 응답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문화관광연구원의 2023년 감정노동 관련 조사를 저희가 같이 이번에 물어봤는데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만에 강도가 높아졌지요. GKL에서는 2018년부터 원액션 아웃제도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보다 좀 적극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카지노 산업의 특징 중의 하나가 우리 일하는,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원액션 아웃제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29일 날 퍼펙트 케어 매뉴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표준 매뉴얼을 하고 고객들이 와서 혹시 직원들에게 도를 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솔 위원**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고객심의위원회에 노조도 참여해서 노동자의 입장을 보다 더 반영하고 또 피해 직원들의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외 어느 카지노에도 없는 선진적인 제도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손솔 위원 어쨌든 카지노라는 공간이 노동자들이 겪어야 되는 감정노동 수준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게 필요하고요. 공기업이니까 보다 모범적인 그런 지침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자회사 있지 않습니까?

○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예.

○ 손솔 위원 PPT 보여 주시면 저희가 용산점에 방문했거든요. 찍었는데 왼쪽 캐비닛과 오른쪽 캐비닛이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모회사냐 자회사냐의 차이예요.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예.

○ 손솔 위원 근무 시간, 근무 장소, 유니폼 착용도 다 똑같은데 캐비닛 크기가 달라요, 모회사냐 자회사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모회사 직원 휴게실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자회사 직원들은 다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캐비닛, 휴게시설, 어린이집 이용, 복지포인트, 신발장과 같이 복리후생을 다르게 제공하는 건 차별대우 아닙니까?

○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모회사와 자회사는 같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하기에는…… 계정이 분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 손솔 위원 20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이런 복리후생과 관련된 것을 차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고한 바 있어요.

넘겨 주시면 지금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있는지 표로 정리된 것들이 있는데요. 복리후생에 있어서의 차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책 마련하시겠습니까?

○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자회사 복지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저희들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자여서. 그래서……

○ 손솔 위원 코로나 지났으니까요.

○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출연을 하고 모회사와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자회사에게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 손솔 위원 차별이 진짜 사람 마음 후벼파는 거거든요. 꼭 대책 세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GKL에서 청년고용의무제 이행하지 않은 횟수 6회 됩니다. 코로나 때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2023년부터는 할 수 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행이 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GKL이 어느 순간부터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있는 직원이 나이가 많으니까 청년 비율에서 빠지거든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마구 늘릴 수도 없습니다,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가 양적 성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명예퇴직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빈자리가 생기면 젊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손솔 위원 다른 노동자들 자리 뺏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청년고용의무제는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청년고용에 있어서 사업이 어려워서 안 된다는 답변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할 것인지 대책을 더 세우셔야 합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예.

○손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오전 질의에서 지금 관광공사 사장으로 거론되는 이우종이 2017년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왔고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금 알려진 김현지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각종 재판 과정을 총괄하는 가운데 정말 수족같이 행동대장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문체비서관으로 임명된 이동연은 이우종이 경기아트센터사장 시절인 2021년 그 밑에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서로 인연을 또 맺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1대 대선 과정에서 이들 두 사람은 민주당 캠프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총괄하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이동연 씨가 문체비서관으로 임명된 상황에서 이우종까지 아마 문화 관련 직위를 맡게 될 경우에 김현지·이우종·이동연으로 이어지는 문화권력 카르텔이 앞으로 문화예술계를 좌지우지하고 문체부장관은 말 그대로 들러리나 바지사장 역할만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인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 주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동연 문체비서관은 채용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2005년 한예종 특채로 교수가 됐었는데 그 당시의 인사위 회의록을 보면 학문적인 깊이가 부족하다, 또 경쟁했던 다른 분이 더 팬찮다는 그런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답정너 형식으로 이렇게 채용이 됐고요. 특히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때 제출한 경력에 허위 서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문체부의 문화예술교육 TF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추천서 및 필요성에도 관련 분야 경력과 자격을 구비했다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문체부에 확인한 결과 관련 활동 경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예종 총장님, 임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빙서류 이런 것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그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확인을 하고, 법령이나 법규에 따라서 또 절차에 따라서 확인하고 그렇게 저희가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난 문체부 국감 때도 플랫폼창동61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 또 부당한 수입 이런 것 가지고도 지적했었는데 그때 징계도 굉장히 경미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용 과정에서도 허위 공문서 여부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감사를 비롯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언론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

지 언론에 대한 장악 이런 것이 도를 넘고 있다, 언론 재갈 물리기와 장악하려는 검열 이런 것들이 독재정권 시절보다 더 심하다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언중위 제소 건수를 보면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범여권의 제소 건수가 거의 1.6일에 1건 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소된 것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이 각하되거나 또 취소되는, 어떻게 보면 언중위에 여러 가지 업무 부담만 주고 실질적으로 언론에 재갈 물리기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은 소통 강화라는 미명하에 브리핑을 생중계하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 대해서 불편한 질문을 하는 기자들은 답변 안 하고 또 그런 기자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보 언론으로 인식되는 그런 언론조차도 이게 개혁이냐 아니면 언론 길들이기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는 아주 실시간으로 조리돌림의 대상이 되고 있고 기례기라는 그런, 그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JTBC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이 출연한 그 프로그램의 댓글까지 사라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유튜브에 대한 검열도 이게 좌우 공정한 것이 아닌 우파에 편향적으로 더 가혹하게 검열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 직무대행님, 지금 언론중재위야말로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또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하게끔 그렇게 든든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언론중재위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데 악용되는 사례는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언론개혁을 한다고 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처벌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뉴스에 대한 평가·판단기준이 편향적이고 또 그런 편향적인 정치적인 기준에 따라서 실질적인 팩트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언중위에 제소해서 기자들, 언론에 압박하는 그런 사례가 반복될 경우에 당연히 언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언중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중위 직무대행님, 직무대행님께서도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원장직무대행 김성수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정당, 정치인, 공기관에서 조정 신청한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정당별, 언론사별 또는 이념별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했으니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오직 관계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 중재부에서 세심하게 공정하게 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수 위원 언중위 제소와 관계없이도 오전에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언론에 아무 화자도 없는 내용이 정정보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언중위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뉴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냈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언론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제

소하는 사례가 늘면 굉장히 그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는 데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인 대책 같은 것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장직무대행 김성수 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을의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요청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서영충 대행의 입장을 먼저 좀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대행님 거기서 말씀하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 지적이 잘못됐거나 팩트 체크를 하시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공사가 되게 명청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었고요.

사실상 규정처럼 상당히 장기간 동안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들이 그렇게 수백 건 나온 거고요.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 위반 사항이냐 아니면 규정 위반 사항이냐 하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린 것고요. 오전에도 제가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의미 전달이 충분치 않았다면 사과드리고요.

아울러 지난해 지적해 주셨을 때 제가 좀 더 잘 살펴봤어야 됐는데 똑같은 지적을 올해 또 나오게 해 드려서 같이 아울러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질의하시지요.

○배현진 위원 문체부 김정훈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잠깐 기다리시고요.

서영충 대행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기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사과를 하라니까 한다라고 제가 납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법조인들에게도 다 자문을 구해서 하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법상에 수의계약 시 현장실사를 필수로 하라는 법은 없지요, 법에 정함이 없지요. 그렇다면 한국관광공사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2022년 10월 31일에 전자계시 내역으로 이렇게 필수 첨부서류 추가, 현장실사 결과보고서는 필수라고 해서 내규를 정해서 게시했으면 내규를 따라야 되는 거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규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배현진 위원 됐고요.

김정훈 국장님, 문체부 입장에서 이렇게 내규가 있는데 이거 내규 어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허위로 자료를 첨부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위원 현장실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이 상황이, 그동안 이런 비슷한

복마전들이 있었으니까 내규까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규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행의 말씀은 마치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명백한 위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회를 거듭, 거듭해서 드렸거든요. 종감 전까지 입장 을,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정리하지 않으신다면……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국회 중언·감정법의 제14조 위증의 죄를 물어서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서 대행님.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다음 PPT 띄워 주세요.

저희 의원실에서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수의계약 건 없었느냐라고 공사에 다시 질문을 했던 내용을 띄워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부적절 적발 수의계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오신 기관장들이 보셨다시피,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누가 봐도 여성 특혜를 이용한 수십억 원대의 이상한 계약이 쭉 이루어져 왔다라는 의혹이 있지요.

제가 지금 다음 자료 화면을 보여 드릴 텐데요. 특히나 한 여성 대표가 두 업체를 이름만 달리 운영하면서 한국관광공사와 수의계약을 번갈아 맺고 있었습니다. 에이에이치, 오조라는 두 개의 회사인데요. 수의계약을 내규, 지금 서 대행께서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내규상에는 쪼개기 수의계약과 한꺼번에 몰아주는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량제를 두는 내규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켜야겠지요? 이것도 강제하지 않으신다고 할 겁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아닙니다. 지난……

○**배현진 위원** 계속 보고 얘기하세요. 수의계약한 건데요. 견적서를 보시면요 11월 29 일과 11월 30일, 하루 차이로 과업 참여에 대한 견적을 따로 냈는데 다른 회사입니다. 대표는 같은 사람이고요. 얼마까지 했냐 하면 5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5000만 원 이상의, 5000만 원까지 여성 특혜로 수의계약이 비교 견적 없이 가능하다라는 그 규정을 파고들어서 편법으로 했다라는 의혹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발한 건이고 내부 시스템상……

○**배현진 위원** 그런데 왜 부적절 적발이 없다고 저희한테 응답하셨어요? 국정감사 장 난으로 보이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대행께서 모르시면, 지금 관광공사 계속해서 왜 이렇게 엉터리로 돌아가는 거지요?

다음은 총량제 문제에 관한 PPT 보시겠습니다.

관광공사 내규에 분명히 수의계약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서별 수의계약 용역 5회 또는 2억 원을 초과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표는 같고 이름만 다른 두 회사의 건수를 합쳐보면요 2023년만 해도 5건, 2억 3000. 즉 총량제를 위반했지요?

제가 전수조사하고 지금 그중에서 눈에 띠는 거 한두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수두룩해요, 대행님. 관광공사에서 지금 대충 국정감사장에 와 가지고 하루 때우고 감사 문체부에 앓는 소리 해 가지고 넘어가고 하면 되는 겁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총 그렇지 않습니다.

○배현진 위원 국장님, 왜 제대로 감사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늦었지만……

○배현진 위원 기관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늦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사에서 최대한의혹을 풀도록……

○배현진 위원 지금 진행되는 감사가 아니라, 그것도 작년 감사 지금 올해 와서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감사원 감사해야겠지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저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원 감사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문체부가 K-콘텐츠 해서 장관이 300조 달성하겠다고 어찌고 하시면서 지금 국민들, 이거 지금 눈 먼 돈으로 안에서 줄줄 돈 새 나가는지, 기관에 있는 소속원들이 카르텔 만들어 가지고 복마전으로 자기들끼리 돈 빼 나가는지 이것도 하나 감시 못하면서 무슨 예산을 더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겠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지금 문체부 예산 늘려 주려고 노력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똑바로 하시지요. 아까 본인에 대한 특정 감사, 해당 인원에 대한 특정 감사도 동의하셨습니다.

서 대행님, 대행께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특정 감사가 진행되면 본인도 책임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총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종감 전까지 두 분 다 제대로 저희 의원실 및 위원장에게 모두 보고해 주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예.

○배현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감사합니다.

언론재단의 김효재 이사장님,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에 재단 수입이 늘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진흥기금은 한 500억 가까이 되고요.

금년도 사업 예산이나 사업 계획은 더 주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기본적으로 정부출연기금, 언론진흥출연기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박정하 위원 말씀 주신…… 출연기금이 늘어나서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그대로 그 상태로 놔둬도 지금 계획하시는 게 진행이 될 수 있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정하 위원** 어디가 문제예요?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론진흥, 그러니까 정부광고 수수료를 저희들한테 주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상당액을 기재부가 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지원과 진흥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아까 양문석 위원님 지적대로 그게 한 5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국회에서 풀어 주시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언론진흥 기금으로 훨씬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뭐여 있다 이거구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박정하 위원** 알겠습니다.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님 와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박정하 위원**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김효재 이사장님, 앞서 위원장님도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카이데일리 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 만드는 데 언론진흥재단이 광고 나가는 거에 전혀 스크린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구조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스크린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의 권한 밖에 있기 때문에……

○**박정하 위원** 권한 밖이라는 거는 그냥 지정해서 광고가 나가면 언론진흥재단에서는 전혀 할 방법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 지적대로 인천광역시가 스카이데일리에 대한 광고 집행이 제법 많았습니다. 제법 많았는데 많아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인천광역시에다가 ‘광고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 우리 재단이 모든 정부기관에 ‘정부광고를 하시려면 정부광고를 하기 전에 그 기관에 대해서, 그 매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러이러이러한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어보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천시가 그 건수를 묻고 저희들한테 광고 집행과 관련해서……

○**박정하 위원** 아니요, 잠깐 거기까지. 이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인천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그런데 원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렇게 말이 안 되는 기사를 쓰는 매체에 정부광고가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개인적으로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정하 위원**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미디어……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규정으로……
- **박정하 위원**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광고주와 매체 간의 관계에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 **박정하 위원** 미디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잘못된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있는 매체에 정부광고가 집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정하 위원** 대통령께서 지난 7월 29일 날 ‘광고 매체를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으니 검토해 달라’ 이런 지시 있으셨지요?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 **박정하 위원** 지금 계속 작업이 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그 뒤로 8월 18일 날 국무회의 때 정부광고 효과성 제고 방안을 보고를 드렸고요. 그것에 따라서 현재 정부광고주를 대상으로 인식 제고 교육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전달 차원에서……
-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시대에 맞게 광고 매체를 재구성해라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건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 답변을 좀 주시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도 답변 주세요.
-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광고가 집행되는 건에 대해서.
- 2010년에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가짜뉴스라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죄송합니다만……
- **박정하 위원** 당연한 거지.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특정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박정하 위원** 아니, 천안함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게 북의 소행이 아니라 좌초됐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최고 고위공직자가 말을 못 해요? 이게 가짜뉴스예요, 아니예요?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기본적으로는 일반인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 **박정하 위원**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일반인과 공감하고 있다는 거는 가짜뉴스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맞아요?
- ‘2012년도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다’. 가짜뉴스예요, 아니예요?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제가 특정하기에는 좀 죄송한 것 같습니다.
- **박정하 위원** 아니, 이걸 답을 못 주세요?
- 2016년도 ‘세월호가 고의로 침몰됐다’. 이게 가짜뉴스예요, 아니예요? 이것도 답변 못 해요? 2022년 ‘서해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 이게 가짜예요, 진짜예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가짜라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걸 말씀하시라니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는 가짜뉴스에 정부광고 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 그런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쭙는데, 초등학생도 알겠는데 그걸 답을 못 해요? 제가 지금 드렸던 거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왔던 뉴스들이에요. 이런 상황이 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원칙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유의 가짜뉴스에 정부광고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위원님, 정부광고 매체를 선택하는 거는 광고주들이 선택을 하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박정하 위원 아니, 그러면 법을 고쳐야지.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앞서 이사장님 얘기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그래서 광고주분들에게 매체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회선에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금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 그거를 문제부에서 뭘 할 방법이 없어요?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그래서 광고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마지막, 그러면 이런 유의 매체나 팟캐스트에 광고 줄 의향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그것은 광고주들이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짜뉴스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제공을 해서 광고주들이 합리적인 선택하도록 돋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 자리에 계시려면 소신 있게 좀 하세요. 그게 뭐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임 간사님 안 하셨나?

경기 광명시갑의 임오경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주질의에 앞서 조금 마지막 부분 이어 나가겠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의 전 이사장이었던 표완수 이사장,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내부감사 통계조작 없음으로 나왔고 경찰 수사도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벼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사 두 사람에게 저는 반드시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임원 간의 분쟁을 일으킨 유병철 이사, 업추비 흥청망청 회계 부정한 남정호 이사, 이 두 사람이 이제는 책임지고 나가야 될 때인데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제가 주질의에서 임성환 국장에게 또 김효재 이사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해임건의안 이사회에 제출하십시오, 반드시.

이것은 정확한 명백한 팩트를 제가 체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이사장이었던 표완수 이사장에게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징계 요청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정확한 제가 답변을 드렸으니까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김교홍 위원장님도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작년 국감장에서 제가 김건희 씨의 황제대관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렇지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 **임오경 위원** 대관 신청 자격도 없는 시민단체에게는 프레스센터 대강의실까지 열어줬고 사용일 3주 전 대관 신청 규칙까지 어겨 가면서 당일 신청, 당일 대관을 해 줬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셨지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 **임오경 위원** 그것은 정치적 행사가 아니어서 그렇게 특혜까지 베푼 것이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대관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을 내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임오경 위원** 대강의실을 열어 줬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 **임오경 위원** 자꾸 말을 바꿔서 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갖다 하는 겁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 **임오경 위원** 언론재단은 작년 이태원 참사 회견을 정치적 이슈 행사로 분류해서 불허했고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기자회견의 경우 행사 하루 전 대관 취소 통보를 하여서 국감 직후 언론진흥재단은 사무감사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 **임오경 위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 기자회견은 허용한 것처럼 정치 성향이 뚜렷한 행사들은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니요’로 답변하세요.

그렇지요? 허용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전체 행사의……

○ **임오경 위원** ‘허용하셨지요?’라고 물었습니다. 허용하셨지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아니 그것을……

○ **임오경 위원** 간단하게 그냥 답변하세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 **임오경 위원** 또 하루 전 대관 취소 통보를 하였던 국감 직후 언론진홍재단은 사무감사까지 받았던 것 제가 말씀드렸고, 박근혜 정부 기자회견은 허용한 것처럼 정치 성향이 뚜렷했음에도 허용을 했습니다.

더욱 더 가관인 것은 2024년 11월 18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극우의 상징인 전광훈, 목사 맞습니까?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상당히 언짢아하시던데, 목사님이라고 불리야 됩니까?

전광훈 목사가 등장한 자유일보 행사에는 대관을 허가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행보 아니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 **한국언론진홍재단 이사장 김효재**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 **임오경 위원** 정치적 성향 아니었습니까, 정치적 발언 아니었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정치적 발언이었습니까? 아니, 정치적 발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 **한국언론진홍재단 이사장 김효재** 아니, 먼저 사과부터 드리려고……

○ **임오경 위원** 아니, 정치적 발언, 그러니까 사과는 나중에……

○ **한국언론진홍재단 이사장 김효재** 정정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임오경 위원** 아니, 이것은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하십시오. 사과를 하시더라도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 **한국언론진홍재단 이사장 김효재** 예.

○ **임오경 위원** 정치적 발언 맞습니까, 아니었습니까?

○ **한국언론진홍재단 이사장 김효재** 그런 것들은 정치적 발언입니다.

○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 **한국언론진홍재단 이사장 김효재** 예.

○ **임오경 위원** 이재명 대통령 5000년 단군 아래 제일 악한 X, 욕설이 나오고 대한민국 망신의 주범은 한동훈이다, 참석자들이 전광훈 만세를 외치고 있어요. 이게 정치적 행보 아니면……

이것 사전에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한국언론진홍재단 이사장 김효재** 제가……

○ **임오경 위원**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시국선언 기자회견은 사전에 검토했다고 그래서 검토를 해 봤더니 정치적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불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취소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나오는 것은 왜 사전에 검토 안 하셨습니까?

○ **한국언론진홍재단 이사장 김효재** 행사 주체가 전광훈……

○ **임오경 위원** 이거 직무유기 맞지요?

○ **한국언론진홍재단 이사장 김효재** 전광훈 목사가 아니었는데요.

○ **임오경 위원** 아니었지요?

예, 맞습니다. 아니었어요. 언론 관련 단체가 등록을 해서 했지요. 하지만 사전에 검토를 항상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국선언하는 단체들은 다 불허를 해서 당일 날 취소를 했고, 그런데 여기는 왜 안 했냐고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건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 정부 3년간 극우 성향 단체에 지원된 금

액만 2억 5000만 원입니다.

단체 지원 사업의 심사 과정은 또 어땠는지 아세요? 저 진짜 이렇게 기가 막힌 심사는 처음 봅니다. 자료를 보면 서면 심사기간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12일까지 주어져요.

1분만 더 쓸게요.

확인해 보니까 이 기간 동안 심사위원들은 이메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심사한 뒤 점수표를 이메일로 회신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임오경 위원** 워낙 방대하다고 이메일로 보내서 심사를 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날 바로……

○**임오경 위원** 그리고 이메일로 사인을 받아서 다시 회신을 받아서 선정합니까? 그리고 정부 예산이 나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임오경 위원** 능력이 없으시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급하게……

○**임오경 위원**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자리에서 심사하기에는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이어서……

○**임오경 위원** 아니, 어떻게 국가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이메일로 재택심사를 해서 서면 심사 후 의결을 해서 이메일로 다시 사인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시켜요, 선정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이런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임성환 국장님, 일어서 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 한 게 아니고요. 워낙 방대한……

○**임오경 위원** 아니,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임오경 위원** 잘못된 것을 그대로 하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해 보세요, 임성환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답변하실 거예요?

임성환 국장님, 일단 답변하시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저희들의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임오경 위원** 임성환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까 이 문제는……

○**임오경 위원** 아니, 잠깐, 임성환 국장님, 2억 5000만 원이 나가는 이 심사 기준에 있어서 이메일로 재택심사하고 서면심사 의결을 해서 사인 받아서 이메일로 받아서 이렇게

2억 얼마씩이 나가고 있는데, 극우 성향 단체한테 나갔는데 이게 지금 맞다라고 문체부에서는 지금 다 승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아마 이메일로 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오경 위원 추가적 보완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일단 이메일이나 그걸로만 만약에 결정을 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확인 작업이 있었다면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 바로 내부감사 들어가십시오. 이메일로 사인까지 해서 바로 회신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차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감사 바로 들어가십시오, 이것.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임오경 위원 그리고 종감 때까지 저한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효재 이사장님, 방금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고 하는데 한번 해 보십시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오전에 임오경 위원님이 자유일보,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전광훈 목사가 연사로 참여한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행사 도중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제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제지했다고 그러면 그 행사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들한테 내린 지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보고를 마치고 나중에 들어 보니 그 행사는 끝까지 진행되었다는 임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답변을 정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것은 위원장도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위증을 하신 거예요.

이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는데요. 이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기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이기현 위원 아까 제가 언론진흥재단에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준비 빨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진흥재단에요.

그리고 지금 극우 단체라고 불리워지는 단체들의 대관 심사와 관련돼서 자료 양이 너무 방대해서 심사를 이메일로밖에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8건이라고 하셨지요? 8건 이메일로 제출한 양 자료도 같이 보내 주십시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그 자료가 방대하다는 것은 행사 관련이 아니고요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그 자료를 얘기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 관련 자료는 그렇게 방대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냥 신청서 1장입니다.

○이기현 위원 신청서 1장이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여기서 처음에 작년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토론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방대하다고 하는 자료도 한번 보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볼게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민형배 위원부터 질의하시는 데, 아까 양문석 위원이 얘기했던 언론진흥재단의 김도인 광고본부장이 지금 배석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형배 위원 KTV,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순으로 할게요.

이찬구 원장님, 12·3 내란 옳습니까, 아닙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

○민형배 위원 대답 안 하십니까?

KTV가 그동안 내란 동조행위 많이 했다고 혼 많이 나셨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서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감사결과 보고 나서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정말 감사를 그냥 그만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광주 MBC가 80년 5월에 보도 제대로 안 했다고 불탔습니다. 시민들이 불탔어요. 그런데 60년 만에 사장이 직접 저렇게 ‘당시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5월 영령과 광주시민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죄드립니다’.

사과문하고 사과방송 내용 준비하셔서 종감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아셨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민형배 위원 딴소리하지 마시고. 사과를 하겠다고 그래 놓고 왜 사과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구용 원장님, 제가 조금 아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예.

○민형배 위원 어떻게 그런 용어들을, 기본적인 용어들이 잘 안 돼서……

사용권이 아니고, 이용권이 아니고 소유권인 줄 알고 전자책을 샀는데 그게 아니더라 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그게 싸지도 않다는 거예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예.

○민형배 위원 비싸다는 거예요. 특히 외국과 비교해 보니까 더 비싸요.

그런데 이게 사용권, 이용권입니다. 소유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플랫폼이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예.

○민형배 위원 거기다가 해외하고 비교 한번 해 볼게요. 봐 보세요.

‘사탄탱고’라고 이 작품 아시지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예.

○민형배 위원 노벨문학상 받았잖아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게 전자책이 우리나라에서는 77.4%, 가격이 그래요. 미국 아마존에서는 62.6%예요.

하나 더 볼까요?

‘소년이 온다’ 한번 봐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88.9%나 받아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예.

○민형배 위원 종이책하고 전자책 비교한 겁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예.

○민형배 위원 아마존에서는 63.6%예요.

괜찮습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미국 아마존의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민형배 위원 아니, 왜 우리는 그러지 않냐고요. 제가 그러니까 묻잖아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지금 도서정가제로 인해서 그것을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형배 위원 이게 소비자들에게 거의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소유권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사용권이야, 이용권이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그것을 묻는데 자꾸 그냥 벼벽대고 그러시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처음에 제가 바로 잘 못 알아들어서……

○민형배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형배 위원 그거 방안 마련해 가지고 종감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예.

○민형배 위원 심오택 위원장님, 14일……

지난 14일에 파라과이 축구전, 축구경기 보셨습니까, 파라과이전?

어디 계세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저는 못 봤습니다.

○민형배 위원 못 보셨어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민형배 위원 거기가 17년 만에 관중이 제일 적게 왔답니다.

사람들 경기장하고 어디서 축구 보고 있었을까요?

저것 한번 봐 보세요.

어디서 봤을까요? 저렇게 안 봤는데 어디서 봤을까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

○민형배 위원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

○민형배 위원 쿠팡플레이라고 아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민형배 위원 중계했습니다. 저것 봐 보세요, 저렇게 중계했어요.

그런데 이것 중계하는 곳이 아니에요. 불법 도박 사이트거든요.

알고 계셨습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

○민형배 위원 모르셨어요?

이렇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이 도박장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무료 스포츠중계 사이트라고 딱 만들어서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저희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굉장히 많다는 것은 지금 알고 있고 저희들 감시팀에서도 온라인 이쪽을 중점적으로 지금 감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저렇게 많이 판을 칩니다? 이게 SNS에다가 광고한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사이트 중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거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그냥 두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형배 위원 단속률이 3년 전에 17.9%였는데 올해 4.7%까지 떨어졌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 오히려 떨어집니까? 더 높아져야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현재 수사 의뢰랄지 이쪽을 하는 것은 상당히 체중을 저희들이 해서 수사를.....

○민형배 위원 그런데 차단률도 73%에서 45%로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그래서 앞으로 체중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를 하고 지금 사이트.....

○민형배 위원 피해가 대폭 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어떻게 보면 사이트를 지금 저희들이 중단 의뢰를 해서 하는데.....

○민형배 위원 대책이 뭔지 여쭙습니다, 대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이 부분이 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따 보충할게요. 안 되겠네요.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관광공사 서영충 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지난 8월 21일 문체위 결산 의결 당시에 해당 관광공사 임원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해서 엄중히 다루어 달라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조은희 위원** 이 임원은 올해 6월에 해외 초호화 멤버십 유홍업소에 출입해서 접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유홍업소는 조직적인 성매매 알선과 불법 접객 행위가 자행되는 곳으로 현지에서 은밀한 부자들의 성매매 아지트로 불러지는 곳입니다.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 현지 여행사 교민 인사 등과의 부적절한 접촉, 뇌물성 접대 의혹도 있습니다. 공사 측에 확인해 보니 당사자를 한 번 불러 조사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조사 제대로 한 것 맞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하나만 바로잡겠습니다. 임원은 아니고 그냥 간부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 날.....

○**조은희 위원** 임원이 아니고 간부면 이 죄질이 더 적어지는 겁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임원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서 임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누군지 좀 밝혀 주실래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임원 저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 예, 그런 측면이라면.

그런데 조사 제대로 한 것 맞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조은희 위원** 알고 있다니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감사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결과 언제 나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9월에 실지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감사법상 2개월 내 결과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11월 중순 이전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11월 중순에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조은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하고 더 안 했는데요.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

시고 부실 감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언론중재위 김성수 직무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언론중재위원장직무대행 김성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잠깐 좀 커트해 주시고요.

거기 있으면 제가 안 보이니까 여기로 나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했는데 언론재갈법이라 비판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 반대를 했습니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역사적으로 거짓 정보의 근원은 정치권력이었다. 누가 누구를 개혁하는가?’ 이렇게 경고하기까지 했는데요. 대행님은 윤 교수 지적대로 가짜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부승찬 의원의 가짜뉴스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악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언론중재위원장직무대행 김성수** 예.

○**조은희 위원** 화면 한번 보시지요.

부승찬 의원이 유튜브에서 송출한 내용만 가지고……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밀 4인 회동을 했다면서 온갖 가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노컷뉴스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이 이를 비판했는데요. 마치 제2의 청담동 술자리 거짓 공작을 연상케 합니다.

직무대리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악의가 명백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장직무대행 김성수** 동의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박정하 간사님도 얘기하셨는데 김어준 씨의 미디어권력에서 비롯되는 가짜뉴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의 과상언 의원이 김어준 씨로 상징되는 유튜브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2주 전에 뉴스토마토 기사에서도 개딸에 휘둘리는 민주당 정점에 김어준이 있다고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무대리님,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이 119명인데요. 정청래 대표도 전당 대회 이후 가장 먼저 출연한 곳이 바로 김어준 유튜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취지를 밝혔는데요.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과급되는 가짜뉴스부터 연구 분석해서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중재위원장직무대행 김성수** 위원님 지적대로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악의적이고 아주 허위 조작해서 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가 구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각종 제보가 독자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 가짜뉴스 분야의 경우에는 정말 세심하고 아주 공정하게 심리 조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희들은 조정 대상이 됐을 때 심리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구체적인 대책을 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장직무대행 김성수 예, 저희들이 연구센터도 새로 생기고 했으니까 연구해서, 검토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갑의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광고본부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스카이데일리 정부광고와 관련해 가지고 김효재 이사장이 예를 들면 인천시청에 ‘광고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정부광고법 제6조에 정부광고 매체의 선정은 광고주의 의사를 우선하게……

○양문석 위원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정리하시는 거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그것보다는 저희가……

○양문석 위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지금 법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양문석 위원 지금 법상으로 할 수 없어요? 신문법 제1조가 뭐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신문법 제1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은 업체의 자율심의기구의 결정 이런 부분들을 광고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신문법 제1조가요 목적이에요. 신문법 제1조 읽어 드릴게요, 신문·인터넷 신문 및 뉴스통신의 자유와 책임을 보장하고 공정한 언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론재단은 무슨 법에 들어가 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신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39조·40조에 들어가 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예.

○양문석 위원 그러면 신문법으로부터, 언론재단은 신문법 제1조의 목적과 상관없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문석 위원 두 번째, 광고하고 나서 사후에 성과 평가하지요? 해야 되지요, 언론재단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지금……

○양문석 위원 성과 평가해야 돼요, 안 해요? 법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정부광고법에 따르면……

○양문석 위원 아니……

○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신문 광고주의 예산으로 광고 효과를 분석하게 돼 있습니다.

○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광고 매체의 효과 성 제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효과 분석을 대폭 강화할 생각입니다.

○ **양문석 위원** 대폭 강화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법적으로 성과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정부광고법에도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정부광고법에 광고주의 예산으로 하게 돼 있는 부분이……

○ **양문석 위원** 아니,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과 그다음에 사후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동안 안 해서 그렇지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양문석 위원** 마지막으로, 그래서 ‘광고를 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동안에 언론재단이 안 했던 부분이지 법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권유하고 권고하고 연속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광고 제작자 심사위원회 누가 심사위원 구성해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심사위원 풀 관리는 저희 경영본부의 경영지원팀에서 하는데 그다음에 이 명단에서 실제 해 보니까 이분이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 **양문석 위원** 누가 심사위원 선정을 해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그런 부분들은 광고본부의 각 팀에서 이분들은 뺐으면 좋겠다, 이분은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양문석 위원** 지난번에 23년 명단 유출됐지요?

○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그것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저는……

○ **양문석 위원** 잠깐만요. 명단 유출됐을 때 그 직원 그리고 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단 제출하시고 그리고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심사위원을 선정했는지의 근거를 제출하시고, 그걸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광고를 제작하는 비용이 1000억이에요. 그 1000억을 컨트롤하는데 직원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했으면 그 심사위원을 구성한 사람이 훌렸거나 안 그러면 보고를 받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고본부장이 훌렸거나 안 그러면 또 보고를 받은 경영본부장이 훌렸거나 안 그러면 이 사장이 훌렸거나 너무 뚜렷한 경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조사에도 협조 안하고, 그러면 그 명단들을 다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떤 이유로 그 당시 심사위원을 선정했는지 그것과 관련된 원본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줄 수 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회의록이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있으면 당연히 제출할 것이고요.

○양문석 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돈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회의록이 없으면 그것은 도둑놈들이지 도둑놈 소굴이지 범죄 집단이지 그렇게 국민들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양 위원님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내부의 조사……

○양문석 위원 이사장님한테 안 물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문석 위원 이사장님한테 안 물었어요. 이사장님 이제까지 계속해서 엉뚱한 이야기만 했었잖아요. 언론재단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제까지 행사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법에서 이야기했던 성과 평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에 대해서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스카이데일리와 같은 그런 괴물들을 만들어 준 그 책임이 이사장님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이사장님이 뭘 잘했다고 그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요?

광고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예, 저희는 하나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숨길 것 없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예.

○양문석 위원 그런데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제가 책임질 게 있으면 지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 도둑놈이 와 가지고 명단을 훔쳐 갔어요, 해킹 당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그 명단은, 아까 양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단을 저는 처음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 담당 관리하는 광고기획국이라고 있습니다. 광고기획국장 그다음에 여러 팀장들에게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처음 보는 내용이라고……

○양문석 위원 그러면 어느 놈이 그 명단을 갖다가 유출했다는 말이에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그러니까 2023년도에 작성된 명단이라고 하는데 그 명단에 있는 사람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저희 심사위원 풀에 없습니다. 한 분이 계신데……

○양문석 위원 그러면 더 불법이네!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아니요, 아마 위원님께 그 명단을 제시……

○양문석 위원 그 법은 18년에 제정된 법인데?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위원님께 그 명단을 드린 분이나 아니면 그 기자에게 드린 분이 잘못된 정보를 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장난침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양문석 위원** 여러분들의 조사보고서에 다 나오는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도 장난을 치네, 거짓말을 하시고?

박정하 위원님 무서워서 더 이상 이야기 못 하겠는데요. 지금 거짓말하고 장난치고 그리고 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조차도 허위 조작했다고 이야기하고…… 다 따져 봅시다.

박정하 위원님 이 정도하면 되겠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아까 충청투데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닙니다.

○**양문석 위원** 그만하세요!

.....

○**위원장 김교홍** 김효재 이사장님하고 광고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앞에서 회의를 주재하다 보면 정말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어디까지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지금 광고본부장님은 그래도 광고의 효과나 광고…… 아무리 정부에서 광고주가 되더라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본부장님? 아까 뉴앙스가 그렇던데,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저희가 광고주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렇지. 주게 돼 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예.

○**위원장 김교홍** 쫌어요? 안 쫌다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연간 광고 건수가 25만 건이 넘습니다. 다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요청이 들어올 때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장 김교홍** 아니, 스카이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광고가 나가는 데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광고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뒷짐 지고 있었다 이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없는 거지.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그때 스카이데일리가 5·18 펐훼 논란이 있었을 때……

○**위원장 김교홍** 5·18뿐만이 아니야.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저희도 그때 자자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기현 위원** 그런데도 광고가 9억씩이나 나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그리고 저희가 이게 어떤 부분들은 모든 매체의 광고 현황이 대부분……

○**위원장 김교홍** 본부장님, 스카이데일리뿐만 아니라 정부라고 하는 광고주들, 특히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의 성향에 따라서 방송이나 언론도 막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광고를 가지고 논조를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예.

○**위원장 김교홍** 지금 그렇게 해 왔잖아요. MBC, SBS 이런 데는 아예…… MBC는

2023년, 2024년 다 제로 건이에요, 정부광고. SBS는 24년도에 광고 안 나갔어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언론진흥재단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되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교홍** 아니, 정부광고라는 게 지자체의 장의 성향에 따라서 막 해 줘도 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정부광고법에 돼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개선을 이야기하기 전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부터 하고 개선을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김효재 이사장님, 정부광고가 정말 잘못됐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시스템을 깔아서 제대로 광고가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을 종합감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들어가세요.

다음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한예종 총장님, 한예종이 아마 문화예술계의 여러 학구나 이런 코스 중에서는 가장 A급으로 돼 있고 예술인의 요람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감사합니다.

○**정연욱 위원** 하지만 여러 차례 많이 지적은 받았지만 학사 운영이나 전반적으로 교원들에 대한 관리실태를 보면 과연 도덕적 기반은 무너지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저희가 직접 징계 교원, 최근 10년간에 징계받은 교수 총 숫자를 자료 요청을 했지요? 거기 전부 총 열다섯 분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열 분이 그대로 학교에 남아 계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67%가 해당이 됩니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구절절 또 설명하시겠지만 이 자체가 과연 정상적인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박근형 교수라고 이분은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지요? 이미 여러 수강생들과 음주 과정에서 성추행 논란을 빚었고 작년 8월 달에 정직 3개월 조치를 하고 끝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언론 보도가 터지면서 잡자기 징계위원회 다시 연 건지, 자체조사를 추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해임 조치로 갔지요? 이게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저도 이게 궁금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연욱 위원** 그것은 나중에 일괄해서 답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또 다른, 학생들이 이미 공동대책위를 만들어서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충분히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지만 학교가 처음에 3개월로 그냥 통치고 넘어갔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성비위 사건은 계속 있었지요? 또 다른 김태웅 교수라는 분은 극작가

교수를 하시면서 수업 행위 자체가 좀 부적절했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극작가권리보호위원회도 공개적으로 학교 다시 복귀하는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성명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제가 일일이 수업기간 내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나왔지만. 김태웅 교수도 과거에 이미 징계를 한 번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분이 또 주의 조치로 종결이 됐고 다시 강단을 맡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은 예술적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가 이렇게 누적이 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1분만 더.....

과연 정상적인 절차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피해 학생은 결국 학교를 떠나 버리고 어떤 형태로든 가해를 했던 가해 교수는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는 학교면 한예종이라는 이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유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최소한의 도덕적 기반..... 법적인 문제를 지금 굳이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도덕적 기반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어렵다 얘기하기에는, 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신뢰가 무너지면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피해자 중심의 시스템,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점검과 교육, 징계자 재임용 금지 등 뭔가 단호한 조치가 없이 한예종의 이름 하나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입장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저는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번에 사실 총장 선거로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학교가 지금 6개 원이 3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떤 실질적인 예술적 성과를 많이 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과 그다음에 정연욱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뼈 아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 학교에 대한 어떤 비난이라기보다도 우리 학교가 정말 건강하고 내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학교로 탈바꿈하고 더욱 한 단계 성숙하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각인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가 내적으로는 이런 학생들의 인권이라든지 또는 학교 안에서 소외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선을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좀 더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밖으로서의 어떤 화려함과 이런 성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하고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우리가 눈감아 왔던 또는 우리가 회피해 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한 단계 내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국립학교로서의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이하 우리 모든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또 격려와 때로는 질책을 하셔서 저희 학교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학교로 나아가게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내부에서도 더 철저히 작성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무관용의 원칙을 더욱 더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 병의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이기현입니다.

이구용 출판진흥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저쪽으로 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지역서점 없는 곳 6곳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예.

○ **이기현 위원** 1곳만 남은 곳도 21곳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기현 위원** 22년도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22년도에도 소멸지역이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군데는 이번에 여섯 군데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청송군, 봉화군, 울릉군, 의령군 등이 그런 지역입니다.

영세 서점 같은 경우는 절반이, 한 49.5% 정도가 연매출 1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하는 지역서점 문화프로그램을 하면 일정 정도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서점이 내는 자부담 비율이 오히려 50%대에서 68%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도 알고 계시지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예,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현 위원** 지역서점 인증제를 하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인증제에 참여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원도 변변치 않고 진흥원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22년도에는 77%였던 인증제 참여 비율이 24년도에는 68%까지 떨어집니다. 이 문제도 알고 계시지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예.

○ **이기현 위원** 지역서점 지원과 홍보의 기반이 이렇게 큰 적신호가 올려져 있는 겁니다.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불균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자고 하면 우리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전국 지자체의 약 27.7%가 서점이 없습니다. 일본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책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데 일본이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유형 서점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서점 내, 작은 서점 내에 일부 칸을 출판사가 대여하고 그 칸 수만큼, 그 면적만큼 임대료를 지급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대형 출판사들이 출판유통회사를 크게 설립해 가지고 출판유통에 지역서점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리브리(Libri)라고 하는 출판 도매기업이 독일 한가운데 중심에서 유통이 용이하도록 큰 센터를 지어 놓고, 물류센터를 지어 놓고 소매점에 익일 배송해서 소매점이라 하더라도 작은 책자들이 보급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외국의 사례까지 좀 검토하셔서, 지역서점이 이제 더 이상 사라진다고 하면…… 문화강국으로 가면 뭐 합니까. 책 읽지 않는 나라가 돼 버리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인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꼭 좀 챙겨서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기현 위원 예, 짧게 하시지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이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또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 대책을 모색하고 있고 그중에서 동네 책방,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책 읽기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양한 행사를 지역에 있는 작은 서점에서 많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독서율을 높이고 책을 더 많이 읽는 그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동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기현 위원 거기에 지원금을 주셨는데 그 지원금이 이제 서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니까요. 서점의 자부담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걸 제가 질의 시간에 드렸던 것 아닙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예, 그 자부담률은 대신에 공동수배송이라는 좀 더 유통 전반에 걸쳐서 출판계를 지원하다 보니까 자부담률이 좀 높아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좋은 해외 사례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 잘 참고해서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기현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2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관광공사 직무대행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진종오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감사합니다.

○진종오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관광공사가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관광시설의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진종오 위원**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건데 이 취지와 목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도 예산은 반대로 줄어들고 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진종오 위원** KB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 수는 1546만 명, 국민 3명 중 1명 꼴인 겁니다. 그리고 반려인 10명 중 7명은 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과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예산을 보시면 23년도에는 10억 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5억 원, 26년도에는 예산 전액 삭감 그리고 문체부 예산도 9억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게 왜 삭감됐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특별한 이유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특별한 이유를 알지 못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관광공사에서 나온 정책인데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공모 6개 도시, 신규 도시 공모계획도 없고 기존 도시도 지원이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공사에서 제시한 정책이 그냥 무늬만 있는 정책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기존에 선정된 도시는 아마 지속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는 아직까지는 계획상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종오 위원** 예산이 아예 없으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권장 사항에 그치고 있고 위생이나 안전기준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이면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 소재는 누가 지는 겁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가이드라인은 사실은 관련 업계에서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권고형으로 만든 거고요.

○**진종오 위원** 그러면 공사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강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관련 시설들이 대부분 초기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진종오 위원** 수정하실 의지는 있으신 거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제가 제안드리는 이유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 관광객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됩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일반 관광객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물론 반려동물 때문에 이견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예산도 다시 짜야 되고 제도 또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 방법 생각하신 거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문체부와 협의해서 관련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법제화를 추진해서라도,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관련 진행 사항 어떻게 되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의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김정훈 관광정책국장님, 앞에서 베니키아 체인호텔 관련해서 문제점들 지적한 거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예, 위원님.

○**조계원 위원** 문체부에서 성과관리제 평가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성과가 많이 낮은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9년까지만 추진하고 사실상 성과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손 뗀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조계원 위원**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어쨌든 국민 혈세가 많건 적건 계속 투입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예.

○**조계원 위원** 아까 얘기 들으셨지요? 올해 안에 정리, 베니키아 체인호텔 문제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에서도 관련 정리 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계원 위원** 윤두현 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21대 국회의원을 하셨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예.

○**조계원 위원** 22대 총선은 불출마하셨네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예.

○**조계원 위원** 친윤 멤버 조지연 의원님의 단수 공천이 당시 이루어졌었는데 이후에 GKL 사장직에 공모하였고 24년 12월 2일, 계엄 하루 전날 임명되셨네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예.

○**조계원 위원** 이걸 예정하고 그만두신 겁니까? GKL 사장직 이걸 예정하고 출마하셨냐고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닙니다.

○**조계원 위원** 그건 아닌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YTN에서 근무하셨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예.

○조계원 위원 2008년 2월에 이명박 정권 당시에 표완수 YTN 사장은 윤두현을 YTN 정치부장 시키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하는데 알고 있나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조계원 위원 표완수 사장은 당시 거절을 했는데 이후 MB 정부에서 사찰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도 모르고 있나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예.

○조계원 위원 당시 그런데 왜 YTN 노조는 2012년 공정방송을 저해하는 YTN 5적의 한 명으로 윤두현 사장님을 지정했을까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그것은 노조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른바 공정은 양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조계원 위원 이파가 다시 또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친윤 멤버에게 22대 총선 자리를 양보하고 보은 인사로, 그것도 계엄 하루 전날 GKL 사장으로 임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파 답변해 주시고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GKL이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업 청렴도 평가 역시 4등급으로 매년 하락 추세를 거듭하고 있고요. 이렇게 절벽 끝에 매달린 GKL에 전문성도 없는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으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카지노 업계의 경력이나 연고도 없는 정치인이 위기에 있는 GKL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적 행위가 있는지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GKL 카지노 광고 유튜브 영상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예.

○조계원 위원 카지노 게임 바카라까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영상이던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PPT 띠워 주세요.

저렇게 영상에 바카라를, 어떻게 도박을 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건 청소년도 다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이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예.

○조계원 위원 다음 영상 부탁합니다.

이 영상을 게시한 계정을 보면 GKL 홍보팀 계정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GKL이 이런 사행성 광고는 해서는 안 되는,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광고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예, 사행성 광고는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거 시정하시고요. 아까 제가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본인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일단 저 홍보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광공사 그리고 관광협회중앙회 등과 협력해서 이른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딜러라는 직업을 소개하면서 그게 나왔는데 그것이 혹시 볼 때는 카지노 광고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신다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계원 위원 바카라 도박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영상은 일부러 안 보였는데 그런 바카라 도박까지 청소년들한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얘기한 거 못 들었습니까? 청소년들이 손 안의 카지노에 휘둘려 있다고, 온라인 도박에 휘둘려 있는 상황 모르고 있습니까? 이것 신경 쓰셔야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예. 그리고 GKL이 D등급이 지난해에 나왔고 청렴도 평가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전임 사장 때 일어난 일인데 올해 평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카지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와서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은 개개인 하나하나 카지노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나아갈 바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가.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무게가 실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사도 경영을 해 봤고 케이블TV 협회 운영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보다 많은 무게를 두고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 걸맞은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상세한 세세적인 것은 일선에 있는 본부장, 실·점장과 협력해서 일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GKL은 지금까지 독과점 시장에서 안주하던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는 영업이 아니라 기다리는 영업에 익숙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GKL이 타파해야 될 가장 큰 문제고 다시 말해서 GKL은 변화와 혁신이 당면 과제だ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정리를 해 주시지요.

○조계원 위원 그러면 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와 같은 낙제점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GKL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환경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독과점 시장에 익숙한 그 문화에 젖어서 경쟁시장에서 찾아 나서지 않고 기다리고 그다음 개인 중심의 카지노 관광에서 가족 관광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함께해 나갈 때 GKL이 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계원 위원 본인의 인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예.

○조계원 위원 알박기 인사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인사는 인사추천위원회가 6월 20일인가 구성이 되고 7월 8일부터 첫 회의를 하는 등 절차가 밟아 왔고요. 그리고 12월 2일 인사가 빨라서 그

령게 된 게 아니라 예정과 정상적인 기간보다 석 달이 늦어졌습니다. 정상적이었으면 전임 사장의 임기는 8월 31일입니다.

9월 1일부터 제 임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석 달이 늦어진 12월 2일에 됐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정리해 주십시오,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예.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성이 확인되면 그만두실 의향 있습니까? 그만두셔야겠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는 일을 전제로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조계원 위원 그게 발견되면 그만두시겠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발견되면 그만두시겠습니까?

○박정하 위원 이게 사실상 추가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리 좀 해 주시는 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아니, 그것은 법에 따라서 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솔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솔 위원 문체부 산하 방송 3사에 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KTV에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어통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리랑TV에서도 새겨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아리랑TV에 수어통역 관련 예산이 0입니다. 내국인 농인 시청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수어통역이 없는 상황이고요. 국악방송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단 하나의 다큐멘터리에서만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수어통역 제공하고 있는 곳이 KTV입니다.

그런데 다만 수어통역을 외주 용역에 맡기다 보니까 매년 용역업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수어통역사들의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뜻할 텐데요. 고용이 불안정하니 수어통역사들이 투잡, 쓰리잡을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역 품질에 대한 불만도 많이 생기거든요.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수어사용자 71.2%가 방송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품질 향상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수어통역 품질 개선되려면 두 가지 해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수어통역사 고용안정 문제 꼭 해결되어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한국 수어를 잘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사를 하나 보여 드리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에서 사용되는 수어통역이 농인이 사용하는 고유 언어인 한국 수어가 아니고 한국어를 번역하는 방식의 수어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해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인 수어통역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체부에서도 농인 수어통역사 양성 사업을 이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가려고 하는데요. 공공부문이어서 예산이 묶여 있어서 어렵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부 산하 방송사부터 수어통역 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KTV에서 또 다른 데서도 꼭 들어 주시기 바라는데, 수어통역사 고용안정 문제 그리고 농인 통역사 우선 채용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국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말씀을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실 것 있으십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지금 현재 저희 KTV에서 장애인방송 관련해서 폐쇄자막 그다음에 수어 그다음에 화면해설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9억 원 정도로 미미한데 그중에 수어는 본예산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 1억 2000만 원을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조달청 제한경쟁입찰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1억 1000만 원 수준에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이 용역업체들은 전문업체가 아니고 그냥 일반용역업체……

○**손솔 위원**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 예산이 확보된다면 당연히……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이 와 있습니다, 품질 개선을 위한. 그런 것들을 준수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자체 고용 부분은 행안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수어통역에 대한 공무원이 없으니까……

○**손솔 위원** 시간이……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알겠습니다.

○**손솔 위원** 그래서 고용안정이랑 농인 수어통역사 꼭 해 주시고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손솔 위원** 그런데 계엄 당시 때 수어통역 안 된 것 문제 제기 많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알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중요한 상황에서 농인들이 이 상황 자체를 다 모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뼈저린 반성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알겠습니다.

○**손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정책방송원 원장직무대리님, KTV의 주요 기능이 뭐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KTV 말씀하십니까?

지금 고유 임무와 역할이 정부 정책 홍보와 그다음에……

○**김승수 위원** KTV가 국민의 방송이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국민의 방송이고 정부의 정책 정보를 국민한테 전달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전 정부의 KTV의 공정성

에 대한 질타가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오히려 KTV의 역할을 망각한 그런 상황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 홍보가 아니고 대통령 홍보를 넘어서 이제는 총리 홍보까지 KTV가 앞장서서 나서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KTV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 취임 후 4개월 만에 관련된 저 자료가 무려 117건이나 됩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 관련되는 콘텐츠가 4개월 만에 117건인 반면에 동기간 작년 한덕수 총리 건은 2건입니다.

국가 행사에 대통령을 대행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 말고 총리의 일거수일투족, 동정까지도 KTV가 이렇게 해 왔습니까? 해야 됩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김승수 위원** 이것은 총리실 홍보실에서도 이런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꼭 개인의 정치 홍보 영상 같은 이런 영상을 이렇게 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KTV에서 이렇게 올리는 게 맞습니까?

내용들을 보면 특히 9월 26일 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에 모든 시스템들이 마비됐고 거기에 대해서 복구 안 된 서비스들이 많아서 국민들은 정보가 아쉬운 시기에 그런 데 대한 서비스 안내는 거의 없고 총리에 대한 개인 홍보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개인 정치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선거법 위반 여부도 따져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KTV 자체적으로 제작한 겁니까, 아니면 총리실에서 압력을 넣어서 거기서 만든 것을 이렇게 홍보하는 겁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KTV 자체 제작입니다.

○**김승수 위원** 정신이 있는 겁니까, 지금? 총리 홍보에 KTV가 나서는 이유가 뭐니까?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많을 텐데 이것 보면 아마 민주당 분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겁니다. 제 역할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역 신문과 관련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진흥재단 김효재 이사장님,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수수료 아닙니까, 정부광고 수수료? 10%가 적정하느냐.....

또 민간 부문은 15%인데 지금 10%가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용역 이런 거 한 게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김승수 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1분만 더.....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김승수 위원** 대안으로 지역 신문에 대한 정부광고, 지자체 광고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역 언론이 특히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부가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자체에서 강구하는 것만이라도 수수료를 감면해 주면 조금 고마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언론재단 자체가 지역 언론을 진흥하기 위한 재단인데 사업비보다는 여전히 지금 언론재단의 경상적 경비, 인건비·운영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너무 비대해진 것 아니냐 이런 질타들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보더라도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이 지난 2021년도에는 26%였던 것이 작년도에는 28%까지 올라갔거든요. 나름대로 혁신 같은 걸 하고 있다고 들었고 또 경영혁신 평가에서도 B등급 정도 받았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언론사에서 생각하는 언론사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너무나 이게 비대한 것이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 낭비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질타도 있기 때문에 조금……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명심하고, 저희들이 좀 더 경영 합리화 그리고 지역 언론이 생각하는 진정한 언론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오히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획기적인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남은 기간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의 확대나 이런 문제는 위원님이나 특히 박수현 의원님께서 법안까지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을의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서영충 대행님, 입사년도가 91년이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그동안 오랫동안 관광공사에서 재직하시면서 북한이 우리가 관광공사를 통해 투자했던 많은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체하고 실제로 철거하는 모습들을 지켜봐 오셨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배현진 위원** 그 규모가 900억 원 정도의 우리 현대아산과 한국 정부가 소유했던 자산들을, 온정각 등의 것들을 다 해체해서 없애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배현진 위원** 그런데요 아마 이것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2020년도 국정감사 때 한국관광공사가 ‘한반도 평화관광 기본계획 수립 연구’라는 이름으로 직접 용역 발

주해서 결과보고서를 냈던, 그러나 대외비로 밖에 공개하지 않았다가 들통이 났던 그 용역보고서를 얘기했었고 당시 큰 논란이 됐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들은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 당시에 논란이 됐던 이유는 그 안에 버젓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라, 미주 노선이 없는 항공사를 이용하라, 외국 국적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 등의 내용이 담겨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제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관광계획이었기 때문이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러한 계획들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관광업계도 대단히 힘겨운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배현진 위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이러한 무모한 세계 유엔안보리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런 것들을 감행하려던 시도들이 없었다가 4년 만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7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 개별관광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불과 20일 뒤에 관광공사가 이번에는 직접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아닌 통일연구원의 자체 예산을 통해서 ‘북한 관광자원 및 동향조사’라는 제목의 연구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대행께서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번에 국감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배현진 위원 내용은 ‘남북관광 협력사업의 로드맵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 이렇게 그럴싸하게 해 놨는데 이게 아마 12월 26일쯤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공사가 이것 직접 발주하면 또 문제가 될까 봐 통일연구원으로 우회한 게 아닌지라는 본 위원의 의심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여러 차례 제가 국감에서 지적했다시피 1000억 원 넘는 국가에 대한 빚이 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배현진 위원 그 와중에 국내 관광도 아니고 북한 관광 연구 할 그런 여력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800만 달러 대북송금의 혹으로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5년 뒤면 어떻게 될지 지금 뼈하 그 결과물이……

1년만, 1분만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한다고?」 하는 위원 있음)

1년 동안이 아니라 1분만 하겠습니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지사 시절에 방북의 대가로 대북송금을 했다라는 의혹을 지금도 사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돼서 기관을 통해서 대북 상납을 하겠다라는 의혹을 굳이 지금 기관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용역 발주 취소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대행님?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용역 발주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통일연구원에서는 매년마다 각 기관에 혹시 연구할 주제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배현진 위원** 관광공사가 제안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것도 다시 확인해서 종감 때까지 보고를 하시고요. 이것 관광공사에서 저희가 지금 받은 겁니다. 대행께 지금 직원들이 제대로 보고 안 하나요? 지금 관광공사 빚 1160억이에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그것 제가 확인했을 때는 통일연구원에서 연구 주제가 있으면 보내 달라 이런 공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현진 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가 아니라 다시 종감 때까지 보고를 제대로 하시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것 이재명 정부가 대북 상남 쇼를 감히 우리 정부기관을 통해서 하지 않기를 제가 감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받으시고 종감 때까지 본 의원실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공사가 용역을 우회해서 할 만한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의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서영충 직무대행께,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의 편중, 신설 필요에 대한 취지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지역관광 미래 활력 제고 부분을 보시면 지역관광 균형발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지와 의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엊그제 제가 문체부에 질의할 때 균형발전과 균형성장의 차이를 잘 설명을 했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이제 균형발전에서 균형성장으로 확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 안 보신 모양이네요.

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분명하게 균형성장이라고 하는 국정철학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특히 관광 분야는 지역의 발전·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다라고 하는 균형성장의 철학에 아주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박수현 위원** 한국관광공사가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기업지원체계 지역 확산을 위해서 광역 단위로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현재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4개 지자체 중에서 9개 지자체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개설되지 않은 지자체를 보면 충남, 충북, 전남, 강원, 대구 이런 지역 관광 기반 확충에 아주 절실한 지역들에 아직 이게 설치가 되지 않고 있고요.

다음 PPT를 보시면,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한번 봤더니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물론 예산은 늘 부족하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2023, 24, 25년에 이렇게 신규 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은 0원이에요. 전부 다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센터 운영 지원 그리고 운영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규 센터 운영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균형발전을 방향으로 앞에 보고를 해 놓은 관광공사의 업무 방향에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신규 2개소 설립 공모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맞습니다.

○박수현 위원 지금 어디 신설 의사를 밝힌 곳이 있나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아직 개시가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습니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남과 전라남도가 신설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 3년 동안, 좀 늦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5극 3특이라고 하는 새 정부의 큰 지역균형성장의 정책에 비추어 볼 때 각 중소도시 이런 도시들에 아주 특화된 독특한 콘텐츠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5극 3특의 지역균형성장 정책이 대도시 중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사이사이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중소도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일이고 관광공사가 바로 이렇게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의 설립과 지원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2개소 설립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내년도 신규 구축 예산 20억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개소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질의 전에 미디어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안 여쭈려고 그랬는데 앞서 답변이 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 제가 여쭤요.

공직에 입직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대충.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27년째입니다.

○박정하 위원 한 30년 가까이 되셨네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박정하 위원 최근에는 정권이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때 정권을 맡은 대통령의 철학에 맞춰서 공직자가 다소 움직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나 아니면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분명한 철학과 입장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게 공직자의 자세 아닌가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박정하 위원 그런데 앞서 답변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쉬운 것부터 할게요. 얼른얼른 답변 주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아까 광고 매체 다변화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수석이 9월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광고와 관련해서 기존 신문사 봇을 줄이기보다는 유튜브나 온라인 광고 쪽 비중을 늘릴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어쨌든 대통령과 대통령실 수석이 얘기했으니까 문체부에서 광고 관련해 갖고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그것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그당시의 국무회의 때……

○박정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대통령 지시 사항이 나왔는데도 문체부가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아닙니다. 그 방향성을 인터넷 매체쪽으로 의……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대강의 광고 방향에 대해서 정리하고 계시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유튜브의 광고 비중을 늘린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인터넷 매체 쪽으로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박정하 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신 건에 대해서 문체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계획에 대해서 종감 전에 말씀을 주시고, 쉬운 것. 종감 전에 꼭 보고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언론재단 이사장님하고 얘기 많이 오고 가고 했는데 가짜뉴스를 양산한 스카이데일리 같은 매체에 정부광고가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 그게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박정하 위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원하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박정하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여쭙니다. 제가 정치적이거나 이런 것은 다 빼고 다시 물을게요.

‘2010년도 천안함 북한 소행이 아니라 스스로 좌초했다’ 가짜다, 아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

○ 박정하 위원 아니, 이걸 답변을 또 못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개인적으로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 박정하 위원 가짜라고 생각하시지요?

‘12년 대선 부정선거다’ 가짜다, 아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정하 위원 가짜라고 생각하시지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 박정하 위원 16년, 안산 지역구 계시는 양문석 위원님도 계시는데 거기 있던 많은 학생들, 세월호에 있던 학생들 고의로 침몰됐대요. 가짜다, 아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정하 위원 가짜라고 생각하시지요?

21년 오세훈 시장 생태탕 넘어갈게요.

22년 이태원 사고 한동훈 마약 전쟁 탓 넘어갈게요.

23년도 국민의힘 의원이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하는 데 연루됐다 이것 넘어갈게요.

마지막, ‘22년도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설’ 가짜다, 아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그 또한 가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정하 위원 가짜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스카이 데일리 만큼이나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매체에 광고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어떤 매체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정부광고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정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 박정하 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지시 사항을 이행하는 방식을 언론 재단과 잘 상의하셔서 가짜뉴스, 가짜매체에 광고가 가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예, 알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의가 있어서, 프레스센터 대강 관련에 있어서 최종 결재라인이 누구입니까, 이사장님? 사장님 아니지요?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 예, 제가 아닙니다.

○ 임오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영본부장님 아니십니까?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 경영본부장 밑에 있었던 팀장이 하다가 한번 문제가 되어서……

○임오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최종 결재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최종 결재라인. 경영지원팀장이 그런 것을 받고 최종 결재를 본부장한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병철 본부장님, 맞지요?

○언론진흥재단경영본부장 유병철 아닙니다. 지금 경영기획실장……

○임오경 위원 아니, 최종 결재라인을 말한 거예요. 팀장이 마지막에 보고하는 게 본부장님 맞지요?

○언론진흥재단경영본부장 유병철 하여튼 보고는 안 합니다.

○임오경 위원 보고를 안 하고 그러면 팀장 마음대로 합니까?

○언론진흥재단경영본부장 유병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임오경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왜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안들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시국선언 기자회견은 누가 당일 날 취소시켰어요? 그것도 경영지원팀장이 했다? 지금 여기서 위증하시는 겁니까? 난 간단하게 지금 물어보는 건데……

○언론진흥재단경영본부장 유병철 결재라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오경 위원 최종 결재라인이 누구입니까? 최종 결재라인이 팀장입니까?

○언론진흥재단경영본부장 유병철 최종 결재라인은 지금은 경영기획실장으로 올렸고요. 그 전에는 팀장이 결재합니다.

○임오경 위원 팀장이 최종 보고를 본부장님한테 안 한다고요?

○언론진흥재단경영본부장 유병철 예.

○임오경 위원 문제 발생했을 때 이사장님은 그때 알게 되는 거고?

잠깐만 앉으세요.

임성환 미디어국장님, 지금 경영지원팀장이 최종 결재라고 하는데 이게 맞다면 이것 내부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재단의 전결권을 아마 그렇게 설정한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전결권의 정도는 설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임오경 위원 최종 결재라인은 제가 본부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책임을 회피합니다. 문체부에서 기강을 어떻게 잡습니까? 간단한 답변 하나도 일개 직원들한테 다 떠넘기는 이런 본부장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설상 팀장이 잘못을 했더라도 제가 본부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병철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언론진흥재단경영본부장 유병철 죄송합니다.

○임오경 위원 자기 직원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그 위치에 왜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큰소리를 치려고 질의를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결재라인에서 이사장님한테 보고하기 전까지 좀 제대로 하라고 그 한마디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팀장한테 그걸 떠넘깁니까? 참 가관이 아닙니다, 가관이 아니야.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런데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예, 최종 책임은…… 그래서 이사장님은 그 절차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책임은 이사장님이 지는 거지요. 하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본부장 답변은 결재가 위임돼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최종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임성환 미디어국장님, 이것 책임지십시오. 이것 내부 감사해서 정확하게 팀장을 해고하든지 이것은 결정하십시오.

않으시고요.

진짜 미치겠네…… 작년 보수 성향 언론단체 가짜뉴스 시상식이 있어요. 이사장님, 자유언론국민연합 기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알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

○**임오경 위원** 이것도 이사장님은 모르지요? 이것도 본부장 선에서 해결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를 최악의 가짜뉴스 국회의원으로 뽑은 이런 편향된 행사의 내부 심사위원으로 유병철 이사가 들어가서 97점을 주었고 남정호 이사가 들어가서 97점을 주었습니다. 진흥재단의 단체 지원사업은 어느새 공익성을 잃은 채 극우 단체들의 쌈짓돈 밀어 주기로 완전 전락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중심에서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두 이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언론진흥재단은 돈이 남아돌아요? 할 일이 없어서 가짜뉴스 시상식도 합니까? 언론 보수 단체들 쌈짓돈 밀어 주기 위해서, 이 자유언론 국민연합 기관이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인지도 모르는 단체에다가 시상식까지 해 가지고 3000만 원씩 쌈짓돈 밀어 주고 있어요? 2023년, 2024년. 이것 결재라인 누구예요? 이사장님이에요, 이것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지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이것 결재라인이 누구입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를테면 단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들이 심사해 가지고 오면 제가 결재합니다. 그 심사의 결과를 제가 책임집니다.

○**임오경 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예산 쓸 곳이 없어요? 보수 단체들, 편향된 보수 단체들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쌈짓돈을 이름도 제대로 없는 자유언론국민연합이라는 기관 한테 2년 연속 가짜뉴스 시상식을 해요. 이런 시상식은 처음입니다. 가짜뉴스센터가 제대로 돌아가거나 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단체들이 한 많은 일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요.

○**임오경 위원** 우리 진보단체에다가 그러면 가짜뉴스 시상식 한번 해 줘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공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희들은 진보단체냐 보수단체냐를 가리고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이거 쌈짓돈 밀어주기 결과가 다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거 심사위원으로 이사 2명이 들어가서, 본부장 2명이 들어가서 심

사까지 하고 가장 높은 100점 만점에 98점, 97점 주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이사 2명이 심사위원이 된 것은 벌써 몇십년 된 일이고요. 이사 2명이 심사위원 하고 외부위원 3명과 함께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큰 점수, 맨 낮은 점수를 빼고 평균을 내서 하게 되는데요. 이거 위원님이 잘 아시지……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런데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이사장님, 정말 해도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진보냐 보수냐 가리지 않는다고요? 지금까지 나타난 행태를 보면, 아까도 제가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행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라는 사과. 아까 이사장님 사과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단연코 제 직을 결고 진보냐 보수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왜 진보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불허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요,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김교홍** 진보단체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오경 위원** 그러면 가짜뉴스가 민주당에서만 했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거 보게 되면 1, 2, 3, 4, 5위가 이재명, 김민석, 이거 다 뭡니까? 김의겸, 정청래, 최민희…… 이게 지금 제대로 평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거 조사해 보고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단체들이 한 많은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게 언제, 선후관계는 제가 여기서 지금 선후를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임오경 위원** 이사장님 지금 자유언론국민연합이 어디인지도 모르잖아요.

.....

○**위원장 김교홍** 아니, 이사장님은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이 그 사무 공간의 대회의실을 쓴다는 것도 정치적 집회라고 해서 불허한 거예요. 입이 열 개라도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진보냐 보수냐를 안 가렸다? 나타난 결과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양문석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김교홍** 예,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 메모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아까 박정하 위원께서 가짜뉴스, 안산의 세월호 침몰이 고의다,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쟁은 없었습니다. 고의다, 아니다가 아니고 침몰의 원인이 뭐냐, 아니냐. 그래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세월호 침몰을 누가 고의로 침몰시켰다, 그냥 사고다 이 논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질문이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뉴스로 가서는 안 될 것……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박정하 위원** 당시에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그런 의혹을 제기했던 매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양문석 위원** 고의냐, 아니냐에 대한 매체……

○**박정하 위원** 당시 매체는……

○**위원장 김교홍** 매체가 그런 매체가 있었다.

○**박정하 위원** 그런 매체가 있었다.

○**위원장 김교홍**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제 그거를……

○**박정하 위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김교홍** 하여튼 김효재 이사장님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음 종감 때까지 분명히 보고서를 주세요, 저희들한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위원장 김교홍** 정부광고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그리고 국제방송교류재단에 대해서는 질문이 하나도 없네요.

김태정 아리랑TV 사장님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케이팝이 세계적인 인지도가 없을 때부터 해외 케이팝 팬들을 위해서 아리랑TV가 Pops in seoul 프로그램을 방송했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노래와 한국 문화를 배우게 됐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위원장 김교홍** 그게 아리랑TV가 대한민국 홍보를 위해서 전 세계 위성망을 통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35개국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거기에 1억 5700만 가구에 국가홍보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향후 5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합니까?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전 세계 위성망을 통해서……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맞는 거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지금 위성사업비가 계속 삽감당하고 있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내년도 예산 위성사업비가……

○**위원장 김교홍** 언제부터 삽감당했어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위성사업비가 11억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올해만 삽감됐어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삽감……

○**위원장 김교홍** 삽감이에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위성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 송출하기가 어렵지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1억이 감액된다면……

-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위약금을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소송뿐만 아니라 위약금 발생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왜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세요?
-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그래서 지금 기재부나 문화부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지금 아리랑TV가 문체부에서 240억 받고 방통기금으로 100억 받지요?
-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110억.
- 위원장 김교홍 110억?
-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이것도 매년 방통기금 거는 예산이 축소되지요?
-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축소됐지요?
-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앞으로 아리랑TV의 존폐 여부가 달려 있네요?
-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예, 그래서 방송발전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문체부 그리고 기재부 쪽하고도 계속적으로……
- 위원장 김교홍 문체부의 국장님, 미디어국장님인가?
-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해외홍보정책관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잠깐 마이크 좀.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예, 그래서 계속 기금이 축소되는 상황도 주시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안정적으로 확대 지원하려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기금재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재정당국하고 협의가 마무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지, 일반 예산으로 하든가 해야지 방통기금으로 해서 계속 축소된다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예.
- 위원장 김교홍 이것으로 추가질의가 다 끝났고 재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9시예요. 그래서 위원님들 하실 희망자에 한해서 재추가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늘 많으시네. 다 하셔야 되겠는데, 그럼? 다 해도 돼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 대신 1분씩 안 드려요. 3분에 다 끝내겠습니다. 1분씩 하면 하염없어. 이게 1분으로 되는 게 아니야. 거의 3분 정도 걸려요. 거의 3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분

을 쓰시는 거니까 그러면 마냥 길어져요. 그래서 3분으로 딱 끊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구용 원장님, 종감 전까지 전자출판 진흥의 기본 틀을 새로 세워야 된다, 방안 좀 마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심오택 위원장님, 아까 다 하다 못 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스포츠도박의 컨트롤타워가 정확하지 않아요. 이용자의 경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만 가능해요. 아시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민형배 위원** 이런 체계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지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심오택** 예.

○**민형배 위원** 스포츠중계를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불법도박 사이트로 연결된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피해가 엄청 커지고 있다.

김효재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보수십니까, 진보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제가 근무했던 신문사가 보수적이고요.

○**민형배 위원** 이사장님, 제가 오늘 이사장님이 답변하신 것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보수정권의……

○**민형배 위원** 저분은 평생을 보수로 살아왔고 국회의원도 했고 정무수석도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언론단체, 언론기관의, 언론진흥재단의 일을 하고 계신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지만 지금 거기에 어울리지 않으세요. 언론진흥기관이라고 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편향이 아주 심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어울리지 않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는 제가 보수언론에 근무했고 보수정권에……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보수시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형배 위원**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앉으셔 가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러나 사실 여부에 관한 한……

○**민형배 위원** 보수정권을 위해서 복무하셨어요. 그리고 보수정권의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 가신 것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그런데 뭘 객관적인 것처럼 하세요? 누가 김효재 이사장님이 객관적이라고 보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봐요.

김세원 원장님 가셨나요?

김세원 원장님, 내가 굉장히 전문성 있다고 그러셨지요? 논문을 열 몇 편 썼다고 그러셨지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예.

○**민형배 위원** 관광문화 진흥 쪽에 논문 쓴 게 뭡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관광문화 진흥……

○**민형배 위원** 관광문화연구원장으로서 내가 이 정도면 전문성이 있다라고 쓴 논문이

뭐예요? 제가 논문 쓰신 것 쭉 봤는데 이쪽 분야가 없던데요? 저서도 제가 여러 권 있길래 쭉 봤는데 이쪽에 하나도 없던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그 분야가 ‘문화코드로 읽는 지구’도 그렇고……

○민형배 위원 여보세요, 그게 무슨 연구서입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아니, 저는 연구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아까 전문성이 대단한데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러셨잖아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예, 맞습니다. 저는 문화연구자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논문 중에 문화관광연구원장의 전문성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한 논문이 뭐냐고요. 12편 논문 중에 어떤 것 있어요? 영문으로도 쓰고 하셨더만. 어떤 게 전문성이 연결이 됩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문화관광을 엮어서 말씀하시면 논문은 2개가 합해져서……

○민형배 위원 여보세요, 선대위에 가서 활동한 덕분에 거기 가 계시는 것 아니에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아닙니다. 저는 이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형배 위원 그런데 그걸 왜 갑자기 전문성으로 둔갑해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이전에 경기도청의 정책브랜드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러서 가게 된 거지요.

○민형배 위원 아니, 논문을 12편 썼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논문을 쭉 봤더니 문화관광 전문연구원이라고 할 만한, 연구 성과라고 할 만한 논문이 없더라고요. 다 이쪽 분야가 아니던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그러니까 문화와 관광을 합쳐서 말씀하시는 데요 그것을 분리해서 말씀하시면 할 수 있고요. 관광컨설팅 사업 등……

○민형배 위원 문화와 관련해서 한번 해 보세요, 문화와 관련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문화와 관련해서는 제 박사 논문도……

○민형배 위원 카스텔의 네트워크 논문이 문화입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무슨 네트워크라고 말씀하셨어요?

○민형배 위원 아니, 논문 중에 카스텔 이용해서 쓴 논문이 있던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예?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민형배 위원 아니, 연구자 중에 카스텔이라고 모르세요? 당신 연구 논문에 이론적 백그라운드로 갖다 쓰셨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까스테르요? 제가 그걸 못 알아……

○위원장 김교홍 김세원 원장님은……

○민형배 위원 아니, 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그냥 지난번 대선 때 거기서 공로로 인정받아 가지고 그걸로 해서 원장 갔다 그러면 될 일을 뭘 연구를…… 무슨 전문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간 것처럼 하셔서 제가 한번 훑어 봤어요. 그랬

더니 연결이 잘 안 돼요. 맞지요, 지난번 대선 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저는 문화 전반에 걸친 그런 논문을 썼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가…… 기자 시절부터 문화 쪽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예.

○**민형배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문화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내가 전문성이 있는 문화 연구자다, 내가 전문성이 있는 관광 연구자다, 그래서 내가 원장에 가 있다’ 그러셔서 제가 경력이랑 연구 실적을 쭉 봤더니 그게 아니고 지난번 대선 때 국민의힘 쪽에서 그쪽 관련한 위원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 거잖아요. 그거 안 했으면 갔겠어요? 연구 실적 가지고 갔겠어요? 전문성 가지고 갔겠어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예, 그거 아니어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시험 치셨어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시험 친 건 아닌데요. 제가 그전에 경기도 정책브랜드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 것하신 분 대한민국에 1만 명은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전문성이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연구원장 정도 하면 설령 그렇더라도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위원장 김교홍** 자, 이제 정리해 주세요. 이게 6분 되는 거예요.

○**민형배 위원** 무슨 그쪽 관련한 연구실적이 있다고.....

.....
○**위원장 김교홍** 정리해 주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 계시네요?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윤두현 사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이쪽 발언대로?

아까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잘 내용도 듣고 답변도 들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어쨌든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 전날 12월 2일 사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조계원 위원님이나 저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하시지요, 그럴 수 있다고?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예.

○**박수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적법하냐’ 이런 걸 물어볼 때 ‘특정 역사적 사건의 법적·정치적 평가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리고 ‘해당 사안은 본 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의견을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장이 아니라 그냥 그것 빼고 일반 국민이라면, 그냥 개인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적법합니까? 안 합니까? 개인 입장이라면.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이미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박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누가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개인 입장이라고 제가 양보를 해서 여쭤보잖아요. 공공기관장이 아니라 개인이라면 적법합니까, 안 합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부당하다고 전제로 해서 결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에 따르는 거지 그건 개인적인 견해고 공공기관장의 견해고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사적 의견을 공식 석상에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위원 아니,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헌법질서, 헌법체계, 법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해야 될 책임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예, 맞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헌법에 대한 기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의 장이라는 이유로 답변할 수 없습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공공기관의 장이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박수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위원장께도 말씀드리면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줄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기획조정팀장 ‘평가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해 봉인했기 때문에 임의로 봉투를 열 수 없다’라며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봉인을 풀지 못한다는 내부 규정이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 ‘관련법을 찾아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관련 법이나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봉인을 해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규정을 들이대면서,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이 결과적으로 온 국민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 하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을 못 합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답변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사석에서는 저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공적 의견을 이야기하는 데고. 그러면 소관 업무가 아닌 데 대해서 계속 사적 의견을 물으면, 계속 이야기하면 그것이 불필요한 걸 가져온다 생각을 합니다.

○박수현 위원 왜 자료제출도 안 합니까, 그러면?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자료제출은 불리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사인을 해서 봉인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건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입장은 위원장과 위원들이 모여서 의결을 해야 그걸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서.....

○박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근거나 내부 규정에 의한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인정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끝까지 요구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기는 열 수 있는 방법의 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윤두현 예.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공형식 소통정책관님, 창 쪽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 보입니다.

소통정책관님, KTV 감사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 공형식 KTV 감사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PPT 보시면, 이은우 원장 곧 특검에 출석합니다. 언제까지 손 놓고 계실 거예요?

이은우 원장이 청와대 공연을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 알선도 의심되는 부분인데요. 다음 PPT 보시면, 인물 관계를 좀 볼 수 있습니다. 황제관람 용역사 책임자 박종현 그리고 이은우는 1990년대 초에 SBS에서 각각 SBS 제작본부 그리고 편성기획국에서 근무한 시기가 완전히 겹칩니다. 이후에 2000년대 중반에서부터 2010년대까지 MBC 계열사에서 동시에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은우 원장은 최재혁 비서관과 MBC 1년 차 선후배 사이이고요. 박종현까지 여기 더하면 이들은 모두 공영방송 MBC를 넣마로 만든 바로 김재철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뜰뜰 뭉쳐서 공영방송인 한국정책방송, KTV까지 망쳤지요.

청와대 공연 판박이 공연이 또 있습니다. KTV 소록도 공연인데요. 이 공연 보면 수의 계약 형식이나 예산 규모만 따져서 판박이 공연이 아니라, 다음 PPT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거와 비슷하게 청와대 황제관람 공연과 소록도 공연 실행 주체가 명확히 같습니다. 청와대 공연 주관자 박종현이 이직해서 소록도 공연을 실행했고요. 마찬가지로 청와대 공연 촬영을 담당했던 동북아컨텐츠 대표 맹삼현, 사실혼 관계 동거인 명의로 회사를 차명 운영하면서 소록도 공연을 실행했습니다. 공연을 하는데 자기 사단 사람들 다 꽂아 넣었는데 이 정도면 청와대 황제관람 대가성 여부까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정책관님, 왜 이렇게 늦춰요? 이은우 원장 시절에 소록도 공연 감사 계속 미뤄야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 공형식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뭐가 복잡합니까? 지금 특검 조사 들어간다니깐요, 이은우 원장. 도대체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 공형식 예,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감사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 공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고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하세요.

○양문석 위원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 때 KTV 전 원장인 하종대에 대해서 배임죄, 직권남용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고소 여부를 물었는데 아직까지 KTV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1357만 원 국고 환수를 위한 대안과 구상권에 대한 견해를 물었는데 KTV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감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달라라고 하는 게 저의 요구입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양문석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본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광고본부장님, 아까 제가 불렀던 명단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명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제가 본 적이 없는 명단이고 저희가 의원실에 제출한 명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만든 명단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양문석 위원 이사장은 ‘심사위원 명단을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받았고 일부 유실돼서 누적된 전체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랬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명단이 우리가 준 명단이든 아니든 언론재단은 최근 5년 동안 심사위원 전체 명단을 우리 방이 요구했었을 때 ‘현재 시스템상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진위 여부를 따질 때 이사장도 그다음에 광고본부장도…… 이게 연구재단에서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제보로 받았든, 공식적으로 받았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에 대한 문제로 그 초점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명단을 23년, 24년, 25년, 최소한 5년 치는 안 돼도 지난 3년 치는 보내 줘야 되지요. 자료제출했나요? 안 했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정말 제가 황당했던 게 동양철학 교수가 심사위원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동양철학 전공 교수가. 이 부분은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사회심리학 교수가 들어가 있어요. 인지심리학이면 광고하고 연관이 된다고 칩니다. 사회심리학은 전혀 다른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특히 언론인들은 또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일부는 알아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이 옳은 명단입니까, 틀린 명단입니

까? 진위를 이야기하세요. 옳은 명단일까요, 틀린 명단일까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저희 공식……

○**양문석 위원** 공식은 뭐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제가 본부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그 명단은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국회 오기 전에 그 명단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 그 명단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문석 위원** 자, 알았어요. 본 적이 없으면, 그러면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이? 원본이 있는데 계속해서 진위 논쟁을 지금 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본을 내놓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원본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광고본부팀장이 의원님 실에 방문해 가지고 보여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뭘 보여 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정부광고본부장 김도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 원본 종감 전에 2003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사위원 명단, 2004년 심사위원 명단, 2005년 심사위원 명단 보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말씀하셨던 것 나중에 녹취록 찾아가서 보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 논란으로 변질시키지 마시고 책임으로 가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계속해서 거짓이 진술됐고 위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여야 간사님들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욱……

○**정연욱 위원**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안 하세요?

○**정연욱 위원** 예.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이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짧은 시간이라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서영충 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님, 요새 관광지 가 보면 중동, 동남아 또 유럽의 외곽에 있는 국가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이기현 위원** 아시다시피 중국어, 일어, 영어 아니면 특수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특수어 관련돼서 관광 통역사들 많이 필요하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 관광객들이 거의 동남아권 같은 경우는 150%, 유럽권은 180%, 중동

권은 99% 이렇게 한 2년 사이에 대거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관광 통역사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취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영상자료를 보면)

전체 관광 자격증 중에 이런 동남아나 유럽, 중동과 같은 특수언어권은 약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10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취업하신 분들이 25.4%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취업률이 낮습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제가 파악하기로는 취업률이 낮은 것보다는 자격증을 직업으로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아마 급여 수준이 좀 높지 않고 또 여행업이 리스크가 많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기현 위원** 맞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근로 환경도 불안정하고 정규직으로 취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수어를 따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관광 현장에 투입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관광공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수어와 관련해서는 동남아에서 오신 이주자들이 저희 한국에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서,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을 확대 재생산해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투입될 수 있도록,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그게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양성을 하고 있는데 모집을 하기가 쉽지 않은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찬구 원장직무대행님, KTV 작년에 8월 달에 국방부 출입하던 기자, 카메라맨인지 누군지 용산구 모 식당에서 식당 주인 성추행한 사건 알고 계시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 건으로 인해서 이 양반 징역 10개월의 1심 선고를 받았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지난 국감 때 저희가 이 문제 관련 질의했고 그리고 엄중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성과급을 지급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성과급을 지급하고 왜 했냐 그랬더니 작년에 일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말씀 맞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KTV 그렇게 얘기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이기현 위원** 이 친구가 십지어 작년 8월에 이렇게 사고 치고 9월부터 12월까지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약 50일간 출근을 안 하다가 12월 달에 출근을 했습니다. 1년에 사고 한 번 8월에 세계 치고 세 달 가까이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성과급을 받아 갔어요.

KTV의 성과급 지급 등급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S, A, B, C 이렇게 있습니까?

○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그렇습니다.

○ **이기현 위원** 이 친구가 뭐 받았는지 제가 물었는데 KTV에서는 답을 안 했어요.

○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B등급 받았습니다.

○ **이기현 위원** 출근을 50여 일 가까이 하지 않고 사법적인 재판받고 있는 친구를 성과 평가에서 B를 준다고요, C가 아니고? C를 받았다고 하면 성과급이 지급 안 됐어요.

다 아는 상식이지요?

○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예.

○ **이기현 위원** B에서부터 지급되지요?

그런데 지금 KTV는 이 정도의 직원들한테 평가 등급에서 B를 주는 조직이에요. KTV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이렇게 대형사고 치고 사법적인 재판받고 있고 출근도 안 하는 직원한테 인력 평가에서 B를 줍니까?

그러면 C 안 줘요?

○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행 이찬구** 이미 1% 직원에게 C를 주는데, C등급은 두 사람이 확보가 돼 있는 것이 음주운전과 그다음에 2개월 미만인 근무자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현 위원** 성추행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직원입니다. 10개월의 실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양반에 B를 줘요, 50일을 출근 안 했는데? KTV가 아직도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KTV 정말, 도저히 국민의 정책방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KTV가 작년에도 그렇게 국감 때 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조계원 위원** 서영충 대행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알고 계십니까?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 **조계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전 세계 30개 섬의 보유국이 참여해서 기후위기, 자원, 인구 문제에 대한 지구적 해법을 모색하고 생태·문화·역사·관광·자원·미래에너지 등 섬이 지닌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정부 공인 국제박람회지요?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 **조계원 위원** 내년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됩니다.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 **조계원 위원** 이 행사에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는데 세계 섬 도시대회 그리고 2026 국제섬포럼인 여수(in Yeosu) 그리고 또 국제 슬로푸드 총회 및 박람회가 추진되고 있

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수시에 공약으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약속한 바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총**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MICE 산업이 3대 고부가가치 관광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총**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MICE 사업 중 지역 예산의 비중을 보면 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20%대밖에 안 돼요. 알고 계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총** 예,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지역 예산 비중은 저렇게 낮은데, 보이시지요? 실적을 보면 지역에서는 오히려 거의 50%대가 넘어요. 수도권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투입한 예산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MICE 산업에서 지역이 왜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구나 지역 MICE 산업 활성화 예산이 내년에는 25.5%가 감축됩니다. 그리고 MICE 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내년에 19.2%가 감축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총** 예.

○**조계원 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년 MICE 외래객 일인당 지출액이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MICE 산업은 높은 객 단가와 강한 연쇄효과로 투입 대비 수익, 일자리 투자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입니다.

육성해야 될 건데 왜 예산까지 줄이고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총** 추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고요, 사업 효율성을 높여서 최대한 실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여수세계섬박람회 또 MICE 행사 등에 대한 공사의 지원방안 그리고 MICE 산업의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총**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언론재단 이사장님, 신문 공동수송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랑했었지요, 앞서 업무보고 할 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보고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신문 배달 한계 지역에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신문 유통비용을 절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했는데 올해 예산 오히려 떨어졌더라고요.

예산 보여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지금 예산이 자꾸 축소가 되어서 저희들 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방 언론을 활성화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예산은 원상 복구시키고 오히려 더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지역 언론하고는 특별한 관계, 왜냐하면 이게 신문 오지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 언론이 주로 배달이 되거든요. 배달 문제하고 지역 언론 문제는 조금 별개가 아닌가 싶은데요.

○**조계원 위원** 지방 언론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의 언론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와 같은 지역 언론 지원은 확대해야 됩니다.

○**조계원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상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테니까요 이 부분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예.

일단 일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은 해야 된다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배달 문제는 신문시장이 위낙 위축이 되어 있어서 하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예산까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신문 공동수송 예산이 왜 필요한지, 축소 시 어떤 문제가 대두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이번 예산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의원님 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예.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솔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솔 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프레스센터 미화 용역업체를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손솔 위원** 이게 매년 용역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손솔 위원** 혹시 용역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게 지금 기재부의 업무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한 것이고, 저희들은 이를바 원청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용역사와 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현장 근로자들은 용역사와 교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섭의……

○**손솔 위원**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중구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고요.

○**손솔 위원** 그런데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근로조건이라든지 불안정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손솔 위원 지금 특히 올해 재단과 계약한 용역업체가 예년과 다르게 피복비 지급과 연차 촉진제도를 다르게 집행해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벌써 여러 달째 갈등이……

○손솔 위원 이것 관련해서 왜 올해는 다른지 용역사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용역사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용역사도 용역사대로의 입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서 용역사를 저희들이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요. 매년……

○손솔 위원 지침은 알겠는데요.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노동자들 처우개선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손솔 위원 2019년에 가이드라인도 나왔고요.

문체부 소속 언론진흥재단 역시 공공기관으로 모범을 보여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찾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님 계십니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손솔 위원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께서 도박범죄로 검거되는 청소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2024년에 전년도보다 3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초중고 학급별로 전체 학교 수 대비 이수율, 예방교육 이수율이 20% 전후입니다. 특히나 고등학생이 검거 비율이 높은데 고등학교의 교육 이수율이 초중고 중에 제일 낮아요. 신청한 학교만 교육할 게 아니라 시도 교육청 협조해서 최대한 많은 학교의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저희 17개 시도 교육청과 도박 담당을 하고 있는 장학사들과 협의회를 통해서 예방교육이 이루어질수록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사실 안전이나 생활안정과 관련된 교육이기 때문에 도박 특화된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예방강사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손솔 위원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예방교육 더 강화돼야 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신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관광공사 서영충……

(영상자료를 보면)

지난 9월 29일 날 중국에서 크루즈로 입항한 관광객 6명이 지금 실종됐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김승수 위원** 지금 찾았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아직 못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한국 내의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은 예외였습니다. 단체관광이 금지가 되면서 2018년 7만 명까지 올라갔던 불법체류자가 올해 5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단 말이지요.

그런데 중국인들한테 무비자 입국이 계속 허용됐던 제주도의 경우에는 또 예외입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중국인 불법체류 현황이 2022년 7000명 선에서 작년도에는 1만 명 선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무비자 입국과 불법체류 증가율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크다 이런 것을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됐을 경우에 불법체류가 늘어나는데 대한 사전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관련해서 관계기관과 문체부 또 관광공사 이렇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김승수 위원** 무비자 입국 시행에 앞서서 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는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비자 관련 논의는 쭉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일반적인 논의지 이 불법체류 증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불법체류자가 는 것뿐만 아니고 제주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을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또 불법체류자의 범죄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도 살인에 카지노 폭력에, 심지어는 마약까지 중대범죄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범죄 행위자의 또 대부분이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무비자 입국을 했고 더 설상가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입국신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무비자 입국을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강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국신고 시스템에 주소 입력이 안 돼 가지고 입국한 사람 주소지도 확인하지 않고 지금 입국시키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지금 중국인들이 입국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김승수 위원** 중국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의 불법체류자 증가뿐만 아니고 과거 단체관광이 금지되기 전에 굉장히 중국 관광객, 단체관광객의 덤펑 관광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관광수익 증대 효과보다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또 혐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하셨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외래객 실태조사를 보면 물론 저가 단체도 있겠습니다만 일인당 평

군 소비분은 전체 외국인 평균보다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저가 단체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체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수 위원** 전체가 그렇다는 것을 떠나서 중국의 저가 덤픽 관광 관광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대비책이나 개선책 또 인바운드 중국 내 여행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그런 조치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이나 보완 없이 다시 단체관광을 무비자로 입국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체부의 문제 또 관광공사의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향후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김승수 위원** 너무 무사안일하게 그렇게 지금 바라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수년에 걸쳐서 지적이 됐으면 개선하고 보완책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개선, 보완이 없이 또다시 단체관광이 그대로 제기되고 또 시스템 자체가 지금 먹통인 상황에서 무비자 입국까지 강행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을 상당히 위험 요소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광공사에서도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서 대행님, 아까 제가 통일연구원에 관광공사가 연구 제안했는데 그것 확인하셨어요, 했다고 말씀드린 것?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배현진 위원** 확인 못 했습니까?

제가 오늘 국감 제 질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하시는 것 보니까 아는 게 없으세요. 국감 대충 하루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오신 거예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그렇지 않습니다.

○**배현진 위원**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본 위원이 이것 확인 관광공사에서 받았다고 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예.

○**배현진 위원** 25년 올해 7월 30일 자로 관광공사가 수신자 통일연구원장, 시행 지역균형관광팀에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안자(성명) 한국관광공사' 해서 이것 연구 발주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게 통일.....

○**배현진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아니요, 그러니까 통일연구원에서 받고 회신한 공

문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배현진 위원** 지금 보고도 확인을 못 하십니까? 관광공사에서 본인들이 제안자로 했다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지금 아무리 대행이시라지만 공사 업무에 전혀 일절 관여를 안 하시는 건지 일부러 파악을 안 하고 이 국감장에 오신 건지, 국정감사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서영충**

○**배현진 위원** 대답하세요.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서영충** 예, 함부로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다 모르쇠로 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서영충** 아니, 모르쇠가 아니고……

○**배현진 위원** 됐고요. 이것 외국에서도, 로이터통신 등에서 북한 관광은 좁은 범위의 현금 공급원이라고 해서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연구 결과 나오기로 했으니까요 이것 잊지 말고 나오는 즉시 의원실로 보고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서영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언론재단 이사장님, 아까 앞서 임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말씀을 잘 다 듣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자유언론국민연합이라는 단체를, 재단 공모사업에서 언론시민단체를 지원하신 거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런데 극우 단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했던 그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언론 기사를 죽 검색을 했거든요.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언론은 언론 자유를 지켜야, 언론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가짜뉴스 척결하고 언론 공정성 회복하자. 이것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자는 말이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입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 아닙니다.

○**배현진 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서 아까 가짜뉴스 대상이라고 뽑았던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올 8월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법원으로부터 7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이 단체가 극우, 가짜뉴스 설파하는 그런 단체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가 많은 이른바 좌파 시민단체 지원했다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정 언론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이 극우 단체로 몰렸을 때는 말씀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재단에서도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바른 활동 하고 있다고 우리가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요 제가 전직 언론인으로서 오늘 위원

장께서도 요구하셨던 언론진흥재단의 자유가 정권이 바뀌어서 자칫 또 한 번의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그런 계기가 될까 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점에 주의해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한예종 총장님, 제가 일반적인 것을 여쭐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돼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박정하 위원** 총장님 계시고 그 안에 원이 또 이렇게 되어 있나 보지요, 원장님 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저희 원장 체제……

○**박정하 위원** 전통예술원, 경상원, 연구원 뭐 이렇게. 그 원이 몇 개나 돼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6개 원입니다.

○**박정하 위원** 그 6개 원에는 또 각각 전공에 따라서 미술, 무용 아니면 영상 이렇게 있나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아닙니다. 원이 영상원, 연구원, 무용원, 미술원, 음악원 이렇게 있지요.

○**박정하 위원** 그렇게 6개? 그러면 전통예술원 안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전통예술원에는 뭐 여느 과가 있고.

○**박정하 위원** 거기에 또 몇 개 전공이 있고?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한예종에 가는 학생들은 제법 독특한 재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교육, 훈련 이런 걸 받고 보통 가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박정하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가령 무용을 했던 학생이 갑자기 ‘나 적성에 안 맞아’라고 해서 미술을 전공한다거나 아니면 영상을 잘 찍는 학생이 갑자기 ‘나 연극 해야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쉽지 않은 경우이기는 한데 종종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지 않은 경우가 최근 10년에 예술원, 아까 제가 여줬던 전통예술원에서 영상원으로 전과한 사례를 물어봤더니 4건이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박정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학생은 음악을 하다가 영상 이론을 해요. 쉽지는 않은 케이스인데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반적인 것을 여줬고요.

문체비서관으로 가신 이동연 비서관, 한예종에 같이 재직하셨었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 박정하 위원 그 비서관의 자제분이 지금 한예종에 재학 중인가요?
-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재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정하 위원 재학 중인가요?
-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 박정하 위원 혹시 이 학생이 제가 여쭈었던 2025년도에 음악 전공의 전통예술원에 있다가 영상 이론을 하는 영상원으로 전과를 했나요?
-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제가 오늘 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게 맞아요, 그 학생이 그 학생이에요?
-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러면 전과를 하려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해요?
-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보통 학생들이 전과하는 경우에는 1학년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35학점 이상을 해야 되고 성적이 3.5 이상이 돼야 됩니다. 평균 B 이상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3학년으로 갈 때, 보통 2학년 학기 초에 많이 높입니다.
- 박정하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서가 있어야 되고 지원서에는 성적증명서, 전과사유서, 학업계획서 등 있어야 되는 거고 소속 학과장 승인 거쳐서 적격자 선정 등등……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지요?
-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정하 위원 지금 이 학생의 전과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알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편장완 총장님께 질의할게요.
- 저희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로 인해서 한 가족,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사건 알고 계시지요? 희대의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 임오경 위원 누군지 아시겠지요?
-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
- 임오경 위원 조국 일가족 모르십니까? 조민 학생 학위 박탈당하고 자격증 박탈당하고 직장 내에서도 모든 걸 다, 직장까지 잃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 임오경 위원 이게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 임오경 위원 당시 부산대 총장인 차정인 전 총장이 조민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기사 본 적 있으십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기사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경찰에서 성신여대 김 모 교수 등 약 200여 명 이상을 199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던 러시아 슈우킨 대학, 기치스 연극대학 가짜 학위 취득 및 불법 유학생 송출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오경 위원** 신은향 문체부 국장 나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임오경 위원** 여기 담당 누구입니까? 같이 대답해 주세요. 김 모 교수는 가짜 학위를 활용해 한예종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후 그 경력을 발판으로 성신여대에 임용되었습니다. 현재 한예종 교강사 중에 문제의 슈우킨대, 기치스 대학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임오경 위원** 몰라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제가 현재 파악은 못 했는데요. 한예종에서는 없다고 전달은 받은 상황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한예종에서 저희 의원실에 현재 교강사들 중 해당 학교 학위 소지자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한예종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연기과 학과장까지 지낸 박 모 교수가 슈우킨대 석사, 기치스대 박사를 받은 것으로 벼젓이 나와 있어요. 심지어 이번 학기에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러시아 슈우킨 대학교 측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박 교수는 93년, 95년 연기 기술교사 자격증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장님, 이것 석사 학위를 받은 게 맞는 거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임오경 위원** 신은향 국장님, 맞는 거지요, 이것? 제가 자료 직접 받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학교 홈페이지에 있으면 맞을 것 같은데요.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당시 슈우킨대는 직업전문대학교였고 2002년에 대학 인가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당시 슈우킨대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요. 이것은 1998년 3월 한겨레 신문 광고로—지금 PT에 나오는 것 보세요—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학력 및 학점 인정, 불법 유학 연계 광고인데 여기 나오는 강사 소개 자료에서도 박 교수는 슈우킨대 석사가 아닌 교원 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슈우킨 석사 학위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조차 성립이 되지 않고요.

또한 자료를 보면 성신여대의 김 모 교수 2010년 한예종 강사 임용할 당시에 학과장인 박 교수가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러시아 가짜 박사 카르텔 아닌가요? 자료

가 다 나와 있어요.

문체위에서는 한예종 석·박사 과정 신설을 위해 법 개정까지 추진 중인데 교강사 임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증조차 제대로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석·박사 과정을 지금 인정해 달라고 합니까? 이것 예술정책과장님께서, 문체부가 한예종을 감사해서 문제가 드러난 교수들 임용 취소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살펴봐서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바로, 이것 고발 대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위원님, 학제가 국내랑 해외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챙겨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슈우킨대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90년대 후반에 이루었었던 러시아 슈우킨대학, 기치스대, 영국 대학교 가짜 학위 취득 및 불법 유학생들 송출 사건 수사를, 다 수사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2017년 경찰에서도 성신여대 김 모 교수 등 200명 이상을 조사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가짜 학위라고 나와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가짜 학위라면 지금 현재 이 200명 정도 이상의 대상이 연루되어 있는 이 교수들 다 박탈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아마 일반 대학의 경우는, 일반 석·박사의 경우는 그런데 전문 석·박사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임오경 위원 이 석·박사 자격증을 가지고 또 다른 대학으로 임용되고 다 했습니다. 한 학생은, 한 인간은 표창장 하나 가지고 학위, 직업, 의사 자격증 다 박탈당했어요. 그런데 한예종에서 이것을 안 한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그 부분은 학교 측하고 같이해서 철저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총장님, 제가 지금 말한 것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슈우킨 대학교에서 직접 받은 겁니다. 이것 다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이것 다시 한번 내부 감사하셔서 이것 다 밝혀내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바로 이것은 고발 건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철저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결과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조사해서 이것 결과 알려 주십시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청문회 도입도 가능한 겁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은 임오경 위원이 얘기한 문제를 꼭 학교 측에서 반드시 밝혀내시고 신은향 문체부 국장님은, 이걸 문체부에서도 감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같이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위원장 김교홍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형배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늘 김세원 원장님의 전문성을 좀 살펴보려고, 아까 오전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살펴보려고 죽 했는데 자신이 썼다는 논문에 나오는 학자 이름을 몰라요. 그게 누구냐고 해요. 그래서 그것 2018년 논문인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다섯 가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꼭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감 전에 꼭.

첫 번째, 문화관광연구원장으로서 전문성을 입증할 연구 실적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18년 논문 앙마르슈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사회 연결망 분석, 영문으로는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Social Network Analysis) 어쩌고 이렇게 되는 여기에 교신저자로 참여하게 된 과정. 세 번째, 문화관광 분야의 연구 용역이나 집행 혹은 실행에 참여한 실적. 그다음에 네 번째, 2021년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중앙선대위 문화트렌드 선도위원장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으로 임명되는 상세 과정. 그리고 다섯 번째, 각종 주요 경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력에 대한 증명서류 이걸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김세원 원장님, 이 자료를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 및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대해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해외 복권 구매 사기 관련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와 인형뽑기방의 사행성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언론사에 정부광고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난 정부하에서의 언론사 길들이기와 보수 단체 행사 지원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해서는 무용원장의 입시 채용 비리 의혹 조사 필요, 석·박사 과정 설치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고 한국관광공사의 혐중 분위기 대응 태도, 수의계약 절차 관련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KTV의 계엄 관련 언론 통제, 내란 방조 행위 등에 대한 지적과 언론중재위원회

의 가짜뉴스 대응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오늘 피감기관 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고 대안 등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손솔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0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임오경 위원께서 정책자료집을 배포하셨습니다. 자료집을 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기관들은 자료집 내용을 잘 살펴 주시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피감기관의 기관장 등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경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4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5인)

김교홍 김승수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손 솔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정연욱 조계원 조은희 진종오

○첨가 위원(1인)

김윤덕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

○피감사기관 참석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심오택
사무처장 이진식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편장완
사무국장 이선영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직무대행 이찬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세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
 경영본부장 유병철
 미디어본부장 남정호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김태정
 방송본부장 권태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이구용
 사무처장 김일희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 윤두현
 경영본부장 김현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신미경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수
 사무총장 김윤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이정은
 예술정책관 신은향
 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소통정책관 공형식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체육국장 강수상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출석 증인

한은경(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회장)

